

02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I. 들어가는 말	18
II.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22
1. 이론 분석의 틀	22
2.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27
3.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상태	34
1) 미래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	35
2) 이상적인 상태의 한반도를 위한 시나리오 설정	38
4.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	42
III.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45
1. 낮은 수준의 대외개방도와 ‘동북현상’	46
2. 한반도 통일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51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편익	57
1) 연구방법	57
2) 동북3성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GDP, 수출무역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추산	58
3) 외국인직접투자가1%씩 증가할 때 동북3성 GDP, 수출 무역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에 대한 영향	59
4.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60
1) 연구방법	60
2)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 변화	60
3) 분석모형과 데이터	64
4) 분석 결과	65
5) 요약 및 시사점	67
5.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	68

IV.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75
1.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와 중국의 안보이익	76
2. 한반도 냉전 구도와 중국의 안보이익	81
V.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85
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86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협력	88
1)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89
2)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93
VI. 나오는 말	97
참고문헌	103

표 차례

표 Ⅲ-1. 2004~13년 동북3성과 전국 3개 지표(指標) 통계표	47
표 Ⅲ-2. 2013년 동북3성과 중국 전체의 대외개방도 대비표	49
표 Ⅲ-3. 2004~13년 동북3성과 전국 GDP 성장률 통계표	54
표 Ⅲ-4. 2014~20년 동북3성 GDP 계산치	55
표 Ⅲ-5. 2020년 대외개방도 상승이 가져온 동북3성, GDP 증가량	55
표 Ⅲ-6. 2009~13년 동북3성 외국인직접투자, GDP, 수출 및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의 발전현황	58
표 Ⅲ-7. 지린성, 헤이룽장성 2020년 관련지표 예측치	59
표 Ⅲ-8. FDI가 1% 증가할 때 2013 동북3성 경제지표에 미친 영향	59
표 Ⅲ-9. 지린성, 헤이룽장성 2020년 관련지표 예측치	59
표 Ⅲ-10. 아시아문제연구소 통일편의 추정 연구보고서	61
표 Ⅲ-11. 분석 시나리오	61
표 Ⅲ-1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66

그림 차례

그림 Ⅱ-1.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32
그림 Ⅲ-1. 2013년 동북3성과 중국 전체의 대외개방도 대비	49
그림 Ⅲ-2. 동북아지역 경제블록화 구상도	68
그림 Ⅲ-3.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 분포도	70
그림 Ⅲ-4. 중국 주변 발전공간 분포도	71
그림 Ⅲ-5.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73

서언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남북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라는 주변 4강은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자국에 이익이나 손해냐에 따라 통일의 성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남북통일이 주변 4강에 주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동안의 국내 연구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의 한반도 전문가 열두 분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의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의와 다수의 외교사절,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개세미나를 거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고, 남북통일이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비용 분석을 4개 국어로 출간하여 해당국 정부와 주요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얻고자 한다. 그동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열두 분의 국외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호열 국제협력정책실장과 실무를 맡은 김보민·최장호 부연구위원, 임소정·김준영 연구원, 김민제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한반도 통일이 대한민국과 북한, 주변 4강, 나아가 전 세

계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진일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 일 형**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향후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동북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지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모형(理想模型研究方法) 및 세계행위도식(世界行爲範式)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동북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상황을 평화통일이라 상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4대 시나리오인 한반도 상태의 현상 유지, 남북한 간 군사 충돌,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중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평화통일 지지로 설정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동북아에 공존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고, 이로써 동북아가 평화적·협력적인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삼각물류망 구축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도 확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동북3성은 대외개방도 확대만으로도 2,836억 위안에 달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찰해보면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에 따라 중국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장

기적으로 중국경제에 유리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이 발전공간을 확장하면서 지역경쟁력을 대폭 강화해갈 것이고, 이는 동북지역이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정세는 모두 한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모두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치상태의 남북관계 정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화해 또는 한반도 통일이 진전되면 주변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동북아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국제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전략 실행에 양호한 국제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설사 현재 중국도 주한미군의 일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위로 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한·중은 북한의 특구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돕고,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China is pursu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its northeast region with the realization that it is an area imperative to China's future development and that it will function as a powerful engine in securing China's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northeast China, however, the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must first be resol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China views the Korean Peninsula, and which strategy it will employ in approaching this problem.

This study uses the ideal model method and global action patterns method to demonstrate that peaceful unification is the most ideal setting for China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f China's goal is to pursue its development strategy in the Northeast region. We conclude that China will choose a policy strategy that support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implement its own national strategy.

We consider four main scenario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atus quo, militar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pursuit of openness and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We conclude that China will strategically construct its policy underpinnings vis-à-vis the Korean Peninsula in support of a peaceful unification. Furthermore, China will eschew strategic competition with neighboring powers such as the US or Japan, and instead embrace cooperative co-existence in Northeast Asia. This would also mean that Northeast Asia will soon emerge on the global center stage as a peaceful and cooperative region.

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 can be considered in three aspects: unification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s northeast region resulting from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up, the ripple effect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on China's Eurasian strategy, and the application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If a Northeast Asian triangular trade network becomes a reality, China's northeast region would be the greatest beneficiary in connection with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economic effects engendered from increased openness of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due to Korean unification will be considerable. Increased openness of the three northeast Chinese provinces by itself is expected to generate economic benefits of about 283.6 billion RMB.

Additionally, when considering the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using the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le it is true that trade diversion caused by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may impact China negatively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will accelerate and increase import demand, which may increase China's exports to North Korea and create a positive ripple effect.

Regarding the Eurasian Strategy and the application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if President Park's Eurasia Initiative Strategy is implemented, China's Northeastern region would experience increased openness and more areas would become open to development, henceforth strengthening its regional competitiveness. This would mean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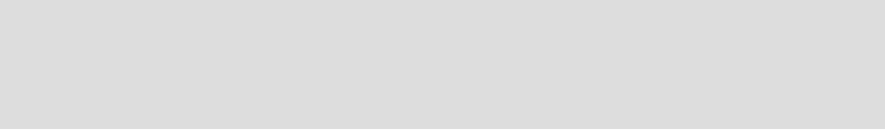
the Northeast region could become a new engine of growth for the Chinese economy.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al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crucially impacted China's national interests have stemm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hus, Korean unification and China's security interests are closely connected.

In China's perspective, Korean peninsula also represent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to the US and Japan in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strategies. As a result, surrounding powers such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stantly changes and standoff politics of inter-Korean relations; naturally, there would be strategic competition among the surrounding major powers who intend to prevent negative outcomes that could hurt them.

Reconciliation of the two Koreas 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induce the surrounding countries to acknowledge that they could lose out on potential economic benefits if they do not actively participate i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f so, the mood in Northeast Asia will be extremely cooperative, which would provide favor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Chinese regional strategy vis-à-vis East Asia.

Sino-Korean strategic cooper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process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term view,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neutral policy towards the US and China. In the current situation, China also maintains a favorable attitude regar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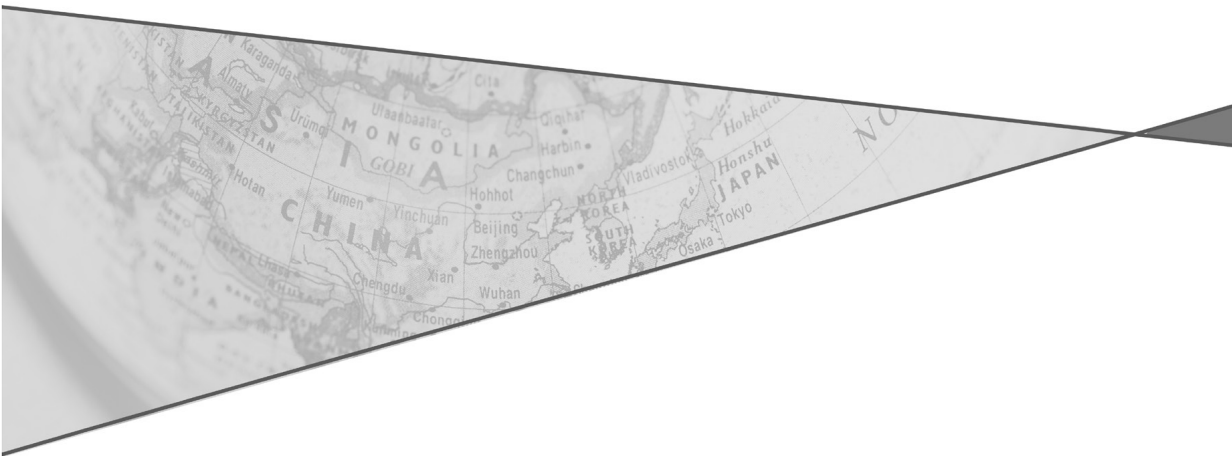
the ongoing active role of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However, the role of the US-Korea alliance must be limit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while North Korea is undergoing top-down reform, a desirable policy for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to encourage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and help North Korea to open up and initiate reform.s

Especially, if one wishes to see substantial changes in North Korea, one must actively conduct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Furthermore, regarding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attentive towards the creation of special zones in North Korea.

Finally, in order to realistic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issue at hand must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Internal politics within North Korea must first be stabilized by achieving economic exchange within set boundaries and at the same time, we must induce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society. Unified Korean Peninsula will play the role of a hub, located at the crossing point of interests of great territorial and maritime powers. Of course, the benefit will be shared by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way,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bonanza not only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but also to all neighboring countries.

I

들어가는 말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의 기간을 거치며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발전을 성취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에 근거해 중국은 향후 30년의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바로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화 국가로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새로운 30년 내에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방위(全方位)적인 개혁개방과 함께 대규모의 국제협력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최근 ‘장지투계획(长吉图规划)’, ‘일대일로 구상(一带一路计划)’과 같은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장지투계획’은 사실 중국 동북지역발전 전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국제적 협력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고, 향후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개방도를 높이고, 발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북지역 개발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국제적인 지역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동력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지역 문제의 실마리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문제는 한반도의 남북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상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전략적인 기조에 입각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을 미쳐 온 한반도는 오늘날에도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가 중국에 미쳤던 영향과 오늘의 한반도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시기에는 한반도를 진원지로 한 수차례의 전쟁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그 시기에 비해 국력이 신장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반도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한반도에 중국의 안보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 분열상태와 대립이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 실행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력이 신장되고 있는 중국에 있어 한반도가 미치는 영향은 안보 문제보다 경제발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형손실(隱形損失)’, 즉 ‘보이지 않는 손실’이라는 개념으로 이 영향을 분석하면 그 손실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결론도 가능하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 상태라면 중국은 한반도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으로 동북3성의 경제진흥은 물론 동북아지역에서도 광범위한 국제협력체를 구축하여 거대한 경제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가설에 불과하나 한반도 분열상황에서의 중국의 손실이 얼마만큼 지대한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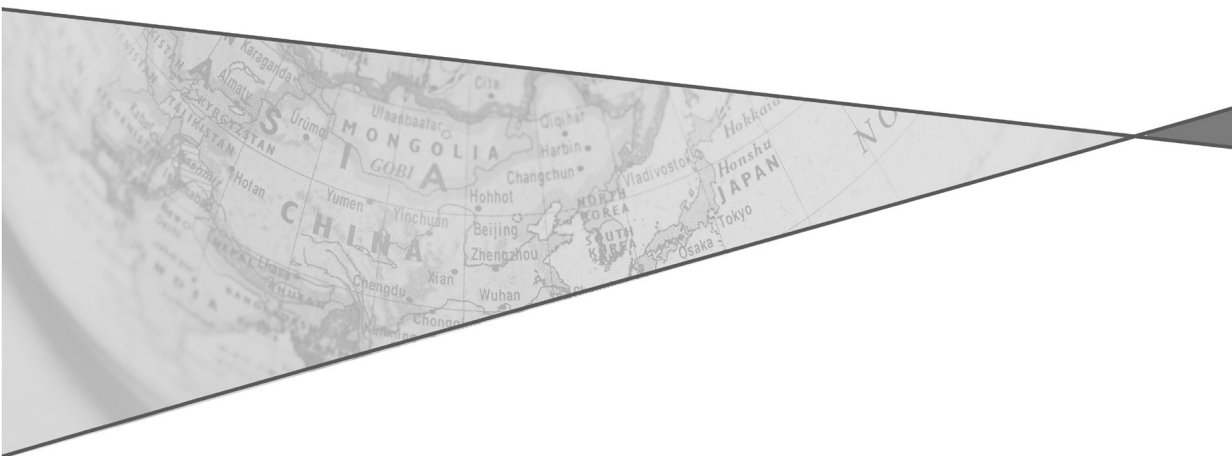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역시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무력충돌, 혹은 평화적 통일 등 각각의 시나리오들은 중국의 국가전략 실행에 있어 전혀 다른 주변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어떤 정책 기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책결정을 좌우할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역시 한반도와 중국 간의 이익구도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자명하다.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중국의 최대이익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의 이상적인 상태를 평화통일로 설정하였으며 중국은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따른 중국의 전략이익, 경제이익, 안보이익을 증점적으로 다루었다. 결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II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1. 이론 분석의 틀
2.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3.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상태
4.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



1. 이론 분석의 틀

중국이 어떠한 한반도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라는 틀로만 국한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칫하면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잃고, 역사적, 정서적인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중국 학계와 한국 학계에서의 일부 관점들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의 대결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한국이 미국 일변도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를 ‘불통불란(不統不亂)’, 통일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상황도 아닌 현상유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학계에서도 이러한 관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사실상 충돌지향적인 냉전적 사유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다 객관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상모형연구방법(理想模型研究方法)’과 ‘세계행위도식(世界行爲範式) 연구방법’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 도입의 목적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 분석에 필수적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 대국들의 기본 행위도식을 재인식한 기초 위에 중국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과연 어떤 한반도의 이상상태를 지향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즉,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와 틀은 행위 당사자인 중국의 동북아전략 목표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상모형연구방법’이란 자연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물리적인 현상의 본질을 간단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학 의미에서의 이상모형연구방법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전략 연

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국가전략의 틀과 목표 구축에 있어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 전략 실행을 위한 이상상태 설정의 전략체계 구축의 방법론적인 전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전략이란 모든 행위 주체가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 모종의 이상상태를 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전략의 수립은 본질적으로 행위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모형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체계 구축은 대체로 세 가지 과정을 밟는다. 첫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나열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없다면 전략도 없다. 반대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목표의 설정과 로드맵의 선택이 바로 전략 수립의 첫 단계이다. 둘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전략 목표이다. 셋째, 이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가전략은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인 목표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실행되는 만큼 이상적인 환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은 본질적으로 이상모형의 구축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모형연구방법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연구에 도입하면 동북아전략 목표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이상상태를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과정에 근거하여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목표와 그 전략에서 비롯된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는 중국이 근거하고 있는 전략체계의 기조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중국은 일찍이 2049년까지 현대화 국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총체적인 전략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 발전과 협력이라는 전략기조를 수립하였다. 이러

1) 張憲魁等(2007): 『物理學方法論』, p.173. 浙江教育出版社, 2007.

한 전략기조는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전제이며 기본적인 기조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총체적인 발전전략 기조를 이론적 근거로 설정하여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목표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목표에 대한 분석이 곧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좌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향할 것이고, 그 지향점을 전략체계 수립의 이상적인 상황으로 상정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동시에 미국과의 대결에서 한반도를 활용하려 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일정한 긴장상태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 상태유지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필수적인 이상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수행에 있어 한반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즉,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한반도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를 토대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 실행에 있어 한반도의 가장 적절한 상황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어떤 로드맵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전략적 로드맵 설정이란 결국 전략목표 성격에 근거해 주변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로드맵은 전략기조 설정의 차이로 인해 크게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즉,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 기조를 선택하는지 혹은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기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한반도 정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상술한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어떠한 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차원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계

행위도식 연구방법이란 대국들의 행위방식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 그 행위방식을 유추해봄으로써 대국들의 전략 설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관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 강대국이라고 이르는 대국들의 행위도식은 고대의 ‘병탄확장’형 행위방식에서 근대의 ‘식민약탈’형 행위방식으로 전환해왔고 현대에는 ‘협력통제’형 행위방식을 형성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고대와 근대 대국들의 행위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근저에 깊이 깔려 있어 강자가 약자를 제멋대로 지배한 인류 역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민족독립, 주권의식, 글로벌 행위규범, 그리고 민주, 평등, 정의, 공정, 평화, 윈-윈 등 새로운 현대의식의 형성과 기존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대국들의 행위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국들이 약육강식의 논리하에 제멋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가들을 억압했던 역사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세계는 대국들이 인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평화로운 질서 구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중국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 세계 행위도식 연구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많은 오류를 배제하고, 중국의 미래전략 지향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대해 각국의 이해는 다르다. 특히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과거 중화질서를 회복하고 패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우려 깊은 시각으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한국 학계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 ‘제4성(省)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 흐름의 추세를 외면하고 ‘대국이란 패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고대적, 근대적인 고정관념에 국한하여 대국의 행위와 미래전략의 기초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행위도식 연구방법은 세계가 이미 민주화와 사회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대국들이 제멋대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어떤

대국이라도 협력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두고 있다. 또한 대국들의 미래 전략기조 설정에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기의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한 연구는 다량의 근거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교적 수사로만 치부하며 중국이 실제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한반도의 현상유지 상태가 중국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미래 지향 전략기조와 한반도 정책기조의 가능한 선택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 행위방식 변화에 대한 관점의 조정이 필요하다.

2.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는 중국이 현재 기반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목표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은 거대한 국가전략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전략의 기조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연 어떤 국가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1987년 덩샤오핑은 ‘70년 국제평화환경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1980년부터 2050년까지 장기적이고 평화적인 국제상황이 유지되어야 중국은 ‘3단계’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에서는 국민생산총액을 1980년의 두 배로 증가시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20세기 말 국민생산총액을 다시 두 배로 증가시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소강(小康)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3단계에서는 21세기 중엽 일인당 GDP가 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도달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부유해지며 전 사회의 기

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¹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표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국민생산총액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를 이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² 궁극적인 중국의 전략목표는 현대화 국가 건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과 개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은 이러한 총체적 국가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동북아지역이 자본, 기술, 자원, 인구 등 경제적 요소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미래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동북부,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동력을 형성해 줄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중국은 총체적 국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에서 국제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는 총체적 국가전략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체제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기점(基点)과 이념의 설정이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이 과연 어떤 대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후진타오 전(前) 주석이 제시한 조화로운 세계의 개념을 미래 중국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핵심이념으로 설정해야 하며 평등, 민주, 정의, 공정, 윈-윈, 평화 등 현 시대정신으로 이념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국들이 제멋대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대국이라 할지라도 세계발전의 흐름을 거스르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학자 시아리핑(夏立平)은 '세계 다극화 추세와 국제관계의 민주화 조류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전 인류의 이익을 더욱 긴밀히 연결해나가고 있다. 이는 국

제사회의 조화로운 공존, 중국과 세계 각국의 협력발전, 공동 번영이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²⁾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목표를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체계의 구축에 두어야 하며, 세계가 직면한 인구, 자원, 에너지, 환경, 식량안보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처해가야만 중국의 이익은 물론 인류의 발전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조화로운 세계라는 개념이 중국의 총체적 전략에서 극히 중요한 이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전략과 같은 지역적인 범위의 전략도 그 이념을 핵심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국제행위방식 변화에 따른 국제체계에서의 자아위치 설정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이념체계 수립은 전략 설정 시에 그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전략의 성격을 충돌, 대치, 협력 등으로 나누어 볼 때 전략의 성격에 대한 선택은 전략적인 목표를 근거로 한다. 만일 그 전략 목표가 다른 나라와의 전략적인 경합에 둔다면 그 기점을 충돌 혹은 대립으로 설정하는 반면, 전략 목표가 경제적인 발전에 있다면 전략적인 기점을 협력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이 한반도의 분열상태,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하여 군사대국화라는 전략목표를 실현하고자 할 때 전략적인 기점은 협력이 아닌 대립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충돌에 두게 될 것이다. 중국 전략목표가 현대화 국가 건설에 있기에 기점을 협력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 설정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동북아 전략구상은 동북아에 내재된 3개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 목표가 중

2) 夏立平(2008): 『當代國際體系與大國戰略關係』, p. 474-475.

국이 안고 있는 동북3성의 경제부흥, 발전공간과 지역 경쟁력 확보, 안보이익 등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고차원의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즉, 동북아지역에서의 고차원 국제협력체의 구축이 바로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에 부합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차원의 국제협력체계는 지역 내 관련 국가들이 조약 체결을 통해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지역 내 각국간의 시장 공유,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보장해주는 국제성격의 조직을 의미한다. 지역경제협력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일련의 차별 없는 경제정책을 마련하여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원요소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내 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행정권력을 초국가(지역)협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해당 협의체는 국가(지역)간에 조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설립해도 되고 지역협력의 상급 기구에서 설립되어도 된다.⁴ 이러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통일된 협의체임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의 지역국제협력조직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협의체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조직화된 정도에서 이미 통합된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이 점은 다음과 같은 6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지역정책의 운영을 관장하는 전문기구인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유럽지역 전반의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전문기능 기구와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유럽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정한다. ② 유럽 지역 정책의 실현 방식인 정부지원, 공공지출, 정부보조, 세금 인센티브 등을 확립한다. ③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를 확정하여 해당 지역에 지원을 제공한다. ④ 지역발전원조 기준을 제정하고 유럽연맹에서 회원국의 지역발전정책을 조정한다. ⑤ 유럽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보장 및 지도기금의 일부로 원조기금을 마련하여 후진지역을 지원한다. ⑥ 유럽 단일화폐인 유로를 내와 유럽경제 및 통화동맹을 수립하고 유럽통합을 적극 추진한다.⁵

이에 대해 중국학자 주빈빈(祝濱濱)의 관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포스트 위기 시기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제도 건설에 대한 몇 가지 사고’라는 글에서 ‘시대성 원칙, 이익 최대화 원칙, 경합 및 상생구현 이념, 가치관 원칙’을 기반으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해 7가지의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지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 즉, 지역성 안보조직을 설립하여 생태안보, 에너지안보, 국방안보의 등 문제를 해결한다. ② 동북아 에너지공동체를 만든다. 이 구상은 러시아를 에너지공급원으로 하고 중국, 일본, 몽골 및 남북한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에너지공동체이다. ③ 화폐공동체를 만든다. 주요 목표는 지역성 화폐동맹을 세워 지역간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 리스크를 막는 것이다. 나아가 화폐 공동체를 통해 적당한 시점에 아시아의 통일화폐체계를 확립한다. ④ 자유무역공동체를 만든다. 자유무역공동체는 동북아지역 국제협력의 기초이자 역내 각국이 추구하는 최대 목표이다. ⑤ 관세동맹을 구성한다. 관세동맹은 지역 내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건이자 역내 각국의 지역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⑥ 일원화된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일원화된 표준체계는 제품표준 일원화 및 생산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역내 각국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세계와 연결한다. ⑦ 동북아 경제연합체를 구성한다. 이 연합체는 역내 각국의 협력이 국가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화 및 제도화를 실현함을 의미한다.³⁾

고차원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을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체계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전략체계의 핵심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심적인 내용과 중국 글로벌전략의 이념 및 기반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략체계의 모체가 되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전략체계의 모체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중국의 역내 활동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며 동시에 전략체계의 모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당 활동방안도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3) 祝濱濱, 『后危机时期東北亞區域經濟合作制度化建設的几点思考』, 經濟縱橫, pp. 54-57, 20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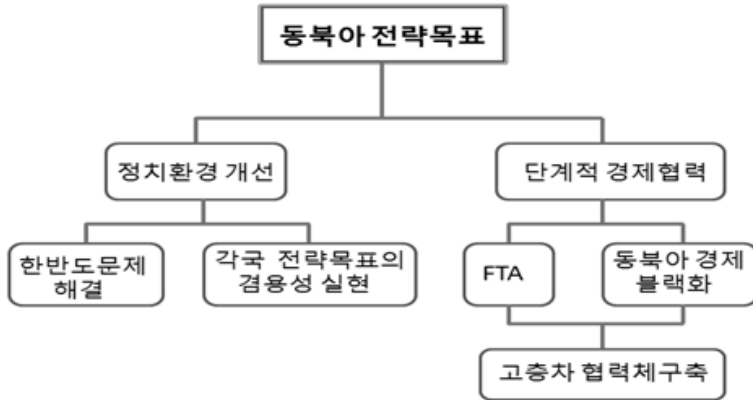
많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동북아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이점을 밝혀냈듯이 동북아보다 우월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주변국들의 협력으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동북아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 시장의 이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체계의 구축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설정은 동북아지역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과 같다. 그 전략체계에 대한 분석에 앞서 언급해야 할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모든 전략이 그러하듯이 전략이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측인 만큼 그 자체의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 그 어떤 전략도 절대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동북아지역전략목표를 설정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상당한 모호성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상태에 대한 가설에만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전략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총체적인 방향의 제시에 있지 구체적인 설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전략의 구체적인 설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동북아의 현 상태를 놓고 볼 때 중국이 자기의 전략적 목표에 접근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전략이 실행되려면 단기적인 접근을 통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고차원의 국제협력체 구축에 앞서 그에 필수적인 정치환경 개선과 단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을 실행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동북아지역의 정치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두만강유역개발을 핵심으로 동북아지역 국제협력체를 구축하려고 갖은 노력을 해왔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주된 원인은 동북아지역의 정치환경에 있다. 동북아지역 각국의 정치구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분열, 북한의 미 개방 상태, 지역국가들간의 전략목표 호환성(겸용성) 부족 등이다.

그림 II-1.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한반도 분열상태와 북한의 미개방 상태는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상태는 중국과 동북아지역의 연결을 가로막는 단열대(斷裂帶)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한 정치환경 조성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른 문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인 목표가 호환성(겸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내 모든 국가들이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전략목표에는 협력에 필요한 호환성(겸용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북아지역 협력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나 자기들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지향이 협력으로 설정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기조는 중국과 한국의 전략목표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역내에 불안정한 국면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 문제가

역내 국가들간 전략목표의 호환성(겸용성) 불일치를 유발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따라서 각국의 전략목표에서 협력의 호환성(겸용성)이 증대되지 못한다면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는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중국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적어도 주변국들과 윈-윈 할 수 있는 이익구도를 구축하여 주변국들간 발전전략의 접합점을 형성해야 한다. 중국이 과연 어떠한 외교 전략으로 동북아지역국들간의 전략적 지향을 갈등과 대결, 충돌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 동북아전략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단계적으로 동북아지역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지역 국제협력체 구축의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한·일은 FTA 논의 단계에 진입하였는데, 만일 이러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에서 지극히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FTA는 고차원의 국제협력체 구축의 첫 단계로서 역내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제협력의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상태

앞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의 틀로 ‘이상모형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적인 틀로 분석하면 중국이 어떤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일 중국의 전략 목표가 동북아 지역에서 대국들간의 대결로 설정되어 있다면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통제가능한 긴장상태를 전략적으로 지향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협

력으로 최대의 이익 창출을 그 목표로 설정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을 전략적으로 지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위해 미국과 대결을 벌인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다. 즉, 한반도를 미국과의 패권 다툼의 장으로 설정하면 중국은 한반도의 분열상태를 충분히 이용하여 미국과 전략적인 게임을 벌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동북아에서 거대한 경제협력체를 구축하고 패권이 아닌 국제협력으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동북아에서 어떠한 분쟁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표 실현의 적절한 이상 상태로 설정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의 선택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가 바로 한반도 정책기조 분석의 이론적인 좌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 기조 및 체계를 논의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이를 이상적인 상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지침으로 설정하여 중국이 과연 한반도의 어떤 상태를 전략목표 실현의 이상적인 상태로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1) 미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시나리오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반도 문제란 많은 문제에 중첩되어 있어 복잡다단한 문제이며, 그 변화 과정에서 무수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본 연구는 가장 실현 가능한 4개의 변화과정을 설정해보도록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 분열의 현 상태 유지이다.

남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다른 돌발적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

정할 때, 한반도는 분열과 대립의 현 상황을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처럼 남북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가운데 남북한 간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립구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핵개발이라는 커다란 변수의 존재로 인해 남북한 간 대립 구도를 타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한반도를 관통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더욱 많이 축적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다.

남북한 모두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으나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측불가의 우발적인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거나 혹은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계획적인 국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무력충돌의 승자가 누구든 그 결과는 바로 한반도의 초토화일 것이다. 다만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러한 무력충돌이 금방 통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리아나 리비아와 같은 국가들처럼 무력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는 근대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은 현재의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냉전구도의 핵심이었던 이념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투쟁철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념 갈등은 반드시 상대방을 소멸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셋째는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로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은 독재정권이며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선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중국과 같은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의 노선을 천명하지 않더라도 북한사회가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로 변화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북한정부도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순응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은 오히려 시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변화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시장경제’ 요소이다. 폐쇄적인 사회를 고집해 왔던 북한에 ‘시장경제’ 요소가 그 경제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현상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의 본질과 핵심이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등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물론 북한의 ‘시장’은 아직 규모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도 역시 결핍된 상태이다. 또한 생산과 연동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유통에만 의뢰하는 시장경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그것이 향후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 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특구 건설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사회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예시해주고 있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이 문제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변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아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평화통일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시나리오는 두 개일 것이다. 하나는 남북한이 통일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 가능한 급변사태에 따라 통일이 달

성되는 것이다. 전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끈질긴 노력이 필수적이다. 후자인 급변사태에 의한 흡수통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은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통제 불가능의 급변사태에 처한다면 이는 시나리오 2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통일을 평화적인 통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상당한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평화통일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3과 직결되어 있다. 극단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북한의 붕괴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현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는 북한의 변화와 경제회생이어야 한다.

2) 이상적인 상태의 한반도를 위한 시나리오 설정

중국의 동북아 전략체계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한반도의 모종의 상태를 지향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서의 한반도의 이상상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미래 한반도 정세변화의 가능한 4개의 시나리오를 열거하였다. 중국은 그중 어느 것을 선호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중국의 전략목표 실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를 분석의 이론적인 좌표로 설정해야만 정확한 답안을 내놓을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는 높은 차원의 국제협력체 구축에 있다고 상술하였다. 이 목표를 이론적인 좌표로 중국이 한반도에 바라고 있는 이상상태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한반도의 통일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상태도 아닌 현상

유지에 대한 중국의 관점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한반도 분열상태를 이용해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시 이런 현상유지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중국이 이러한 등거리 외교에서 어떤 가시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 현상유지라는 상황이 과연 진정한 안정인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분열상태에서 과연 이익을 챙기는 것인가? 물론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실리는 챙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한반도의 분열상태가 중국에 천문학적인 ‘은형손실(隱形損失)’, ‘보이지 않는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챙길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한반도의 분열상태에서 중국이 감수하는 ‘은형손실’이란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란 한반도에 폭발 가능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가 축적될수록 불안정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에너지의 폭발 역시 시간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분열상태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인위적인 단열대(斷裂帶)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 북부 지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지역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발전공간의 불균형 상태가 가중되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경제발전이라는 차원에서만 분석해도 한반도의 분열상태 혹은 현상유지가 결코 중국의 전략목표가 설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시에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부득이하게 한반도의 현상유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 분열의 현상유지가 결코 중국이 이상적 상태가 될 수는 없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한반도의 급변사태로 이어지는 무력충돌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에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은 직접적인 피해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 사회질서,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이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가 중국의 동북아전략에 지극히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역시 자명한 일이다.

북한이 폐쇄적인 상태를 풀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중국이 매우 환영할 만하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도모할 것이며, 동북아 발전전략 역시 순조롭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요원하다고 가정할 시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희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에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시나리오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중국의 정책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상당수의 한국 학자들은 중국이 현재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중국이 복상한 미국세력을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평화통일이 아닌 현상유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개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완충지대설’을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지이다. 본질적으로 한 국가의 전략적 완충지대 설정의 전제는 그 국가의 국력이 약한 상태인 동시에 반드시 다른 가상 적대국과 전략적 대치상태에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 냉전시기에는 자본주의 진영의 포위로 국력이 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중국은 북한과 같은 전략적 완충지역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국력이 강화되고 있기에 완충지역 설정의 필요성이 대폭 감소된 상황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주변에 전략적 완충지대를 설정했다는 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 소위 완충지대란 가상 적대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설정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설정했다면 논리적으로 한국을 위협적인 가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이 한국을 가상 적대국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약고’인 북한을 중국이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설정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중국이 전략적 완충지대를 설정해야 한다면 남북한이 협력하는 한반도 자체가 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다. 논리적으로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정책의 근거는 중국이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노리며 주변국들에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주변국들의 유일한 선택은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큰 것인가? 중국에 한국은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상대국이다. 당연히 통일한국에 있어서는 미국도 상당히 중요한 상대국일 것이다. 통일한국에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긴밀히 협력해야 할 상대국이다. 만일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나 대중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대국들간의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갈 것

이며 역사의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자멸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통일이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동시에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이유 역시 뚜렷하지 않다. 중국 역시 통일이한국에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 가능성 역시 낮다. 향후 중국 경제는 주변국들에 대한 의존성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경제시스템은 크면 클수록 복잡한 구조의 전체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작은 요소로도 전체 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한반도에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할 경우 그 발생의 원인은 한반도가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즉, 통일이한국이 중국에는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반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선택한다면 중국도 대응책으로 한반도에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든 통일이한국이든 상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을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하거나 통일이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모두 냉전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있다. 이러한 냉전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면 중국에 있어 한반도의 가치는 극히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지닌 거대한 지정학적인 가치이다. 지정학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간단히 가정해보면 한반도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다면 정치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한반도와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모두 한반도와 중국이 축을 이루는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 할 것이기에 중국의 동북아전략은 비로소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에 있어 협력적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가 이상적인 주변 환경의 핵심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한반도의 이상적 상태는 곧바로 평화통일일 것이다.

4.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초

상술한 분석에 따라 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상상태로 설정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어떤 대한반도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중국의 정책 결정은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 정세의 전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정책을 전개하든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전폭 지지하는 정책을 전개하든지 여부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 정책을 전개한다면 결국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정책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중국이 한반도의 통제 가능한 긴장구도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남북한 간의 갈등을 충분히 이용해야 할 전략적인 필요성이 함께 대두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남북한 간의 모순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회생, 한반도와 경제적인 유대관계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변 환경의 이상적인 상태로 설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한반도 통일 정책 기초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로 설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경제적인 동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으나 기타 각종 복잡한 문제들 역시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논리만으로 중국의 동북아전략 기초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경제적인 측면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반도의 이상상태를 논증하였다. 이 밖에 중국은 반드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대국 간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쟁대상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아태

지역으로 복귀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미는 전략적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중미의 경쟁에 있어 동북아는 더없이 중요한 지역이다. 중미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국이 과연 이러한 전략적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 또한 미국과의 경쟁적인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길이 있는가? 그 길은 바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다.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압력은 실제 한반도 상황과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한반도를 에워싸고 형성된 동북아의 정치구도는 중국의 전략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북아지역의 대립 지향의 정치구도를 협력 지향의 정치구도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적인 착안점을 어디에 둘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정치구도를 재편할 수 있을까? 그 해답도 역시 한반도 문제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동북아지역의 정치구도는 큰 폭으로 재편될 것이며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국들의 전략적인 경쟁도 종언을 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의 착안점이 한반도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이미 동북아지역의 모든 문제 해결의 ‘매듭’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동북아지역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을 전개하는 데 유리한 국제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동북아지역의 평화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중국이 타개해야 할 최대의 난제이다. 세계는 이미 지역성 국제체제에서 글로벌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진입하였고,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였기에 한반도 상태는 미래의 글로벌 체제에서의 중국의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지역은 중국이 선도하는 대국 지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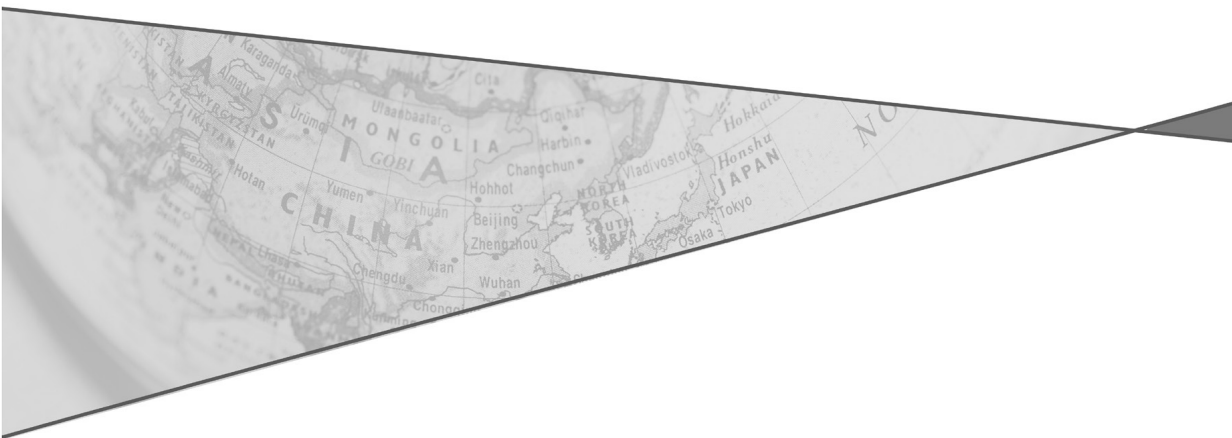
위에 대한 분석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떠한 정책기

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일본 등의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경쟁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도모한다면 중국에는 환영할 일이다. 동북아가 비로소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II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1. 낮은 수준의 대외개방도와 ‘동북현상’
2. 한반도 통일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4.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5.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



1. 낮은 수준의 대외개방도와 ‘동북현상’

일찍이 1950년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동북지역은 중국의 국가급 중점건설지역으로 확정되어 총 156항목의 중점 건설프로젝트 중 56항목을 배정받았다. ‘동북에는 전면적인 공업체계가 구축되었고 철강, 화학공업, 중형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기, 군용 공업 등 중대한 산업프로젝트들이 배정되어 중국 공업화의 초보적인 기반을 마련’¹⁰하면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명실공히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앞서 일제 강점기 말인 1943년, 현재 동북지역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석탄생산량 비중은 49.5%, 생철생산량 비중은 87.5%, 강재생산량 비중은 93%, 시멘트생산량 비중은 66%, 발전량 비중은 72%가 되었으며 철도 길이도 전국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⁹

그러나 동북3성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30여 년간 전국 대비 공업총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기존의 16.5%에서 9.3%로 줄어들어 감소폭은 40%를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3성의 공업순위 역시 낮아졌는데, 랴오닝성은 전국 2위에서 5위로, 헤이룽장성은 7위에서 14위로, 지린성은 15위에서 18위로 하락하였다.¹¹ 일명 ‘동북현상’, ‘신동북현상’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고 동북지역은 이제 낙후한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동부와 서부 중간에 위치했다고 하여 동북현상을 ‘중부가 함몰한다’고 까지 표현하였다.¹² ‘동북현상’이 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동북3성이 개혁개방과정에서 뒤쳐진 원인으로는 구조설, 국유기업 비중 방대설, 프로젝트 이상현상설, 체제설, 동북인 관념낙후설¹³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스템 전체성 효과라는 방법론적 시각에서 보면 동북문제는 단순히 정책환경 또는 산업구조의 불합리성 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전체성 효과

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조정--시장선택---대외 개방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못한 데 있다.

표 III-1. 2004~13년 동북3성과 전국 3개 지표(指標) 통계표

연도	수출입액 (억 달러)				GDP (억 원)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전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전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전국
2004	344	68	68	11539	6672	3122	4750	159878	54	5	12	606
2005	410	65	96	14276	8047	3620	5513	184937	36	7	15	603
2006	484	79	128	17688	9304	4275	6211	216314	60	8	17	630
2007	595	103	173	21956	11164	5284	7104	265810	91	9	21	748
2008	724	133	231	25888	13668	6426	8314	314045	120	10	26	924
2009	629	117	162	22057	15212	7278	8587	340903	154	11	24	900
2010	807	168	255	29796	18457	8667	10368	401512	208	13	27	1057
2011	960	221	385	36595	22226	10568	12582	473104	243	15	33	1160
2012	1041	245	376	38694	24868	11939	13691	519470	268	16	39	1117
2013	1144	258	389	42330	27077	12981	14382	568845	290	18	46	1176

자료: 중국국가통계국사이트, 랴오닝성통계정보사이트, 지린성통계정보사이트, 헤이룽장 통계공보 (2004~13). 이외에 중국국가통계국 사이트의 상관 연도의 위안화 환율을 적용함.

즉, 동북3성 문제는 시스템 구조 문제라는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대외개방상태에서 시장 선택을 배경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산업구조가 조정되면 반대로 시장 선택을 가속화하면서 상호연결,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동북3성의 경제시스템을 분석해보면 다른 지역과 대외개방도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스템이론으로 분석할 시에는 한 경제체제의 개방도가 낮을 경우, 시스템의 비선성(非線性) 작용하의 협동통합 효과 및 강한 전체성 효과를 형성할 수 없기 마련이다. 반대로 동북3성과 같은 경제시스템이 개혁개방 속에서 시스템 구조의 합리적인 배분

을 실현하고 제반 요소간에 상호 연결되는 최적의 상태를 이루게 되면 이른바 동북 문제도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동북3성의 대외무역의존도 상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III-1〉에서 보다시피 2013년 동북3성의 수출입 총액은 중국 전체의 5%, GDP는 10% , 외국인직접투자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이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수출입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외국의 상업투자를 보면 전국 평균 수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외국의 상업투자는 주로 랴오닝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합산해 봐도 18%밖에 되지 않는다. 즉 랴오닝성은 다롄(大連)과 잉커우(營口) 등 국제적인 항구로 인해 대외무역과 외자투자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북한을 주요 인접국으로 상대하고 있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는 무시될 정도로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III-2〉는 2013년 동북3성과 중국 전체의 대외개방도 대비분석표이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3성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다. 랴오닝성은 전국의 평균보다 14.35포인트, 지린성은 33.68포인트, 헤이룽장성은 28.2포인트가 낮고, 〈표 III-1〉을 통해 수십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경제지표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은 3만 6,595억 달러인 데 반해 동북3성의 무역액은 1,566억 달러로서 전국 무역총액의 4.28%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해 중미, 중일, 중한, 중국과 유럽의 무역액이 각기 4,466억 달러, 3,428억달러, 2,456억 달러, 7,007억 달러였지만 동북3성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러시아, 북한과의 무역총액은 각각 793억 달러, 56억 달러에 그쳤고, 중국과 러시아 무역, 중국과 북한 무역은 전국 대외무역총액의 2.17%, 0.15%밖에 되지 않았다. 동북3성 중에서 랴오닝성은 상황이 좋은 편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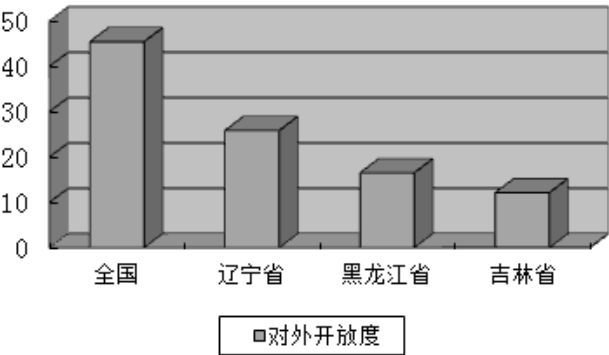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헤이룽장성, 지린성 순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동북3성의 대외개방 정도가 크게 낮음을 충분히 말해준다.

표 III-2. 2013년 동북3성과 중국전체의 대외개방도 대비표 단위: %

성	대외무역의존도	외자의존도	대외개방도	전국과의 차이
랴오닝	25.77	6.53	32.3	14.35
지린	12.12	0.85	12.97	33.68
헤이룽장	16.50	1.95	18.45	28.2
전국	45.39	1.26	46.65	-

자료: 표2수치에 근거하여 계산함. 위안화/달러=6.1.

그림 III-1. 2013년 동북3성과 중국 전체의 대외개방도 대비 단위: %



출처: 『중국통계연감2013』(중국국가통계국편집, 중국통계출판사)에 근거, 연구진 작성.

시스템 이론에 근거해보면, 개방도가 낮을 경우 시스템 제반 요소간의 유기적인 역할이 감소해 전체성 효과가 하락하면서 경제시스템이 강력한 발전추세를 고수하기 어렵다. 동북3성이 발전에서 낙오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개

방도가 지나치게 낮아 초래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3개의 측면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동북3성이 현대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중심-변경 상호작용의 기본모델을 구축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낮은 개방도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선진 경제시스템은 그 접경지역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특수지역을 설정하여,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과 중심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개방사회가 운영하는 기본모델이다.

개혁개방 초반에 중국은 연해 지역에 중요 의미를 부여한 특수지역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전국의 경제도약을 실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전(深圳) 효과’이다.

현재 동북3성은 말발굽형 반폐쇄 상태에 있다.²⁰ 이런 상태는 동북3성이 개혁개방과정에서 낙오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비록 동북3성의 말발굽 어귀에 랴오닝성 다롄이 있긴 하나 다롄 한 지역만으로 동북3성 전반의 경제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1,300km에 걸친 중국-북한의 접경지역에 있으나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중 무역액은 단지 6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이 규모로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측면은 개방도가 낮으면 동북3성의 지역가치가 인하되고 지역가치 인하의 직접적인 결과는 변두리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북 노후공업 기지의 대부분 지역은 대외 개방의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동남 연해 도시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북지역의 제반 생산요소도 연해지역으로 집중되었고 동북지역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점차 변두리화되었다.²² 지역가치가 높으면 그에 상응하는 흡인력이 형성되어 기타 지역의 생산요소들을 자기의 생산체계 속으로 유치하게 된다. 반대로 지역가치가 낮으면 지역가치가 높은 지역에 빼앗기는 신세가 된다. 2001년 동북3성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31억 9,000만 위안으로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의 6.89%였고 같은 해 동북3성의 GDP는 전국 GDP의 11.1%였다. 이처럼 경제 규모와 외국

인투자비중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2011년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2011년 동북3성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91억 달러로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총액(1,160억 달러)의 25.09%에 달했다. 이 수치는 비록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2011년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각각 243억 달러, 33억 달러, 15억 달러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랴오닝성에 집중되어 있었고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비중이 매우 적었다. 즉,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랴오닝성에는 외국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개방도가 극히 낮은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변두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동북현상’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분단된 한반도로 하여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대외개방이 막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제까지 동북지역이 입은 ‘은형손실’, 즉 보이지 않는 손실이 보이는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 한반도 통일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지정학적 운명공동체로 여겨졌던 중국 동북지역은 지경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동북3성은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에 기반한 방대한 잠재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며, 주변국에는 대표적인 자본, 기술, 자원밀집형 국가들인 일본, 한국, 러시아가 있다. 동북지역 자체의 우월한 여건 및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동북3성은 천혜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많은 연구가 중국 동북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목한다. 이는 동북아의 ‘삼각물류망’ 구축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산을 중심 항구로, 한의 나진 항구를 보조 항구로 하면서

나진을 국제물류단지로 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환동해권, 환태평양권의 물류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²³ 또한 한반도의 동해안선을 잇는 부산-나진-투먼의 국제철도, 서해안선을 잇는 서울-개성-신의주-단동 국제철도가 관통하고 한반도 동해와 서해안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중국의 동북지역을 잇는 교통운수선이 이루어지면 동북은 명실공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다. 경의선이 회복되면 한반도 경내의 연간철도수입은 2억 4,850만 달러가 된다는 예측통계가 있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 달러가 북한의 수입이 된다고 하고, 또한 경의선을 이용하여 동북지역과 한국, 일본 간의 컨테이너 화물량에서 다렌항이 10%, 천진항이 5%를 운수할 것이라 한다.²⁴ 이에 따라 동북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 동북지역 개방도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지역가치의 증대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효과 역시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익에 대한 완전히 계량화된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나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중국 동북지역에 줄 수 있는 개방도의 증대 효과를 근거로 그 이익의 예상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현재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평균 개방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동북3성은 다렌항과 나진항을 양 날개로 균형잡힌 발전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거기에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적인 협력이 대폭 확대되면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의욕을 고취할 수 있기에 동북아지역은 전방위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한다면 동북3성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인해 충분히 대외개방도를 높이면서 전국의 평균 개방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의 증대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어떠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그 방법론적인 기점

을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학자 란이성(蘭宜生)은 ‘경제개방도가 중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수출입총액, 실제 외국자본의 집적적인 투자와 GDP와의 관계로 대외개방도(FO:Foreign Openness) 분석 지표를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대외개방도란 대외무역의존도와 외자의존도의 총합이며, 대외무역의존도는 수출입총액과 국내생산총량과의 비례를 설명하며 외자의존도란 외상직접투자와 국내 총생산량의 비례로 표시한다. 그것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ext{대외개방도(FO)} = \text{대외무역의존도} + \text{외자의존도} \quad (1)$$

$$\text{그중 대외무역의존도(FTR)} = \text{FT/GDP} \times 100\% \quad (2)$$

$$\text{외자의존도(FCR)} = \text{FDI/GDP} \times 100\% \quad (3)$$

$$\text{FO} = \text{FTR} + \text{FCR} = (\text{FT/GDP} + \text{FDI/GDP}) \times 100\% \quad (4)$$

이에 따르면 대외개방도가 1% 증대하면 GDP의 0.15%의 증가를 유발한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다른 주장도 있다. 천차이(陳才)에 따르면 “영향만 보면, ‘수출이 1%포인트 인상되면 GDP는 1.85%포인트 성장하고, 수입이 1%포인트 인상되면 GDP는 0.36%포인트 성장하며 수출입총액이 1%포인트 인상되면 GDP는 0.59%포인트 성장한다²¹⁾”고 한다. 천차이의 계산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동북3성이 획득할 수 있는 개방도가 동북3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매우 큰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란이성의 대외개방도의 1% 증대가 GDP의 0.15%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을 차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3성에 끼치는 GDP 증가 효과를 분석하려 한다.

먼저 분석의 편리를 위해 가설적인 전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중국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를 크게 증대시킬 가능성을 가설의 전제로 설정하고 그 증가폭이 중국 평균 대외개방도에 접근할 만큼 크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현재 GDP 기점으로 2020년의 동북3성의 GDP를 예상하여 분석의 전제를 형성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3성은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인가?

앞 절에서 제시한 <표 III-2>에서 2013년 동북3성의 수출입총액은 전국의 5%, GDP는 전국의 10%, 외국인직접투자는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GDP와 비교하면 동북3성의 수출입총액은 전국의 평균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외상투자총액은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다. 하지만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국의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다. <표 III-1>에서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를 계산한 것을 전국 대외개방도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앞 절에서 제시한 <표 III-2>와 같다.

표 III-3. 2004~13년 동북3성과 전국 GDP 성장을 통계표

단위: %

연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전국
2004	12.8	12.2	11.7	9.5
2005	12.3	12.0	11.6	9.9
2006	13.8	15.0	12.0	10.7
2007	14.5	16.1	12.1	11.4
2008	13.1	16.0	11.8	9.0
2009	13.1	13.3	11.1	8.7
2010	14.1	13.7	12.6	10.3
2011	12.1	13.7	12.2	9.2
2012	9.5	12.0	10.0	7.8
2013	8.7	8.3	8.0	7.7
연평균 성장률	12.4	13.2	11.3	9.4

출처: 전국연도별통계공부와 동북3성관련연도통계공보(全国年度统计公报及东北三省相关年度统计公报)

그리고 위의 <표 III-3>에서는 2004~13년의 동북3성과 전국 GDP 증가를 근거로 2020년에 동북3성이 도달할 수 있는 GDP 총액을 구하였다. 세계은행은 ‘2020년의 중국’이라는 예측보고에서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의 GDP는 5% 증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수치를 2020년 동북3성의 GDP 총액을 구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는다. 이에 따라 <표 III-4>에서는 동북3

성의 2020년 GDP 예측치를 구해낼 수 있다.

표 III-4. 2014~20년 동북3성 GDP 계산치 단위: 억 위안

성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랴오닝	27,077	29,297	31,553	33,825	36,091	38,329	40,514	42,620
지린	12,981	13,994	15,015	16,036	17,046	18,035	18,991	19,902
헤이룽장	14,382	15,461	16,543	17,618	18,675	19,702	20,688	21,618

자료: <표 III-2>에 근거함.

위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만일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가 현재 전국의 대외개방도 수준에만 접근해도 <표 III-5>의 결과가 나온다. 즉, 동북3성은 대외개방도의 증가만으로도 2,836억 위안(위안화)이라는 증가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천차이의 연구 결과로 분석하면 동북3성이 거둘 수 있는 GDP 증가는 1조 위안(위안화)에 달할 수 있다. 이 수치에 비추어보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동북3성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것임을 제시한다.

표 III-5. 2020년 대외개방도 상승이 가져온 동북3성, GDP 증가량 단위: 억 위안, %

	2020년 GDP 예측치	2013년 대비 2020년 상승한 개방도	2020년 대외개방도 상승이 가져온 GDP 증가량
랴오닝	42,620	14.35	917
지린	19,902	33.68	1,005
헤이룽장	21,618	28.2	914
합	84,140	-	2,836

출처: <표 III-3>; <표 III-5>에 근거함.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 끼칠 편익에 반해 상술한 방법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대규모 무력충돌이 중국의 GDP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역시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을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한 무역액 2,742억 달

러(2013년)와 중·일 무역액의 50%인 1,563억 달러(2013년)가 없어진다고 가정하였다. 현재 한·중, 중·일 무역액은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42,330억 달러)의 10.11%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3년 중국의 대외개방도는 46.65%인데, 이 중 대외무역의존도가 45.39%를 차지하기에 대외무역의존도는 중국 대외개방도의 97.3%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무력충돌로 인한 GDP 손실액은 8,394억 6,000만 위안(위안화)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10.11 \times 568845 \times 0.973 \times 0.0015 = 8,394 \text{억 } 6,000 \text{만 위안(위안화)}$$

이러한 결과는 천차이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기타 손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역시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상술한 한반도에서 발생할 각종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편익과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한반도가 현상유지 상황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에 ‘은형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로 인한 은형손실까지 더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대로 북한이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거나 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달성된다면 중국은 그러한 손실을 피하고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1) 연구방법

OECD와 IMF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일국의 주민과 실체(직접투자자 또는 모회사)가 다른 일국의 기업(국외 직접투자 기업, 지사기업 또는 외국 지사기구) 장기적 관계를 맺고 장기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통제를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식은 자기자본, 즉 대외 직접투자자가 본국 외에 보유한 지분이다. 두 번째 방식은 이윤의 재투자, 즉 대외 직접투자자가 재투자에 사용하는 국외 지사기구의 주식(직접 참여한 주식비례)의 미분배 주식배당 또는 미송금수익이다. 세 번째 방식은 기업 내 대부금(또는 기업 내 채무), 즉 대외 직접투자자(즉 모회사)와 지사기 구간의 단기 또는 중장기 대부금이다.

본 장에서는 왕웨이(王威)의 ‘중국경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분석’에서의 추산 결과를 참고하여 2020년 북한의 전면개방을 가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동북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GDP에 미칠 영향 계량분석한다. 왕웨이는 위 연구에서 계량경제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1% 증가하면 GDP 0.6% 증가, 무역수출 0.51% 증가, 국내소비가 0.5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의 전면개방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의 외상의 직접투자를 대폭 증가하고 그 결과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외국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랴오닝성의 동일지표와 상당하다고 가설한다. 동시에 데이터 추산의 편리를 위하여 북한의 전면개방 시점을 2020년으로 가정한다.

표 III-6. 2009~13년 동북3성 외국인직접투자, GDP, 수출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발전현황

연도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GDP(억 위안)			수(억 달러)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억 위안)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2009	154	11	24	15,212	7,278	8,587	334	31	101	5,812	2,957	3,401
2010	208	13	27	18,457	8,667	10,368	431	45	163	6,810	3,505	4,001
2011	243	15	33	22,226	10,568	12,582	510	50	176	8,004	4,120	4,705
2012	268	16	39	24,868	11,939	13,691	580	60	144	9,257	4,773	5,453
2013	290	18	46	27,077	12,981	14,382	645	68	162	10,524	5,426	6,206
2009 ~13년 평균증가율	19.6	10.8	12	15.6	13	11	10.3	12.8	17.7	16.7	17	17

출처: 중국국가통계국사이트, 랴오닝성통계정보사이트, 지린성통계정보사이트, 헤이룽장 통계공보 (2004~13). 이외에 중국국가통계국 사이트의 상관 연도의 위안화 환율을 적용함.

2) 동북3성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GDP, 수출무역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추산

가. 추정방법

우선 GDP 추정에 있어 동북3성의 GDP 증가폭을 2013년 기준으로 하고 그 증가폭을 해마다 0.5% 하강한다고 전제하였다. 다음 2014~20년 동북3성의 외국인직접투자, 수출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증가속도를 각자가 2009~13년의 평균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2020년 관련 지표의 추정

이상의 가정과 추정방법에 의해 2020년 동북3성 GDP, 수출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예측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추정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지린성, 헤이룽장성 2020년 관련지표 예측치

성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GDP (억 위안)	수출액 (억 달러)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억 위안)
랴오닝	1,014	42,620	1,279	31,024
지린	37	19,902	159	16,283
헤이룽장	103	21,618	508	18,625

3) 외국인직접투자가 1%씩 증가할 때 동북3성 GDP, 수출 무역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에 대한 영향

가. 2013년 연말 기준 추정 시

표 III-8. FDI가 1% 증가할 때 2013 동북3성 경제지표에 미친 영향

성	GDP(억 달러)	수출무역액(억 달러)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억 위안)
랴오닝	162	3.29	56.83
지린	78	0.35	29.3
헤이룽장	86	0.83	33.51
합계	326	4.47	119.64

〈표 III-8〉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동북3성 각 성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그 해에 동북3성의 GDP 326억 위안, 수출무역액 4억 4,700만 달러, 사회 소비품소매총액 119.64억 위안이 증가할 수 있다.

나. 2020년 예측 수준 기준

표 III-9. 지린성, 헤이룽장성 2020년 관련 지표 예측치

성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GDP (억 위안)	수출액 (억 달러)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억 위안)
랴오닝	1,014	42,620	1,279	31,024
지린	37	19,902	159	16,283
헤이룽장	103	21,618	508	18,625

표4에 따르면 2020년 동북3성 각 성의 외상직접투자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그 해에 동북3성 GDP 505억 위안, 수출무역액 9억 9,200만 달러, 사회소비품 소매액 356억 400만 위안에 이를 수 있다.

4.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mode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그 이해당사자를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가장 근접해 있고 남북한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으로까지 확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남북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CGE 모형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추정한다. CGE 모형은 부분균형 모형과는 달리 국가간, 산업간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2)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 변화

본 연구는 아시아문제연구소(2014)가 제시한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그 파급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아시아문제연구소(2014)는 남북 교역의 확대를 GDP 대비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는 유효하지만 무역전환효과를 포착하지 못하여 주변

표 III-10. 아시아문제연구소 통일편의 추정 연구보고서

-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와 솔로(Solow) 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통일의 순편익을 추정함
-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경우로 시나리오를 구분함
- 중력 모형으로 전 세계의 평균적인 교역 패턴을 추정한 뒤 이를 북한의 개혁 개방 시나리오에 대입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남북한 무역량 변화를 추정

출처: 성한경(2014).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남북 경제통합을 남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경제통합을 다음의 4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한다.

표 III-11.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주요 내용
시나리오 I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 + 방위비 절감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 + 남북교역의 확대
시나리오 IV	시나리오 I + 방위비 절감 +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 경제통합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다. 경제통합의 핵심 내용을 방위비 절감과 남북교역의 확대로 설정하여 시나리오 II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방위비 절감으로 가정하고, 시나리오 III은 시나리오 I과 남북교역의 확대를 가정한다. 시나리오 IV에서는 모든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가. 북한의 개혁·개방(시나리오 I)

북한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한다.

① 북한의 투자율 증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산업과 관광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북한 경제의 투자율이 5%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한다(32%에서 37%로 상승). 이는 순전히 남한의 투자 증가분만을 고려한 것이고, 북한으로의 해외 자본의 투자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율과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기술진보 속도 향상

개방 후 10년간 온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10년 후부터는 그 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CGE 모형이 완전 동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총 기간에 걸쳐 연평균 1.57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③ 인적자본 축적 속도 향상

기존 북한의 현 체제 유지 시나리오 A에서 가정한 연 1%보다 빠르게 매년 1.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방위비 절감(시나리오 II)

방위비 절감 시나리오도 아시아문제연구소(2014)를 따른다.

① 국방인력의 점진적 감축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쳐 국방인력을 일정한 비율로 감축하여 통일 시점인 2025년부터는 국방인력의 비중이 0.5%(OECD 국가의 평균

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국방인력 감축은 남한 전체 노동력 대비 국방인력 비중인 2.46%를 약 0.9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북한도 전체 인구 대비 현재의 4.73%에 해당하는 국방병력을 남한과 동일하게 10년에 걸쳐 0.5%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북한 전체 노동력 대비 국방인력 비중인 8.55%에서 약 0.9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남북한 모두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노동력은 비숙련노동으로 가정한다.

② 국방비 감축에 따른 투자율의 증가

남한의 국방비 수준을 기준 연도 GDP 대비 2.52%에서 1.52%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렇게 감축된 국방비는 국가경제의 생산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한 투자율을 10년에 걸쳐 1%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북한의 국방비는 기준 연도 GDP 대비 15%에서 5%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북한 투자율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10%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 남북한 교역의 확대(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II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남북한 교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시아문제연구소(2014)는 남북교역의 확대에 의해 GDP 대비 무역규모가 증가할 때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남북교역으로 인한 변화를 생산성 향상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무역규모가 1%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01%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이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당 국가인 남북한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남북교역의 확대에 인한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포착하지 못하여 주변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남북 경제통합을 남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파악한다.

3)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CGE 모형

남북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전 분석(ex-ante analysis)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CGE 모형을 이용한다.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지출 등 대내 부문과 수출, 수입 등 대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경제주체의 행위와 산업 간의 연관관계 속에서 모형 내의 충격에 대한 최적의 해를 도출한다. 북한경제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v.8.2의 Rest of East Asia를 북한 경제를 나타내는 대용국가로 활용한다.

나. 통계와 국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분류

GTAP DB를 활용한 CGE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상의 북한을 선정해야 한다. GTAP v.8.0의 경우 Rest of East Asia에 몽골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 경제를 몽골과 분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대외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데이터와 더불어 무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통일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GTAP v.8.0을 선택한다. 두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GTAP DB 자체에서 반영된

관세율이 실제 교역장벽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더욱이 북한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님을 감안한다면 다른 국가의 관세율에 비해 저평가 됐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무역장벽은 단순한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산업분류는 분석의 편의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및 서비스 산업 5가지로 분류한다. 생산요소는 토지 및 천연자원, 자본, 숙련 및 비숙련 노동 4가지로 분류한다.

4) 분석 결과

CGE 모형을 활용하여 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2>에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개혁개방 및 남북 경제통합으로 인한 투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주요 변화를 연간 변화율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 또한 연간 변화율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문제연구소(2014)의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를 2015~50년으로 가정한다.

먼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정한 시나리오 I을 보면 북한의 실질 GDP가 3.5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주변 국가와의 무역이 창출된다.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주변 국가와의 무역이 증가하는 무역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시나리오 II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남북 경제통합으로 남한과 북한의 국방인력과 국방비 절감에 따른 노동력 증가와 투자 증가를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실질 GDP는 연평균 4.6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한국의 실질 GDP도 0.16% 증가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북한의 개혁개방

표 III-1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시나리오 I	실질 GDP	후생	수출	수입
북한	3.55	4.05	1.10	1.58
한국	0.00	0.00	0.00	0.00
중국	0.00	0.00	0.00	0.00
시나리오 II				
북한	4.62	5.27	2.05	4.72
한국	0.16	0.18	0.07	0.21
중국	0.00	0.00	0.00	-0.01
시나리오 III				
북한	4.90	6.89	2.92	4.31
한국	0.34	0.45	0.59	0.68
중국	0.00	0.00	-0.03	-0.02
시나리오 IV				
북한	5.98	8.12	3.04	4.81
한국	0.49	0.64	0.63	0.61
중국	0.00	-0.00	-0.03	-0.03

과 마찬가지로 국방인력과 방위비 절감에 따른 노동력과 투자의 증가는 해당 국가 내부의 변화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남북 경제통합이 주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북한이 기존의 중국 또는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남북간의 무역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가 발생할 경우이다.

시나리오 III은 남북 경제통합으로 남북간의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남북교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전환효과의 크기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IV는 북한의 개혁개방, 방위비 절감 및 남북교역의 확대가 같이 진행된다고 가정한 경우인데, 북한의 실질 GDP가 연평균 5.98%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북교역의 확대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중국의 수출입 감소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의 시행 이전에 예측 가능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남북 경제통합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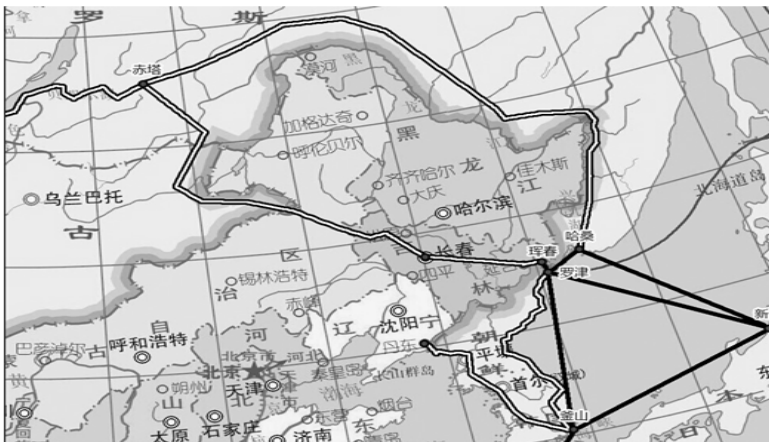
남북 경제통합이 주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인데, 북한이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전환효과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방위비 절감과 같은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북한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여러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에 비해 경제규모, 소득수준 및 양국간의 거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북 교역의 확대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중국에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 수준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현상에 그친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

2014년 11월29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첫 결실인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배가 나진항을 떠나 한국의 포항항에 도착하였다.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진행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동북아지역 협력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중국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지역에는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블록화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2>는 동북아지역 경제블록화 구상도이다. 만약 나진을 한 개 거점으로 훈춘-나진-하산-부산-니카다 환동해 경제블록화가 실현되고, 하산과 뚤윈강(连云港)을 통한 동북아와 유럽의 연결망이 구축된다면 동북아지역은 기본적인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전략이 빛을 보게 되면 중국의 동북지역은 개방도를 확보하고 발전공간을 확장해나가면서 지역경쟁력을 훨씬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동북지역이 명실공히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III-2. 동북아지역 경제블록화 구상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블록화가 더없이 중요한 발전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블록화가 형성된다면 두만강유역은 중국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에서 한 개 극(極)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두만강유역은 중국의 창지투계획에서 하나의 전략적 축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로일대(一路一帶) 전략과 맞물려 크게 부각될 것이다.

중국은 비록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그와 동시에 심각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발전의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불균형이 발달지역과 접경지역 간에 커다란 경제적 격차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제를 서부문제(西部問題)라고 부른다.

이른바 서부문제란 중국의 동남부, 동부, 동북부를 제외한 미발달 지역의 개발 문제라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중국공산당 15차 5중전원회의에서는 서부대개발 전략이 발표되었다. 서부대개발의 지역범위는 충칭(重慶),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云南), 티베트(西藏), 산시(陝西), 간수(甘肅), 칭하이(青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네이멍구(內蒙古), 광시(廣西) 등 12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함하는데 면적은 중국전체면적의 71.4%에 달하며 GDP는 전국 평균 수준의 3분의 2, 동부지역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서부문제에 동북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서부문제와 동북문제란 성격적으로 동일한 문제이며 서로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III-3>은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분포도이다. 이 분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른바 서부지역은 중국의 광활한 접경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낮은 대외개방도이다. 즉, 비록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문제들이 서로 다르나 모두 인접국가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통한 발전에 요구되는 대외개방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네이멍구, 신장,

티베트, 윈난 등 광활한 지역에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모두 미발달지역이거나 지리적으로 열악한 자연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들로서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큰 시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북한의 미개방상태와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도가 부족한 탓에 충분히 대외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동부지역의 발전모델이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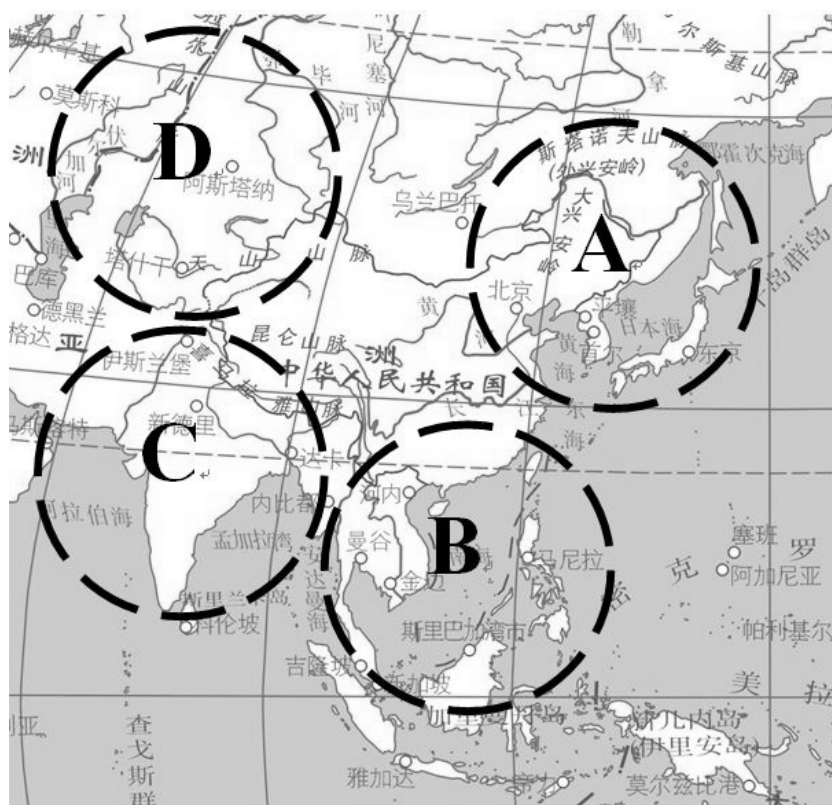
그림 III-3.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 분포도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서부문제와 동북문제가 결국 그 시스템의 발전에 필요한 발전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문제들이다. 현재의 경제발전은 모두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로 자국의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발전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발전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폐쇄상태에 처하게 되며 그에 따라 경제발전의 동력을 상실하

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모순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III-4>는 미래 중국이 확보해야 할 발전공간의 분포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경제발전은 주로 B와 A의 교차점인 동부지역 발전공간을 이용해 달성되었다. A와 B의 대부분, 그리고 D, C 지역에서는 이러한 발전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른바 서부문제나 동북문제는 결국 발전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낮은 개방도로 생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 III-4. 중국 주변 발전공간 분포도



주: A, B, C, D는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표시.

물론 중국이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 III-4>에서 제시한 A, B, C, D 지역의 발전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들 중 A와 D가 미래 중국의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발전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의 발전구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고, 제반 경제시스템의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발전공간의 확보는 지역경쟁력의 확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지역경쟁력이란 일정한 국제적인 지역 우세를 기반으로 각국간의 조직화 정도가 보다 높은 협력메커니즘(協力機制)을 형성하여 기타 지역과의 국제적조직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세계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지역성격의 협력체 구성으로 상호간 우세를 보완하고 상품과 자원의 유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지역경제 통합이 협력규모를 확장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⁴⁾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은 참여국들이 지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지역협력체의 공동대응으로 다른 협력체 혹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비록 다른 나라와의 지역협력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경제협력체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협력체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비교해보면 아태지역에는 ‘아시안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지역 및 양자 자유무역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3국(중국, 한국, 일본)은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다시 말하면 동북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협력체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FTA를

4) 庄芮, 『亞太區域經濟合作下的中國FTA戰略』, 國家行政學院學報, 2012, 3

국제협력의 가장 초급적인 형태로 간주하는데 동북아 국가들간의 FTA는 이제 협상 단계에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다시피 동북아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협력체를 구축한다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지역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굴기대전략에 있어 핵심 지역이다.⁵⁾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지역적인 협력체를 구축하고 지역경쟁력을 갖추며 발전공간을 개척하여 국내 경제시스템의 불균형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실현하려 한다.

현재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 평균 개방도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교류는 폭발적인 증대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동북3성은 다렌향과 나진향을 양 날개로 균형잡힌 발전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거기에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적인 협력이 대폭 확대되면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의 욕을 고취할 수 있기에 동북아지역은 전방위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동북3성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인해 충분한 대외개방도를 획득하게 되면서 전국의 평균 개방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5) 孫興杰:『中國需構建東北亞戰略框架』經濟觀察報, 2012, 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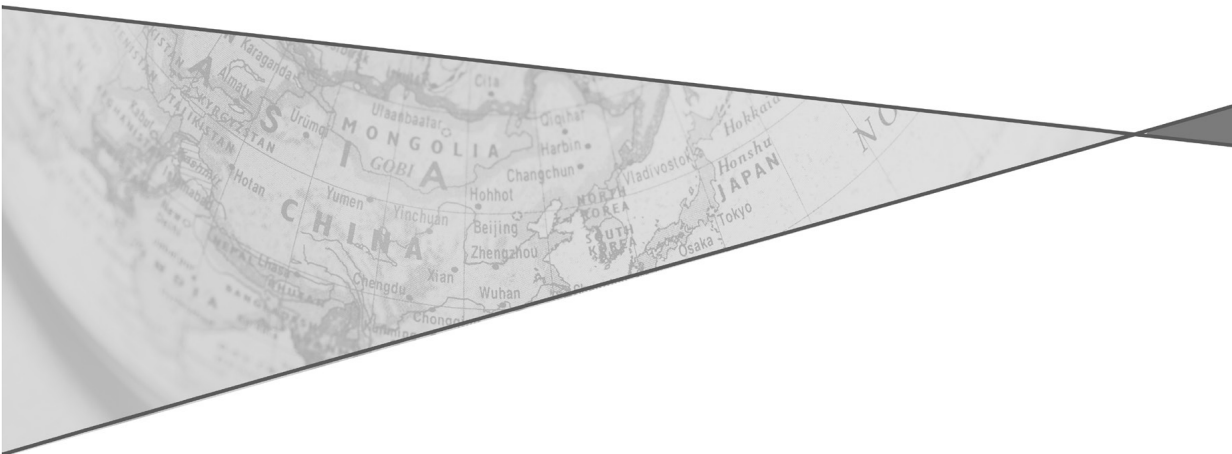
그림 III-5.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IV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1.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와 중국의 안보이익
2. 한반도 냉전 구도와 중국의 안보이익



1.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와 중국의 안보이익

근대사에 들어서면서 한반도는 열강들의 무력 합병, 식민지 쟁탈이라는 각축 속에서 지정학적 의의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시기는 지정학이란 새로운 학문이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전통적인 지정학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열강에 둘러싸인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열강들간의 이익의 교차점이자 각축장이 되어왔다. 강대국의 전략이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개입하게 되면 그 지역이나 국가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19세기 말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략이 개입되어 갈등과 충돌, 심지어 전쟁까지 발발하며 그 지정학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다. 한반도는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운명’에 처한 것이었다.

한반도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러시아의 남하전략, 한반도를 거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북진전략, 한반도에서 전통적 지위를 고수하려던 중국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대국들간의 전략적 충돌을 야기하였다. 갑오중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바로 그 충돌의 결과였고, 충돌의 장은 곧 중국의 동북으로 연결되었다. 1894년의 갑오중일전쟁은 중국의 동북을 싸움터로 전략시켰으며, 전쟁 이후 동북지역은 곧 일본의 전리품이 되어버렸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청은 요동반도, 대만, 평후제도 등 부속도서의 주권을 영원히 일본에 할양하였으며 배상금으로 2억 냥을 일본에 지불하였다. 그 후 3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는 찾았으나 그 대가로 다시 은 3천만 냥을 일본에 배상해야 했고, 청은 대만과 평후제도 등 부속도서를 일본에 빼앗겼다. 일본에 배상한 은(銀)은 총 2억 3천만 냥이나 되었다. 이는 청나라 정부 연 수입의 3배이자 일본 전체 GDP의 3배가 되는 것이었다.²⁸⁾ 청일전쟁은 청이 더욱 빠르게 멸망하는 직접

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문제로 야기된 러일전쟁 역시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발발하였다. 이는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전초전이기도 하였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전란에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폭격 속에 집을 잃은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유리결식에 나섰다. 한반도를 교두보로 일본은 중국 동북에 진입하였고, 동북을 관문으로 중국 대륙 전체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9.18 사변을 일으킨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중국의 930개 도시를 점령하였으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중국은 사상자 수가 3,500만을 넘었고 4,200만 명의 난민들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녔으며, 피해액은 6천억 달러에 이르렀다.²⁹

일본의 패망 후 한반도는 또다시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는 장으로 전락하였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마소 대리전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을 치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은 또다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전사자 11만 4천 명, 부상자 25만 2천 명, 실종자 2만 5천 6백 명(그중 포로 2만 1천 명), 부상으로 사망한 자 3만 4,600명으로 손실된 병력만 무려 42만 6천 2백 명에 이른다.³⁰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경제건설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쟁 전 중국정부는 1951년 군비지출을 1950년의 예산총지출인 43%에서 30%로 줄여 70%를 경제건설에 돌리고자 하였다.³¹ 그러나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1951년 국가예산 중 군비지출비율을 45.64%로 상향조정하였다.³² 중국이 한국전쟁 기간에 소모한 각종 전쟁물자는 560만 톤이며 전쟁비용으로 지출한 인민폐는 62억 원에 달하였다.³³ 거기에 소련으로부터 받은 차관 3억달러를 전부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데 투입하였다.³⁴ 1952년 9월 소련을 방문한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소련이 향후 5년 내에 40억 루블의 차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군사와 국방에 쓰고 8억 루블만을 공업설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³⁵ 중국은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3천만 명의 아사자와 비정상 사망자가 발생한 '3년 자연재해'기간 동안 한국전쟁 기간에 소련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설상가상으로 더욱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중국은 3년 자

연재해 기간 동안 곡물 생산량이 해마다 15%씩 감소하면서 대기근을 겪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23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였다.³⁶⁾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기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북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총 원조액은 6억 1350만 달러인데 그중 무상원조액이 4억 5600만 달러이고 유상원조액이 약 1억 5,750만 달러에 이르렀다.³⁷⁾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방직염색공장, 시멘트공장, 베어링공장, 진공관공장 등 29개 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20세기 1970년대에는 정부간 새로 맺은 ‘중조경제기술합작협정’에 근거하여 화력발전공장, 평양 지하철 등 16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 및 건설하였다.⁶⁾ 1980년대에만 해도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여 태평만발전소, 중국이 원유를 제공하는 신의주정유공장, 희천5.1연료공장, 평양차륜공장, 계량기공장, 해주제지공장, 신의주섬유공장, 함흥만년필공장, 라디오부품공장과 평양시 전기망을 건설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식량을 무상원조하는 동시에 우대가격으로 식량과 원유를 수출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 중국의 대북한 무상원조액은 3억 7,500만 달러에 달했다.⁷⁾ 2009년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무상경제원조액만 해도 2,000만 달러에 달하였다.⁸⁾ 1996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북한에 무상 지원한 식량은 238만 톤에 달하여 중국 대북 식량원조의 52.5%를 차지한다.⁹⁾

지난 냉전기간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경제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은 전방위적인 대북 원조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1960년대 초반 중국의 수출상품인 석고와 유황은 당시 북한의 5년 내 수요량이 매우 많은 상품 중 하나였는데, 원가대로 계산하면 중국의 지원은 톤당 75~80%의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하였

6) 李鐘林, 張東明, 滿海峰, 『中朝經貿技術合作』, 香港亞洲出版社, 2014, p. 65.

7) 위와 같음.

8) 위와 같은 책, p. 46-47.

9) 위와 같은 책, p. 50.

다. 게다가 중국에서 이 두 상품의 생산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적인 면이나 경영관리 면 또는 생산형편을 볼 때 이 두 상품은 수출이 어려운 상품이었다. 그래도 중국은 북한의 공업생산에 필수적인 중요 원료로서 수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켰다.³⁹⁾

세계적인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냉전 시기의 ‘북방삼각’이 와해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이 점차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미·일과의 수교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으나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을 위시한 ‘남방삼각’은 여전히 북한과 대립 상태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대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도를 고수하였고,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냉전구도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북·미 두 나라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불거진 것이 바로 북핵 문제이다. 북한은 핵으로 미국을 협박하여 관계개선을 이루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자 하였다. 미국은 북핵을 시기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북핵 문제를 자기의 전략에 충분히 활용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펼치고 일본을 그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일본 역시 북핵 문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북한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과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의 주변 환경을 악화시켜 오면서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쳐 왔다.

중국은 18차 당대표대회에서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과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백년의 목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백년은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30년에 중국이 순조로운 발전을 이

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있다.

상술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은 거의 다 한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 역시 그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안보비용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총체적 국가목표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수십년간 한반도 정책의 기초를 평화와 안정에 둔 이유는 바로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늘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양자의 제로섬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강대국들간의 지정학적 전략에 남북 분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남북분단은 강대국들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북핵 문제는 분명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힘을 실어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를 긴장과 완화의 패턴으로 움직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오면서 미국의 중국견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최종 목표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이었고 현재도 큰 변화가 없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 대결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불안정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연쇄적으로 중국의 다른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주변 환경의 악화는 대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테러사건과 같은 문제는 분명히 대외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은 근대 이후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전통적

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협력과 상호의존의 지정학적 가치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이 영구적인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초석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이 한반도 분단뿐 아니라 근대 이후 중국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오던 지정학적인 역사의 종언이기도 하다.

2. 한반도 냉전 구도와 중국의 안보이익

상술하였듯이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은 거의 모두 한반도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 구도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안보 비용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아태지역으로 복귀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 견제전략을 전개하는 것은 실제 한반도 상황과 상당한 정도로 직결된 것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복귀라는 전략적인 구상은 있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여건들이 여의치 않았다. 특히 한국 국내에서의 반미정서라는 복병을 만난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복귀는 고사하고 오히려 동북아의 전략적 지렛대인 한국의 동요를 막아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은 미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거기에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적 호재를 맞게 되었다 할 수 있다.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성취를 거두게 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곧바로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힘을 입은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전략적인 복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전략의 중점 대상은 중국이다.

아태지역에 복귀하는 미국 전략의 파급효과는 일본과 남해지역에서 나타났

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나라들은 미국의 전략에 힘을 입고 중국과 영토 문제를 에워싼 경합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의 영토 문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서로의 물을 암묵적으로 지켜온 문제들인데 최근에 들어서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2010년 힐러리 국무장관이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의 몇 년 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의 악화가 미국에는 호재로 작용하였으며 그 파급 효과로 중국에 대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압력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정세의 악화가 ‘나비효과’의 근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 그 변계지역에서만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제반 안보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아태지역 복귀라는 전략의 틀에서 분석할 때 실제 미국의 전략구도에는 한반도 냉전구도를 이용하여 전략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즉 미국의 전략구도에서 한반도의 분열은 미국의 전략적인 착안점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전략과 아태지역 전략을 전개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통제 가능한 한반도의 긴장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 전략적인 지탱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사무에 개입할 명분도 크게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또는 정세완화란 그 전략구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한반도의 분열과 일정한 긴장구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안보에 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도 심히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일본이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전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 역시 한반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른바 ‘북한위협론’을 군사대국화의 빌미로 삼아왔다. 지금에 와서 일본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는 이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모두 한반도 문제를 지극히 중요한 배경으로 삼아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모두 북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이미 북한과 ‘대립의존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대립관계가 없다면 미국은 동북아지역 사무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북한도 미국과 같은 적대국이 없다면 현재의 폐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핵무기 개발의 중요한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전략체계를 살펴보면 북한과의 대립관계는 비정상국가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소위 ‘자체로 곤경에 빠지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북한위협론’인데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일본은 비정상국가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역내 정세의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마음의 병’의 치유를 시도할지 모른다. 바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보유대국이 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 미·일과 북한은 원한이 깊은 적대국이지만 전략구조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그들간에는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미국과 일본은 전략기점의 상실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전략의 영향을 받아 동북아지역은 점차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동시에 나선형 충돌의 다각경제 태세에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는 객관적으로 동북아지역 내 각국 충돌 또는 대치경향의 전략적 수요를 창출한다. 심각한 충돌이나 대치상태에 있는 한반도 남북관계는 긴장된 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시시각각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한반도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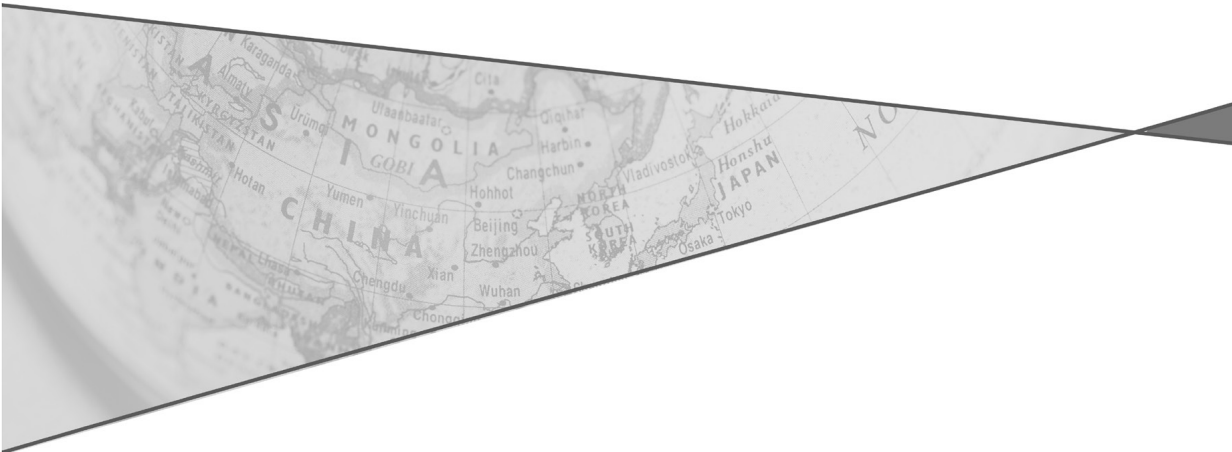
둘러싸고 주변 대국들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열이 종식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대국들이 한반도에 개입할 이유가 적어진다. 한반도의 화해 또는 통일이 지정학적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한반도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지정학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변국들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국의 경제이익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협력의 국제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 실행에 있어 양호한 국제환경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전략적인 착안점을 두고 이러한 국제환경을 이룩해 낸다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협력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가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에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도 초석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설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방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한반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 한반도가 중국에 새로운 안보 문제, 영토 문제 혹은 역사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의 선택에서 중국에 대한 한반도의 정책적인 기조가 극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인 협력이 필수적임을 예시하기도 한다.

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이 우려할 수 있는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의 우려를 하고 있다. 하나는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정책을 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 인식과 영토 인식에 기인한 두 나라 간의 분쟁가능성이다.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는 각국의 국민감정, 정서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고, 한국과 중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정서를 쉽게 자극하고 또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정과 그 후, 통일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중·미 간의 대립이라는 어려운 상황

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한국에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설사 중국이든 미국이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판독하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리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 등장하여 서로 협력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국들은 세계체계에서의 각자의 자리 사수보다는 서로간의 전략적인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대국들간의 경쟁에 한반도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는 강대국이 무소불위로 지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주화와 사회화가 확산되어 세계는 이미 대국들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판독하고 세계적인 대국들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동북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관계 여하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상반된 정치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한·중 관계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 시기처럼 얼어붙고, 또한 그 당시와 같이 한국의 대미 일변도 정책이 전개되면 동북아에는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중 관계가 원활하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축이 형성되므로 잔존해 있는 냉전구도가 와해되면서 한·중 두 나라는 동북아 내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입지가 매우 난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러한 위치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 혹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등거리 외교와 근접한 외교정책기조를 설정할 시, 동북아는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판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주한미군의 일정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주한 미군이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 위기관리라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중국은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 한·중 간의 미국의 사드배치 문제는

는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협력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의 화해와 협력 등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 최근 학계에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문제들을 의제로 토론하고 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재의 북한 핵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들에 대한 것이다. 반면 경제학계의 논의는 대북협력방안, 5.24조치 완화 가능성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의 논의는 사실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를 가해야 하거나 경제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나로 종합, 전략적인 틀의 기초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굴복을 받아낼 것인지 혹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지 두 가지 방안에서 선택해야 한다. 만일 현재까지의 대북제재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면 다른 효과적인 로드맵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유엔 결의안의 틀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국제적 협력을 병행하는 길이다. 즉, 유엔 2094호 결의안은 준수하되 결의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에 정책결정의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에 있어 한·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의 폐쇄상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만약 북한의 폐쇄상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가 평화통일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북아지역 전략을 시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당연히 한국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이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한·중 협력 착안점은 북한의 폐쇄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북한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포괄적 방안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현 상태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이는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의 실행을 위해 최적의 주변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을 형성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매우 크다. 다만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 보면 경제회복과 개혁개방은 두 가지 측면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국내의 정책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국제환경이다. 즉,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반드시 북한을 도와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개혁개방을 자본주의와 동일시하고, ‘개혁개방’이라는 단어조차 극도의 거부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정부 주도하의 능동적인 개혁개방이 전방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북한정부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단행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개혁개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변화라는 두 측면

에 의해 개혁개방의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즉,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와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80년대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발전하였던 시기였고, 양국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역사적으로 가장 빈번하였다. 김일성은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소평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중국식 농촌개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사건,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등 잇달아 발생한 중대한 국제사건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좌절시켰다.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권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초기의 특구건설모델을 조심스럽게 모방하여 1990년대초 나선지역과 신의주지역의 특별구역건설에 착수하였다. 비록 큰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이는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어느만큼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의지는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북한정부에서는 ‘6.28’조치를 내놓고 실시하였는데 이 조치는 인민의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기업과 협동농장의 이익분배를 시장효과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제도개혁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에 북한은 13개 개발구를 내오고 올해에는 6개를 증설하여 도합 19개의 개발구를 설치하였다. 거기에 나선, 금강산, 개성, 신의주, 황금평, 위화도 등 기존의 특구까지 더하면 북한 전역 곳곳에 특구와 개발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 올해 김정은은 ‘5.30 노작’을 내놓았고 북한의 중층 간부들에게까지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개혁개방을 선언할 만큼 파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5.30노작’의 방침에 따른 세칙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실행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이제까지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왔다면 이제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과 한국의 협력에 보다 많은 시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상향식변화’, 즉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화로 이루어져왔었다.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사회는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위기로 인해 북한은 공급체계가 붕괴되었고 식량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은행체계가 와해되고 기업가동률이 간신히 20%에 달하는 위기국면이 조성되었다. 이 전례없는 위기는 ‘장마당’에서 살길을 찾도록 사람들을 시장에 내몰았다. 그리하여 원래 규모가 작았던 ‘메뚜기시장’⁴¹⁾이 확대되었고 농산물시장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시장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배급을 줄 처지가 아닌 북한정부는 시장의 존재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연히 이른바 전 국민이 장사에 나서는 국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면은 2002년 북한정부가 내놓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이어졌다. ‘7.1’ 조치가 나온 후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조치를 통해 시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고, 국가가 시장에 대한 공직적 관리에 착수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조건인바, 이 시장은 20여 년을 경유하면서 북한 경제시스템의 큰 기둥이 되었다.

시장경제시스템의 형성은 그 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북한 경제시스템이 앞으로 시장경제의 물에 따라 운영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다. 2013년 북한정부가 내놓은 ‘6.28’ 조치 가운데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슷한 정책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급책임제 및 이익 분배와 시장의 경제적 수익성 연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협동농장의 분조경영제는 자영업을 선호하는 등 정책적인 개혁 조치들이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점은 사실 그중 많은 조치들이 정부의 묵인으로 이미 실제 존재해 온 경영방식들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조치는 이미 현실이 된 변화를 정책으

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북한사회에는 이미 시장경제와 연관된 생산량 세대별 도급제, 자영업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북한의 어업, 운수업 등의 업종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개인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분배 생산방식이 형성되었으며 요식업과 생필품 가공업 등 업종들의 자영업화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들은 한·중 두 나라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어떻게 돕고 추진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우선 방법론적인 시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떠한 폐쇄시스템의 변화든지 간에 모두 외부요인의 유입에 의해 발생한다. 폐쇄된 사회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변화 발생의 유일한 방법은 해당 시스템에 물질을 주입하여 그것을 외부시스템과 연결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은 시장경제의 형성으로 외부요인의 유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외부와 북한의 경제교류가 점차 확대되면 시장화 추세도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늘어난 시장에 대한 수요는 외부와의 경제교류를 끊임없이 추진하며 보다 더 유연한 정책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형성된다면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을 실시할 용의가 없다 할지라도 사회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7.1 조치’, ‘6.28 조치’, ‘5.30 조치’ 등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향식 개혁개방의 경로이다. 물론 만약 사회 전반에서 시장경제를 둘러싸고 하나의 운영체계가 형성되면 북한정부도 비교적 쉽게 정책 조절을 진행할 수 있고, 개혁개방이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는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으로 볼 때 경제특구 건설의 의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훨씬 능가한다. 중국은 일찍이 ‘선전(深圳) 효

과'로 기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개혁개방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런 경험에서 볼때 현시점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경제위기를 헤쳐오면서 북한은 경제성장 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와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만약 경제특구 건설이 성공을 이룬다면 북한은 중요한 경험을 얻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경제특구 건설을 국가의 중요과업으로 천명하였는데 이는 한·중 두 나라에도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한·중 두 나라는 우선 나선, 신의주, 개성 등의 특구부터 북한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는 곧 북한에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주변국의 경제,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북핵 문제는 이미 20여 년이란 시간을 끌어왔다. 그동안 주변국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핵은 사실상 날로 복잡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전변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김정은 집권 후 '경제건설과 핵무력의 병진'을 북한의 기본국책으로 확립하였다. 국제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이미 무기화의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고 북한은 이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몇 번만 더 하면 핵무기화를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동북아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였다. 이 난제는 두 가지 상반된 경로와 과제로부터 초래되었다. 상술하였듯이, 장기적인 전략적 시각으로는 북한의 변화에 착안하여 핵 문제를 포

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하여 핵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필연코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딜레마가 생길 것이다. 즉,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하려면 봉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북핵은 사실상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당연히 핵프로그램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특정국가들, 심지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이다. 북한의 적대의식은 이미 극도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에 따라 북핵 문제는 더더욱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 면으로는 북한의 핵폭탄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심리적으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해야 한다. 위협성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적대 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며,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군사압력을 받는 북한은 핵포기의 필요성보다는 핵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 결과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에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미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재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은 다른 바람직한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엔 결의안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광범위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핵폭탄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의 적대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관련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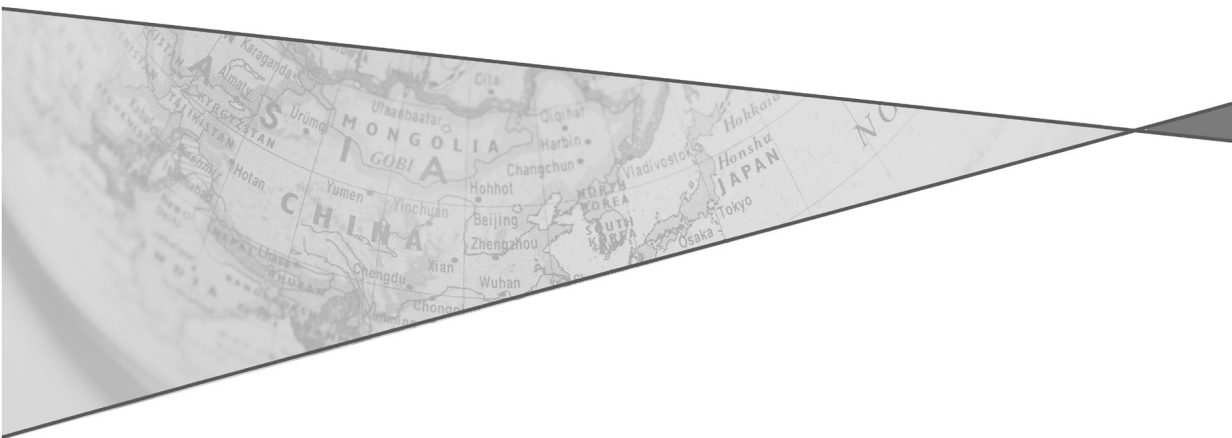
의 총체적 입장에서 몇 단계로 나누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에 핵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단계별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데, 국제사회는 응당 유엔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런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안정을 기하는 국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 단계에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에서 양보하도록 요구하며 북한이 체면 있게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과 경제교류를 진행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제재와 교류를 동시에 추진의 이유로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국제사회와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 비대칭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칭적 경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은 후속적인 수단이 없는 한계에도 도달했지만 북한은 자체 수요에 근거하여 아무때나 책략을 제정해 정세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긴장시킬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오로지 핵포기 정책만 북한에 강요하면 효과가 뚜렷하지 못할 뿐더러 역으로 정세가 단계적으로 엄중히 악화되는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교류의 형태로 우선 북한 내부의 정세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경로는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와 합류시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결연히 반대해야 하나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경로 선택에서는 유연성 있는 정책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1874호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북한과 경제적 유대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북한도 오로지 경제적 유대체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융합될 수 있고 핵포기가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적 협상메커니즘에서도 북한에 정책결정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국제사회의 총체적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 의제는 대다수가 북한의 핵 포기를 어떻게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포기에 따른 대가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여전히 핵포기라는 정책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VI

나오는 말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미칠 영향을 전략이익, 경제이익, 안보이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략이익 차원에서의 본 연구는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에 있어서 협력적인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가 그 이상적인 주변 환경의 핵심이라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망하는 한반도의 이상적인 상태는 곧 평화통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중국에 거대한 전략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이익의 차원에서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이 냉전시기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에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원인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하여 대외개방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은행손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눈에 보이는 경제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즉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달성할 시,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3성은 다롄항과 나진항을 양날개로 균형잡힌 발전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힘을 입어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적인 협력이 대폭 확대되면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의욕을 고취할 수 있기에 동북아지역이 전방위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보이익의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은 근대사 이후 중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를 협력과 상호의존의 지경학적 요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이 영구적인 안보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의 달성은 종식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뿐만 아니라 근대사 이후 중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를 받아오던 지정학의 역사에 ???로 ???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감소되는 동시에 한반도의 다른 한 중요한

가치인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요소가 사라지면 동북아지역에는 협력을 지향하는 지경학적 요소가 증대되고 대규모의 국제적인 협력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실행에 양호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의제를 연구, 분석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에 설정할 것이며, 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점으로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2049년까지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전략적인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고리로 국제협력의 지경학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대에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에서 대국들의 전략다툼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통일한국은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을 안겨 줄 것이다.

〈미주〉

- 1) 清华大学国情研究中心 胡鞍钢等：《2030中国迈向共同富裕》，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1年，p. 51
- 2)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人民代表大会文件汇编》，人民出版社，2012年，p. 57
- 3) 金强一：“论中国的东北亚区域战略”，延边大学学报，2004年 第二期
- 4) 杨莲：“论我国区域合作的协调机制构建”. 四川师范大学学报. 2013年 第2期
- 5) 杨莲：“论我国区域合作的协调机制构建”. 四川师范大学学报. 2013年 第2期
- 6) 唐国强：“亚太区域经济一体化的演变、路径及展望”. 国际问题研究. 2014年 第1期
- 7) 祝滨滨：“后危机时期东北亚区域经济合作制度化建设的几点思考”. 经济纵横. 2012年第8期
- 8) 参阅韩国国防大学校《安保关系用语集》关于同盟的定义. 2002年.
- 9) 常成、李鸿文、朱建华：《现代东北史》，黑龙江教育出版社，1986年，第396页.
- 10) 乔木编著：《振兴东北—中国经济“第四极”的战略与实践》第12页，中国工人出版社，2004年.
- 11) 위와 같은 책, p. 4.
- 12) 新望：〈‘新东北现象’与‘中部塌陷’〉，《中国改革》，2003年 9期.
- 13) 潘石：“对东北经济落伍原因诸说之评析”，东北亚论坛，2004年 第3期.
- 14) 2008년중국통계연감에 의해 정리, 金成男：《图们江地区开发与吉林省对外开放战略》，“东北亚合作与繁荣”国际学术会议论文集，延边大学东北亚研究院，2009年，p. 168
- 15) 丁士晟：《吉林省出海的思考》，庆祝吉林大学朝鲜研究所成立三十周年“东北亚各国经济发展与区域经济合作”国际研讨会论文集，吉林大学朝鲜韩国研究所，1994年 7月，p. 33

- 16) 흑룡강신문, 2014.8.8
- 17) 2014년7월7일,新华社电, 2014《财富》发布500强名单
- 18) 中国工业新闻网, <http://www.cinn.cn/qiy/qyzh/321229.shtml>
- 19) 中国网 http://www.china.com.cn/economic/txt/2009-11/13/content_18884353.htm
- 20) 金强一：“振兴东北老工业基地与对外开放度”，延边大学学报, 2005年第1期.
- 21) 陈才等著：《东北老工业基地新型工业化之路》第273页, 东北师范大学出版社, 2004年.
- 22) 王胜今：“东北老工业基地振兴与东北亚区域合作”，东北亚论坛，2004年第2期.
- 23) 张公子：〈中国东北三省与朝鲜半岛经济合作构想〉，《东北亚论坛》2000年第四期
- 24) 연합뉴스, 2000년9월18일
- 25) 胡国泰：“中国首季度GDP增长放缓”.环球时报，2013.4.16
- 26) 张蕴岭：“中国参与和推动东北亚区域经济合作的战略”.东北亚论坛, 2013年第1期
- 27) 孙兴杰：“中国需构建东北亚战略框架”.经济观察报.2012.5.21
- 28) 张深溪等《中国近代史》，九州出版社，2002年，p.122
- 29) 《日本侵华战争给中国造成了多大损失？》，成都日报，2005年7月6日
- 30) 徐焰：《第一次较量----抗美援朝战争的历史回顾与反思》，中国广播电视出版社，1998年，p.322
- 31) 《当代中国财政》（上），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8年，p.69
- 32) 《1949-1952年中华人民共和国经济档案资料选编》综合卷，中国城市经济出版社，1990年，p.891
- 33) 沈志华：《冷战在亚洲》，九州出版社，2013年，p.309
- 34) 金冲及主编：《周恩来传》下卷，中央文献出版社，1998年，p.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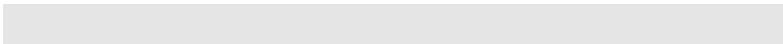
- 35) 《周恩来年谱》(1949-1976) 上卷, 中央文献出版社, 1997年, p.258
- 36) 沈觉人主编: 《当代中国的对外贸易》(上), 当代中国出版社, 1992年, p.30116-01008-18, pp48-53
- 37) 石林主编: 《当代中国的对外经济合作》,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9年, p.26
- 38) 徐文吉: 《朝鲜半岛时局与对策研究》, 山东大学出版社, 2005年, p.181
- 39) 1963年对朝鲜越南贸易谈判工作总结, 1963年1月30日, 中国外交部档案馆, 10
- 40) 孙兴杰: “中国需构建东北亚战略框架”. 经济观察报. 2012.5.21
- 41) 이 시기 북한정부는 시장에 대해 강한 타격을 주었다. 농산물 시장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특별히 엄격했던바, 많은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길거리 골목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관리 인원을 만나게 되면 메뚜기 마냥 신속히 피해야 해서 사람들은 이런 시장을 이른바 《메뚜기시장》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清华大学国情研究中心 胡鞍钢等. 2011. 『2030中国迈向共同富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文件汇编』. 2012. 人民出版社.
- 金强一. 2004. 『论中国的东北亚区域战略』, 延边大学学报. 第二期.
- 杨莲. 2013. 『论我国区域合作的协调机制构建』, 四川师范大学学报, 第2期.
- 杨莲. 2013. 『论我国区域合作的协调机制构建』, 四川师范大学学报, 第2期.
- 唐国强. 2014. 『亚太区域经济一体化的演变、路径及展望』, 国际问题研究, 第1期.
- 祝滨滨. 2012. 『后危机时期东北亚区域经济合作制度化建设的几点思考』, 经济纵横, 第8期.
- 常成. 李鸿文. 朱建华. 1986. 『现代东北史』, 黑龙江教育出版社.
- 乔木编著. 2004. 『振兴东北—中国经济“第四极”的战略与实践』, 第12页. 中国工人出版社.
- 新望. 2003. 『‘新东北现象’与‘中部塌陷’』, 《中国改革》. 9期.
- 潘石. 2004. 『对东北经济落伍原因诸说之评析』, 东北亚论坛. 第3期.
- 金成男. 2009. 『图们江地区开发与吉林省对外开放战略』, “东北亚合作与繁荣”国际学术会议论文集. 延边大学东北亚研究院. p.168.
- 丁士晟. 『吉林省出海的思考』, 庆祝吉林大学朝鲜研究所成立三十周年“东北亚各国经济发展与区域经济合作”国际研讨会论文集, 吉林大学朝鲜韩国研究所, 1994年 7月
- 金强一. 2005. 『振兴东北老工业基地与对外开放度』, 延边大学学报, 第1期.
- 陈才等著. 2004. 『东北老工业基地新型工业化之路』, 第273页, 东北师范大学出版社.
- 王胜今. 2004. 『东北老工业基地振兴与东北亚区域合作』, 东北亚论坛, 第2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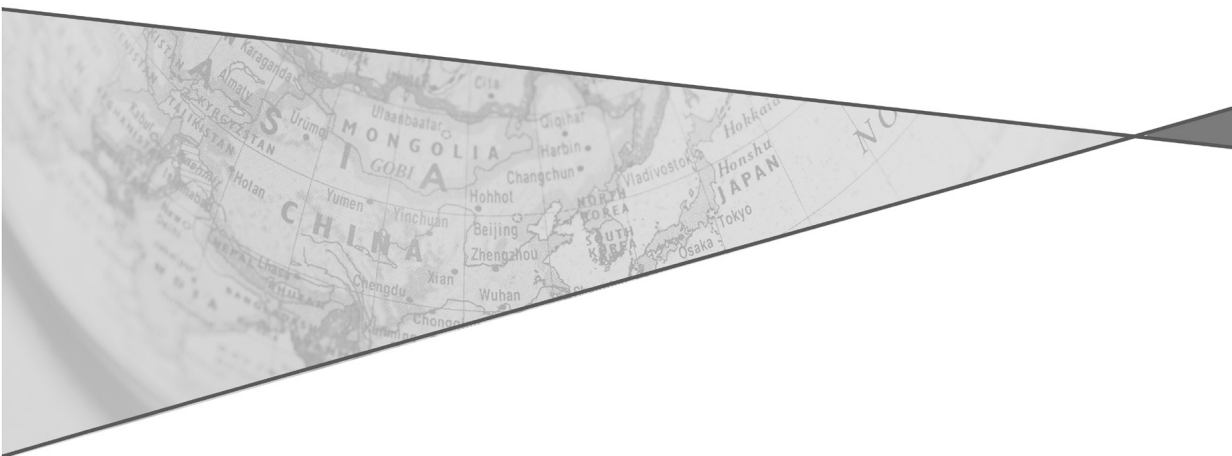
- 张公子. 2000. 『中国东北三省与朝鲜半岛经济合作构想』, 《东北亚论坛》第四期.
- 张蕴岭. 2013. 『中国参与和推动东北亚区域经济合作的战略』, 东北亚论坛, 第1期.
- 张深溪等. 2002. 『中国近代史』, 九州出版社.
1988. 『当代中国财政』(上),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0. 『1949-1952年中华人民共和国经济档案资料选编』综合卷, 中国城市经济社会出版社.
- 沈志华. 2013. 『冷战在亚洲』, 九州出版社.
- 金冲及主编. 1998. 『周恩来传』下卷, 中央文献出版社. 年
1997. 『周恩来年谱』(1949-1976) 上卷, 中央文献出版社.
- 沈觉人主编. 1992. 『当代中国的对外贸易』(上), 当代中国出版社.
- 石林主编. 1989. 『当代中国的对外经济合作』,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徐文吉. 2005. 『朝鲜半岛时局与对策研究』, 山东大学出版社.
- 李钟林·张东明·满海峰. 2014. 『中朝经贸、技术合作』, 香港亚洲出版社.
- 王胜今于潇主编. 2010. 『图们江地区跨国经济合作研究』, 吉林出版社.

〈저자약력〉



朝鲜半岛统一与 中国的国家利益

引言



改革开放三十余年来,中国取得了天翻地覆的发展.在发展过程中,中国树立了国家层面的发展战略,即到2049年国家实现基本现代化.若能在未来三十余年间达成这一战略目标,中国不仅需要进行全方位的改革开放,更需实现国家间大规模合作的扩张.正是从这样的认识出发,中国近来提出了“长吉图规划”、“一带一路计划”等重大的战略计划.从中可以看出,对中国东北地区重要性的认识被进一步提高.“长吉图规划”其实可以看作是中国东北地区发展战略的第一阶段.中国的东北地区作为一个拥有密集资本、技术、资源、人口的地区,具有适合国家间合作的地理优势,也能为中国之后的发展提供必要的开放度和发展空间.此外,开发东北地区为确保东北亚地区国际竞争力提供了巨大的动力,自然,这一认识也就成为了中国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基础.

但是,中国为了实现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目标应当首先解决堆积如山的地区问题,特别是朝鲜半岛的分裂与南北对立,以及朝鲜的核武器开发和封闭状态,已凸显为最重要的问题.这里能够提出的问题意识就是中国究竟以何种视角看待朝鲜半岛、又立足于怎样的战略基调解决朝鲜半岛问题.历史上,朝鲜半岛对中国的安全利益有着巨大的影响,直到现在,朝鲜半岛的政局仍然给中国带来极大影响.不过,在近代历史中,朝鲜半岛给中国造成的影响与现在朝鲜半岛给中国带来的影响在性质上却有着不同的一面.近代历史上,围绕朝鲜半岛发生的数次战争都给中国造成了严重的安全利益损失,其主要原因就是当时中国正处于弱势地位.诚然,今天的朝鲜半岛也给中国的安全出了一些难题,但更重要的是朝鲜半岛的分裂状态与对立成为了中国实施东北亚发展战略时致命的障碍.也就是说,对处于优势地位的中国而言,比起安全问题,更重要的是经济发展问题.如果用“隐形损失”这一概念来分析朝鲜半岛分裂状态给中国带来的损失的话,其规模可以说是天文数字.如果朝鲜半岛能够实现统一,中国不仅能够通过与朝鲜半岛进行紧密的经济合作实现东三省的经济振兴,更能在东北亚地区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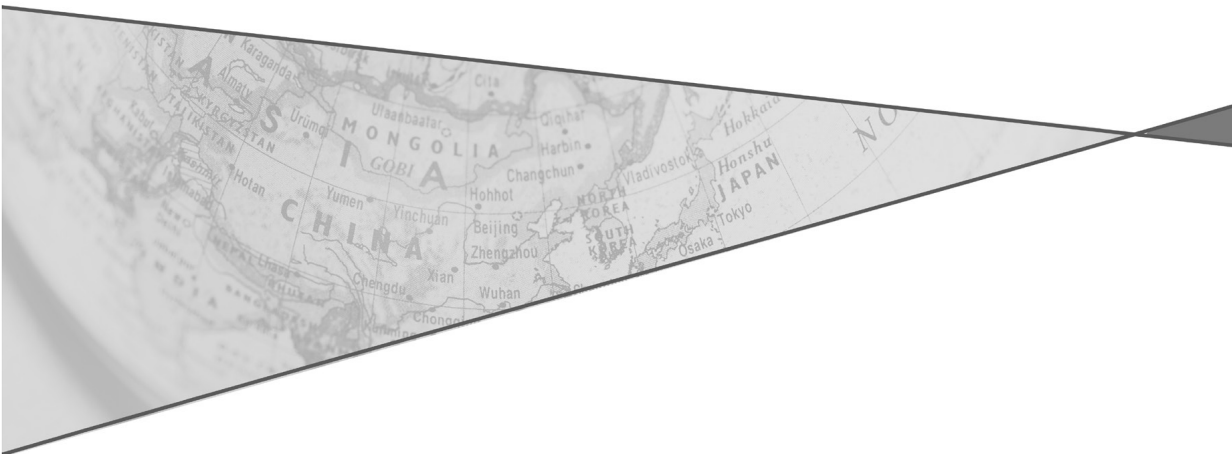
建广泛的多边合作体系,从而得享巨大的经济利益.诚然,上述分析只不过是假设,然而这却反过来证明了朝鲜半岛的分裂给中国带来的利益损失有多么巨大.

从战略视角来看,可以说朝鲜半岛的政局变化对中国正在实施的国家发展战略有着相当大的影响.因为朝鲜半岛保持现状或者武装冲突,又或者和平统一等可能发生的剧情,将给中国在实施国家战略时造成截然不同的周围环境,中国究竟将如何选择对半岛政策的基调是我们面临的重大课题.从方法论视角来看,决定中国对半岛政策基调的因素各种各样.但是左右中国政策决定的根本原因应该说是朝鲜半岛与中国的利益构图.理由不言而喻,在未来有关朝鲜半岛政局变化的诸多剧情中,中国将会选择能有助于实现给中国带来最大利益的政策基调.

本研究通过分析得出以下结论:对中国实施东北亚地区发展战略而言,朝鲜半岛最理想的情况是和平统一,中国因其战略需求,会选择支持朝鲜半岛统一的政策基调.本研究着重阐述了能够支撑如上结论的重要根据,也就是和平统一带来的中国战略利益、经济利益和安全利益.最终在结论中提出朝鲜半岛的和平统一对中国的国家利益带来积极的影响.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战略意义

1. 理论分析框架
2. 中国的东北亚地区发展战略与目标
3. 中国东北亚发展战略中的朝鲜半岛理想状态
4. 中国对朝鲜半岛统一政策的基调



1. 理论分析框架

中国究竟坚持怎样的对半岛政策基调，以及运用何种方法将其实施，这些问题很难在局限于单纯的朝鲜半岛问题框架下进行解释。这不仅是因为这样的视角缺乏能够客观判断的理论依据，更是因为（解释这一问题）需要历史认识、情感认识等共同作用。从现当下中韩学界正在引入的部分观点中可以感受到这一视角的局限。比如，一些中国学者强调朝鲜的地缘政治价值，认为朝鲜半岛是中美对决之地。另外，他们还认定统一的韩国会推行向美国一边倒的外交政策，所以他们主张中国的对半岛政策基调是既不希望统一也不希望混乱，并维持现状。韩国学界中也可以发现许多类似的观点。这种观点实际上是冲突型的冷战时期思考方式，其问题在于认识朝鲜半岛问题时无法摆脱思维局限。

为了克服上述认识的局限，更加客观的解读中国的对半岛政策基调，本研究引入了“理想模型研究方法”与“世界行为范式”。该研究方法论的必要性在于为分析中国对半岛政策基调提供了必要的理论依据，重新认识当代大国的基本行为模式，客观分析中国在战略层面上究竟趋向何种类型的朝鲜半岛理想状态。也就是说，中国对半岛政策基调和框架必须要以对行为当事人——中国所追求的东北亚战略目标的分析为依据，进行合理解读。

“理想模型研究方法”是自然科学中经常使用的方法，具有能够轻松解释物理现象本质的优点。¹⁰⁾本研究扩大了自然科学意义下的理想模型研究方法的范围，将其运用到国家战略研究中。即，通过对构建国家战略的框架与战略时的理想状态的构想、以及战略实施所必须的理想环境状态进行假设，提供构建战略体系方法论的前提。一般来说，所谓战略是由于所有行为主体对现状怀有不满而形成的追求某种理想状态的行为，从这一点来看，战略的本质可以说是行为主体能够得

10) 張憲魁等：《物理學方法論》，p173.浙江教育出版社.2007

到满足的理想模型的构建.这样的战略体系构建大体要经过三个阶段.第一,存在想要解决的问题.如果没有要解决的问题,就没有战略.相反,意识到问题,为了解决该问题设定目标、选择路线的话,就正是战略;第二,明确解决问题后想要达成何种目标.想要达成的目标即为战略目标;第三,设定能够接近这一目标的理想环境.由于国家战略是在其他国家战略目标的外部环境中实施的,就要求有必须的理想环境.因此,这三个阶段可以说是理想模型构建过程的本质.

将理想模型研究方法引入中国对半岛政策研究,能够合理导出东北亚战略目标等朝鲜半岛的理想状态,从而客观掌握中国对半岛政策的基调.本研究将从以下几个方面来阐释中国东北亚战略目标与战略带来的对半岛政策基调.

第一,对中国在东北亚地区面临的必须解决的问题的认识.对这些问题的认识要以对中国的战略体系基调的分析为前提来进行.中国一早就构建了到2049年实现国家现代化的国家层面战略体系.为了实现这一目标,中国形成了和平、发展与合作的战略基调.这一战略基调可以说是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前提,也是根本基调.即,需要把中国整体的发展战略基调变为合理的理论依据,并以此来分析中国在东北亚地区面临的问题.

第二,中国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目标.分析中国在东北亚地区持有何种战略目标对了解中国是否设定朝鲜半岛政策基调起着理论性坐标作用.举例来说,如果假设中国把追求合作设为东北亚地区的战略目标,中国自然会从战略层面上趋向朝鲜半岛的和平统一,这一趋向就是构建战略体系的理想状态.反过来,如果中国在东北亚地区谋求的是霸权,想要在与美国的较量中利用朝鲜半岛的话,就会坚持现阶段的政策——战略性地维持朝鲜半岛一定的紧张状态.

第三,对中国实行东北亚地区发展战略时必须的理想环境的分析.朝鲜半岛对中国实行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重要性已经不言而喻.朝鲜半岛处于东北亚地区的重要地理位置,因此可以得出结论,朝鲜半岛的态势对中国实行东北亚地区发展战略有相当重要的影响.有必要分析朝鲜半岛的各种未来图像对中国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影响,论证实行战略最为适合的朝鲜半岛态势.

第四,中国在解决朝鲜半岛问题上会选择何种路线.战略路线的设定可以说是一个谋求取决于战略目标性质周边环境变化的过程.这一路线的选择会根据战略基调设定的差异,在开展时会有很大的不同.也就是说,这就意味着中国选择支持统一的政策基调还是选择维持半岛现状的政策基调,将使中国对半岛政策很有可能向完全不同的方向开展.

通过以上所述,本研究希望对朝鲜半岛统一能给中国带来何种战略意义的这一点,进行理论层面的分析.世界行为范式研究方法指的是以对大国行为方式历史变化过程的考察为基础,在新时代的拐点上提出大国的行为方式,分析大国战略设定特性的方法论观点.

从历史上来看,所谓强国的大国的行为样式从古代的“吞并扩张”型的行为方式转换至近代的“殖民掠夺”型行为方式,以及现代正在形成“合作控制”型的行为方式.从特征来看,古代与近代的大国行为方式中深藏着弱肉强食的逻辑,因而形成了强者任意支配弱者的人类历史.然而,进入现代以来,民族独立、主权意识、国际行为规范以及民主、平等、正义、公正、和平、双赢等全新的现代意识的形成与已有意识的变化导致大国的行为模式也发生了相当大的变化.这种变化实际上意味着大国以弱肉强食的逻辑任意支配世界、压迫弱小国家的历史的终结.正是在这样历史性的时间点进入的当下世界要求大国履行对人类的责任,并率先构建和平的秩序.中国当然也属其中.

本研究之所以引入世界行为范式研究法,是要通过全新的时代观点排除对中国朝鲜半岛政策的诸多误解,进而客观分析中国未来战略走向的性质.中国在改革开放的三十多年里,以飞跃式的发展取得了耀眼的成就,一跃成为世界第二大经济大国.对于这一发展,各国理解不一.尤其是周围国家源于中国可能会恢复过去的中华秩序、争取霸权的想法,以掺杂着忧虑的视角看待中国的发展.这一观点在韩国学界更为突出.举例来说,中国“第四省论”就是.这些观点没有正确理解世界趋势,仅仅依靠“大国必然追求霸权”的古代、近代的固有观念分析大国的行为和未来战略基调.世界行为范式研究法默认的前提是,世界已经进入到民主化与

社会化的阶段，大国任意支配世界的时代已经过去，不管哪个大国，只要不追求合作就只能自取灭亡。此外，它还包含大国设定未来战略基调是正确设定了自己在世界化洪流中的位置。

现在，中国对半岛政策的相关研究中充斥着许多毫无根据的信息，因此难以推出正确客观的结论。举例来说，尽管中国政府屡次表明了支持朝鲜半岛和平统一的立场，很多人还是主张这不过是外交辞令，中国真正想要的是维持朝鲜半岛的现状。可事实是，就连主张如此观点的学者也没有对中国在维持朝鲜半岛现状的情况下获得何种可见利益提出常识性的问题，并回避了朝鲜半岛和平统一对中国影响的客观研究。为了正确提出中国未来战略走向的战略基调和中国对半岛政策基调可能的选项，还需要用世界行为方式变化的观点加以调整。

2. 中国的东北亚地区发展战略与目标

要探讨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应以中国当前的基础国家战略目标为前提。即，东北亚地区发展战略是庞大的国家发展战略的一个重要组成部分，意味着两个战略基调一致。那么中国设定了怎样的国家战略目标呢？

邓小平曾于1987年做出“有可能争取七十年的和平环境”的判断，指的是从20世纪末期的二十年到21世纪的前五十年，只有世界保持持久和平的环境，中国才能实现“三步走”的战略目标。所谓“三步走”，第一步目标，到1990年实现国民生产总值比1980年翻一番，解决人民的温饱问题；第二步到20世纪末国民生产总值再翻一番，人民生活达到小康水平；第三步是到21世纪中叶再翻两番，人均国民生产总值达到中等发达国家水平，人民过上比较富裕的生活，全社会基本实现现代化。¹¹⁾ 2012年召开的中共十八大上，提出了到2020年实现国内生产

11) 清華大學國情研究中心 胡鞍鋼等：《2030中國邁向共同富裕》，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1年，p.51

总值比2010年翻一番，到建党一百周年（2021年）时全面建成小康社会，到建国一百周年（2049年）时建成富强民主文明和谐的社会主义现代化国家的目标。¹²⁾可见，中国的最终目标是建设现代化国家，因此必然要求实现全方位开放与对外合作。

可以说，中国的东北亚地区发展战略正是这一宏伟国家战略的重要组成部分。原因在于该地区集聚了大量资本、技术、资源、人口等经济要素，必将崛起为世界经济中心，同时也能为中国东北、华北地区的经济发展注入强大动力。从逻辑上说，中国要实现自身国家战略，就应大幅拓展在该地区的国际合作。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就应在此国家战略框架内加以推进。

中国的东北亚战略体系有如下目标：

首先，设定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基点和理念。近来中国学术界纷纷热议中国到底应成为什么样的大国。很多学者认为，应将胡锦涛主席提出的“和谐世界”作为中国今后应追求的核心理念，通过平等、民主、正义、公正、共赢、和平等时代精神构筑这一理念体系。该主张源于这样一种认知，即大国任意支配世界的时代已经一去不复返，无论怎样的大国，逆时代潮流而动都将自取灭亡。况且当前背景下，中国要实现自身发展，也必须努力维护一个和平的世界。对此夏立平指出，“世界多极化趋势与国际关系民主化潮流，正把中国的国家意识和全人类的利益更紧密地联在一起。国际社会的和谐共存表明，中国与世界各国的合作发展、共同繁荣符合中国的根本利益。”¹³⁾

当前中国学术界正逐步形成一种共识，即中国要成为国际社会中的负责任大国，就应把构筑一个有助实现和平繁荣的世界体系作为目标，只有与世界各国共同面对和处理人口、资源、能源、环境、粮食安全等危机，才能维护中国乃至全人类的发展利益。和谐世界概念正成为中国的总体战略中一个至关重要的理念，东北亚战略及其该地区的战略也是以该理念为基础构筑体系。根据国际行为方式的

12)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文件汇编》，人民出版社，2012年，p.57

13) 夏立平：《当代国际体系与大国战略关系》，时事出版社，2008，p.474-475。

变化，优先实现自身在国际体系中的定位，这一理念可以此为前提加以理解。

构筑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理念体系，是设定这一战略基点的根据。一般说来，一国战略的性质可分为冲突、对抗和合作，选择何种定性将依照其战略目标。如果战略目标是要与别国开展战略竞争，则基点就被设为冲突或对立。反之，如果战略目标是经济发展，则战略基点就不能不设定为合作。例如，日本曾利用朝鲜半岛的分裂局面和东北亚地区存在的民族主义情绪力求实现自身军事大国化的战略目标，战略基点就不是合作，而是把重点放在对抗或一定范围内的冲突上。中国以建设现代化国家为战略目标，就必然以合作作为基点。

其次，东北亚地区发展战略的目标设定。

如前所述，中国的东北亚战略构想，必然要以同时解决其在该地区面临的三个问题作为目标。中国要想一揽子解决诸如振兴东北三省经济、确保发展空间、构建地区竞争力、维护安全利益等各类问题，应设立怎样的战略目标呢？答案很简单，主要就是通过同东北亚各国开展合作，构建高层次的国际合作机制，实现上述问题的一体性解决。构筑东北亚地区的高层次国际合作，符合中国的地区战略目标。

一般意义上，高层次合作体系指具有保障性的国际组织，即本地区各国通过签署条约，设立合作组织，确保域内国家间形成共同市场，实现商品自由流通和资源有效分配。地区经济合作一般包括两方面内容：一是客观上应通过一系列非歧视性的经济安排，消除贸易壁垒，促进资源要素与商品的自由流动；二是域内各国政府应通过自发协商把一部分行政权力让渡给超国家（地区）议事机构。相关议事机构可通过各国（地区）立约方式设立，也可通过地区合作的上一级倡议机构来设立。¹⁴⁾ 这一系统本质上是超越国家主权的协商机构。在当前全球地区性合作组织中，实现高层次合作的代表就是欧盟。欧盟在组织上已实现一元化水平，这一点体现在以下六个方面：一是成立了欧盟委员会、欧盟理事会和欧

14)

洲议会等负责地区政策的专门机构，并下设专责欧洲整体均衡发展的职能机构和咨询机构，统筹规划欧盟经济社会发展。二是确立了政府支援、公共支出、政府补贴、税收激励等欧盟政策的实现方式。三是确定受援地区范围并给予援助。四是制定地区发展援助标准，由欧盟来调节各成员国的地区发展政策。五是从欧盟发展基金、欧盟社会基金、欧盟农业保障与指导基金中分出一部分用作援助基金，补助落后地区。六是发行欧盟单一货币欧元，建立欧洲经济与货币同盟，积极推动欧洲的统一。

对此，中国学者祝滨滨¹⁵⁾的看法值得关注。他在“对后危机时代的东北亚地区经济合作制度建设的几点思考”一文中，提出以“时代性原则、利益最大化原则、既竞争又合作理念、价值观原则”为基础，对东北亚地区经济合作的制度化提出七个具体设想：一是建立地区安全共同体，即成立地区安全机构，解决生态安全、能源安全、国防安全等问题；二是建立东北亚能源共同体，即由俄罗斯担当能源供给方角色，中、日、蒙、朝、韩作为使用者；三是建立货币共同体，主要目标是建立地区货币同盟，扩大区域贸易，减少经济风险，进而通过货币一体化，在合适时机建立亚洲统一货币体系；四是建立自由贸易共同体，这是东北亚地区国际合作的基础，也是域内各国追求的最大目标；五是组建关税同盟，这是促进域内经济交流的重要条件，也是强化域内各国地区竞争力的重要手段；六是构筑单一标准体系，通过产品标准的单一化和生产、管理的一元化，提升域内国家合作水平，实现区域经济与世界的联通；七是组建东北亚经济联合体，即通过域内国家合作实现国家层面合作的机制化与制度化。

把构筑高层次国际合作机制作为中国的东北亚战略体系目标，意味着战略体系的核心得以确立。这一核心内容和上述中国的全球战略理念与基础合二为一，形成战略体系的母体系统。从方法论上看，构建战略体系的母体系统的关键，在于中国要为域内活动提出方向，同时通过构筑战略体系的母体系统，确保相应

15) 祝滨滨：“后危机时期东北亚区域经济合作制度化建设的几点思考”，《经济纵横》，2012年第8期。

活动方案能够具体可行。

正如很多对东北亚的地区优势所做的研究显示,要找到一个条件较东北亚更优的地方也着实不易。一旦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目标,能在与周边各国的合作中得以实现,则该地区依托自身资本、技术、人口、市场优势,将不仅为世界经济发展提供强大动力,而且也会推动东北亚成为新的世界经济中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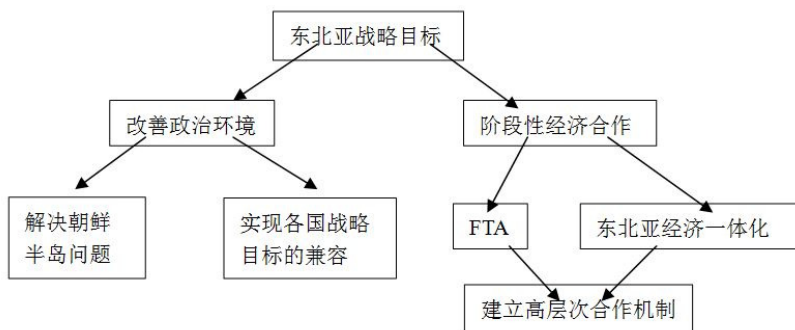
第三,构筑东北亚地区的发展战略。

中国确立自身的东北亚地区发展战略,相当于为东北亚地区提出了整体方向。在分析这一战略体系前,需要提出一个方法论的问题。正如所有的战略一样,既然是预测未来,就不能完全排除自身具有的模糊性,事实上任何战略也不能以绝对视角来认识。尽管中国设定了自己的东北亚战略目标,但其一方面仍具有相当的模糊性,另一方面也仅仅是以理想状态下的预测假设为根据。更明确地说,该战略目标最重要的部分在于确定整体方向,而非某种具体设定。当然这并非意味着战略的具体设定不重要,而是不应绝对化地去理解,应以此为前提探讨中国可能采取的东北亚发展战略。

从东北亚现状看,中国要想实现其战略目标,需要相当的时间与努力,具体实施中也只能通过阶段性方式加以推进。当前,要实现中国希望最终达到的高层次地区合作目标之前,必须首先推动改善政治环境,推动经济合作。

改善东北亚地区的政治环境,可谓推进中国东北亚发展战略的前提条件。上世纪90年代初以来,中国在推进以图们江流域开发为核心的东北亚国际合作机制方面付出了不少努力,但收效寥寥。主要症结就在于东北亚地区的政治环境,朝鲜半岛的分裂、朝鲜的未开发现状、域内各国战略目标的兼容性不足等,成为该地区各国政治结构中的关键症结。

朝鲜半岛的分裂与朝鲜的未开发状态给中国推进东北亚发展战略带来巨大影响。该问题已成为阻碍中国与东北亚地区联系的“断裂带”,使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正丧失实现可能。因此在营造推进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的政治环境方



面，解决朝鲜半岛问题可谓核心课题。

域内各国战略目标上缺乏兼容性，是东北亚地区政治环境的另一问题。域内各国都深刻认识到加强东北亚合作的重要性，但各国在推进战略目标、实现合作中所必需的兼容性却十分不足。例如日本并非完全不关心东北亚地区合作，但其军事大国化、“一般国家”化的政治目标，导致日本的战略方向并未指向合作。日方这一战略基调引发同中、韩两国战略目标的冲突，造成东北亚地区的不稳定局面。当然，朝鲜半岛问题也是造成域内国家战略目标的兼容性不一致的严重问题。如果本地区国家无法提升各自战略目标的兼容性，将成为中方实现地区发展战略的巨大障碍。中国要实现本国的东北亚发展战略，至少应构筑与周边各国实现共赢的利益结构，寻求与周边各国发展战略的契合点。中国以何种外交战略，可以把东北亚各国的战略指向由对立冲突转向合作，这一课题十分重要，关乎东北亚战略的成败。

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的另一重要课题是分阶段提升本地区合作水平。这一点堪称构建东北亚国际合作的基础。当前中韩日FTA进入协商阶段，一旦取得成果，可为东北亚的国际合作提供重要平台。FTA是构筑高层次国际合作机制的第一阶段，不仅能实现推动经济发展，也能为营造国际合作的政治环境发挥积极影响。

3. 中国东北亚发展战略中的朝鲜半岛理想状态

上文中提到了作为中国对朝鲜半岛政策基调的理论分析框架,即“理想模型研究方法”。仔细分析这个方法,我们可以得出这样的结论:中国对朝鲜半岛政策基调的选择取决于如何在实现其战略性目标的前提下达到朝鲜半岛的理想状态。如果中国将其战略目标设定为与东北亚大国之间的对决的话,那么朝鲜半岛的持续性且可被管控的紧张状态便为其所需。相反,如果中国的战略目标是与区域内的大国合作并创造出最大利益的话,那么朝鲜半岛的和平、安定以至于最后的统一状态则便是其所希望的。例如,假设中国为了争夺东北亚的霸权而与美国对决的话,那么中国自然会希望维持朝鲜半岛现状而非统一。将朝鲜半岛设定为与美国的霸权角逐场,中国将会充分利用朝鲜半岛的分裂状态而与美国进行战略游戏。反之,如果中国希望在东北亚地区构建巨大的经济合作体,通过与国际社会的合作而非争霸来实现自身发展的话,那么东北亚地区的任何纷争都是它所不愿见到的。因此,朝鲜半岛的和平统一将是其“理想状态”的实现目标。而中国对朝鲜半岛政策基调也将转变为对朝鲜半岛和平统一的全面支持。因此,中国对朝鲜半岛统一政策以及其基调的选择均取决于其在东北亚地区的战略目标。

从方法论上来看,我们可以认为中国的东北亚地区发展战略目标就是其对朝鲜半岛政策基调分析的理论指标。上文中论述了中国的东北亚地区发展战略目标、基调以及体系等问题,将其作为理论指南,在本段中将会对中国对于“朝鲜半岛的何种状态是其战略目标实现的理想状态”以及它将选择怎样的政策等问题展开讨论。

1) 未来朝鲜半岛局势变化的几种剧本

从目前的朝鲜半岛状态来正确地预测未来的局势变化几乎是不可能的。这是因

为朝鲜半岛问题本身便是多种问题重叠交错的复杂体，因此，在某种变化展开的过程中，将会有无数种可能性产生。为了分析的方便，本文将会选取四种最为可能的变化过程展开讨论。

第一种，南北分裂的现状维持。

在当前的状况下，假设没有突发事件发生的话，那么朝鲜半岛的分裂和对立的现状将极其可能在相当长时期内继续维持下去。当然，如同金大中和李明博总统时期那样，南北关系出现忽冷忽热的情况也很有可能发生，但是只要南北之间的根本问题一天不解决，那么南北之间的对立只能是在长时间内维持下去。此外，有朝鲜的核开发这样一个巨大的变数存在，想要打破南北间的对立是非常困难的。但是问题是，这样的状态继续维持下去的话，贯穿整个朝鲜半岛的爆发性威力将会不断地累积。

第二种，南北间的军事冲突。

当然，南北双方可能均不愿发生军事冲突，但是这种可能性也不能完全排除。无法预测的偶发性冲突发展为大规模冲突，又或者类似延坪岛炮击事件那样的有筹划的局部冲突发展为全面性冲突的可能性是存在的。万一朝鲜半岛真的发生全面武力冲突的话，那么结果是：朝鲜半岛将化为焦土。在武力冲突下，不论是哪一方胜利，都将会面临朝鲜半岛成为焦土这样一个现实。然而，现在的某一些韩国人却对此缺乏认识。他们认为，万一武力冲突发生的话，在短短几天内就能够实现统一。简单地试想一下，即使不发生濒临灭亡的战争，只要冲突持续几年的话，朝鲜半岛也将会回到近代的模样。

朝鲜半岛的分裂和对立具有在当今世界罕见的特点，那便是曾经作为冷战框架核心理念的对立。如同马克思的斗争哲学所反映的一样，这样的理念对立是建立在必须消灭对手才能胜利的基础上的，具有非常强烈的对立倾向。因此，未来的朝鲜半岛发生冲突的可能性是相当大的。

第三种，朝鲜的改革开放。

对于朝鲜改革开放的可能性问题一直是备受争议的话题。然而，很多人认为朝

鲜绝对不会选择改革开放的道路.这些人的理由大多是,朝鲜政权是独裁政权,他们为了维持自身的政权,当然不会进行改革开放.当然,也有人认为金正恩的体系无法否定金日成和金正日的路线,因此不会改革开放.自然,在当前的情况下,朝鲜如同中国那样选择全方位的改革开放是不可能的事.但是,只因此就完全否定朝鲜改革开放的可能性也的确缺乏说服力.原因在于,即使朝鲜政府不公开阐明改革开放的路线,朝鲜社会自身也有可能逐渐地向改革开放的道路转变,而届时朝鲜政府只能顺应这种社会变化.因此,改革开放或许只是时间问题.

经过了苦难的行军时代之后,朝鲜的确是发生了一些变化,而其中最值得注意的便是朝鲜的市场经济.在曾经固执地坚守封闭社会的朝鲜,市场经济已经成为了其经济体制的一个中枢环节,这是十分有意义的.联想到传统的社会主义国家改革开放的本质与核心便在于构筑市场经济体系这一点的话,便能够理解朝鲜的市场经济出现的意义.自然,朝鲜的市场经济具有其局限性,它至今没有形成规模,同时也缺乏其发展所必需的政府政策支持,这样的市场经济并不包括生产,仅仅是依赖流通.然而,它能够形成促使今后朝鲜社会变化的社会环境,从这一点上看,是具有重大意义的.此外,金正恩上台以后,朝鲜政府在一定范围内实施了改革措施,在特区建设方面也表现出了开放的姿态,这些都体现了朝鲜社会渐进性变化的可能性.这个问题在后文将继续讨论.这里所强调的是,由于朝鲜社会的变化以及周边国际环境的影响,朝鲜具有选择改革开放道路的可能性.因此,必须承认,朝鲜改革开放的可能性也是未来朝鲜半岛局势变化的一个重要剧本.

第四种,朝鲜半岛的和平统一.

实现朝鲜半岛的和平统一,需要相当长的时间.客观来说,和平统一也是具有多种方式的,但主要有两种.前一种是南北双方逐渐地构建统一基础,通过和平的方式实现统一;后一种则是在可掌控的情况下,发生剧变而实现统一.前者的实现需要相当长的时间,并且政治上、经济上的条件都必须充分具备,因此,坚持不懈的努力是必需的.后者则是通过在南北变化的过程中发生被称为“吸收统

一”的剧变而实现，因此，在时间上，任何时刻都是有可能的。然而，这种方式的统一必须是在可掌控的情况下实现。万一朝鲜半岛发生无法预测的剧变，亦或朝鲜半岛局势处于不可控状态，那么便成为了第二种剧本，即使实现了统一，也很难被看做是和平统一。

值得注意的是，朝鲜半岛和平统一的实现是以朝鲜发生相当程度的变化为前提的。也就是说，和平统一的剧本与剧本3有直接的关联。在朝鲜现有的条件下，不论哪种和平统一都是不具备现实性的。比如，有一些持有极端观点的人相信，朝鲜崩溃之后能够直接实现统一。然而，在目前的狂态下，一旦朝鲜崩溃，朝鲜半岛势必成为新的纷争区。因此，朝鲜半岛和平统一的前提是朝鲜的变化以及经济的复苏。

2) 中国东北亚地区发展战略中的朝鲜半岛理想状态

在中国的东北亚战略体系中朝鲜半岛当然占有重要的位置。因此，为了达到战略目标，中国自然希望朝鲜半岛保持某种状态，而这种状态可被称为“中国东北亚地区发展战略中的朝鲜半岛理想状态”。上文列举了未来朝鲜半岛局势变化的四种可能性，在这四种之中，中国最偏向于哪一种呢？中国在这个问题上的选择因为是与其战略目标的实现有着直接的关联，因此必须以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目标作为分析的理论指标才能够得到正确的答案。

在上文中已经提到，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目标在于构建一种高层次的国际合作体系。以这个目标为理论指标，就能够分析出中国所期盼的朝鲜半岛的理想状态。

在第一种剧本里，对于中国是如何看待朝鲜半岛的既不统一也不发生战争（即“不统不乱”）的现况维持是备受争论的焦点。有一部分人认为，中国正在利用朝鲜半岛的分裂，与南北进行等距离外交，从而实现自身的最大利益，并且为了在一定程度上维持朝鲜半岛的安定，在朝鲜半岛会继续实行“不统不乱”的

现状维持政策.然而,这些观点对于中国通过这种等距离外交能够获得怎样的直观性利益,朝鲜半岛的“不统不乱”的现状维持是否是真正意义上的安定等问题却无法给出准确的回答.那么中国通过朝鲜半岛的分裂到底能够获得怎样的利益呢?这也许便是在关于朝鲜半岛问题的国际舞台上,中国能够拥有其他国家所无法忽视的发言权.除此之外,几乎没有真正的直观性实际利益.相反,客观而言,由于朝鲜半岛的分裂,中国遭受了无法估量的隐形损失.对于朝鲜半岛统一后中国能够获得的利益将在后文继续论述,在这里所要强调的是,事实上,中国在目前的半岛分裂中所遭受的隐形损失与半岛和平统一后中国能够获得的利益是相当的.此外,有必要重新认识一下朝鲜半岛的安定问题.所谓的半岛现状维持,实际上是在不断地积累爆发性能量,本质上来说,并非真正的安定.因为这种能量累积得越多,半岛便会越加不安定,并且这种能量的爆发最终也只是一个时间问题而已.

从中国东北亚发展战略全局来看,朝鲜半岛的分裂为东北亚地区的合作造成了一个人造的断裂带,这对中国的东北部、北部地区的经济发展也造成了巨大影响.中国不仅会因此无法确保在东北亚的地区竞争力,同时还会加重其经济发展空间的不均衡性.单纯从经济发展上来看,朝鲜半岛的分裂或者现状维持也绝非是中国战略目标所预期的理想状态.因此我的观点是,由于中国无法在短时间内彻底改变朝鲜半岛的局势,所以不得已而选择直面现实.也就是说,维持朝鲜半岛现状,的确给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造成了阻碍,因此这绝非是中国所期望的朝鲜半岛的理想状态,然而这却是直面现实后中国所不得已做出的选择.

在第二种剧本里,朝鲜半岛由于突发事件而爆发武力冲突之时,这不仅是半岛,对于包括中国在内的其他周边国家都是最坏的一种情况.一旦朝鲜半岛发生战争,或者朝鲜发生崩溃等剧变后,中国会成为直接受害国.对于中国而言,朝鲜半岛无论发生怎样的剧变,都有可能对自身的经济发展、社会秩序以及国家安保等造成巨大灾难,因此唯恐避之不及.这种情况对于中国的东北亚战略是极其不利的,其危害无需多言.

第三种剧本是朝鲜打破封锁，进行改革开放，这对于中国而言，是极其欢迎的。一旦朝鲜进行改革开放，中国将会希望与朝鲜进行大规模的经济合作，从而能够进一步顺利推进东北亚发展战略。假设半岛统一之事遥遥无期，那么朝鲜的改革开放将是中国最期望的一种情况。然而，即使朝鲜通过改革开放一步步地构建统一的基础，南北之间的对立和矛盾在相当长时间内还是会继续发生，这对于中国推进东北亚发展战略而言，仍旧是留下了变数。

对于第四种剧本，也就是在半岛和平统一问题上的中国的政策一直是众说纷纭的。在韩国，有相当多的学者认为，中国将朝鲜视为其战略缓冲地带，因此绝对不会支持朝鲜半岛的和平统一。这种观点在中国学界也是存在的。有人认为，统一后的韩国如果推行“对美一边倒”外交政策的话，将会导致美国势力的北上，他们担心，届时的中国将会隔鸭绿江、图们江与美军相望。当然，这些人同时认为中国的对朝鲜半岛政策基调并非半岛的和平统一，而是“不统不乱”的现状维持。

在这里有两个问题必须解决。首先是怎样理解“缓冲地带”的问题。从本质上来说，一个国家设置缓冲地带的前提是该国正处于弱势，同时必须有一个假象的敌对国正与之进行战略对峙才能成立。在冷战时代，受到资本主义阵营的包围而处于弱势的中国，自然需要一个如同朝鲜一样的战略缓冲地带。然而，当今的中国在东北亚地区早已是强国，设置缓冲地带的必要已经大幅减少。从未听说过世界超级强国美国在任何地区设置过战略缓冲地带。所谓的缓冲地带是为了在与假象敌对国发生冲突之时，将自身的损失降到最低而设置的，如果说中国将朝鲜视为战略缓冲地带，那么逻辑上韩国理应是中国的假象敌对国。如果说中国把韩国视为假象的敌对国自然是谁也不会相信的。尤其是朝鲜的核开发与可能发生的军事挑衅等早已使朝鲜成为一个火药库，在未来有可能将东北亚推向灭亡之路。这些事实也证明了中国不会再把朝鲜视为其战略缓冲地带。把一个有可能对自身的安保造成巨大影响的“火药库”看做是战略缓冲地带，这种说法不管怎么看都是无法成立的。需要强调的是，如果说中国一定要有一个缓冲地带的话，

那么这个缓冲地带将是南北合作的朝鲜半岛整体。

第二个问题是，统一后的韩国有多大的可能性会推行“对美一边倒”的外交政策。逻辑上而言，统一后的韩国推行“对美一边倒”政策并不是完全没有可能，然而这种外交政策必须是由中国造成的。如果中国想要在东北亚争霸从而对周边国家展开攻势的话，那么周边国家唯一的选择只能是对美一边倒。问题不在于这种可能性的有无，而在于这种可能性的大小。对中国而言，无论是在政治上还是经济上，韩国都是非常重要的伙伴。自然，对于统一后的韩国而言，美国也同样是如此。事实上，对于统一后的韩国而言，不论是中国还是美国，都是需要密切合作的伙伴。如果统一后的韩国实行“对美一边倒”或者“对中一边倒”政策的话，朝鲜半岛将会再一次被卷入大国的竞争中，那么历史的悲剧也将有可能重演。这样的外交政策只能是自杀性行为。统一后的韩国对中国推行敌对外交政策的可能性极其微小，推行“对美一边倒”的理由也就不复存在。而中国也同样不太可能对统一后的韩国实行敌对外交。今后中国的经济发展对周边国家的依赖度会进一步提高，而一个经济体规模越大，由于其复杂的结构的脆弱性，对于周边环境的要求也会越高。因为一个无法预知的小事件就会对整个体系造成致命打击。因此，如果中国会对朝鲜半岛展开攻势外交，那么根本原因也必定在于朝鲜半岛。即统一后的韩国对中国展开敌对外交，同时实行对美一边倒政策的话，中国在不得已的情况下只能对半岛展开攻势。从这一点上看，除非特殊的状况，不论是中国还是韩国，双方均不大可能会对对方采取敌对政策。

不论是将朝鲜视为中国的战略缓冲地带还是担忧统一后的韩国会推行对美一边倒政策，这些看法均属于没有摆脱冷战的思维模式。如果能够摆脱这种冷战思维模式，从全新的视角来看待朝鲜半岛的话，就能够凸显出朝鲜半岛对于中国的重要价值——朝鲜半岛所具有的巨大的地缘经济价值。这样的地缘经济价值实现的前提是朝鲜半岛的和平统一。简单地设想一下，如果朝鲜半岛实现了和平统一，即使存在一些政治上的问题，朝鲜半岛和中国的经济合作将会大幅增加。届时，俄罗斯、日本甚至美国也都将参与到以中韩为核心的国际合作中来，

以实现自身的利益.到那时,中国的东北亚战略也将正式地进入实行阶段.也就是说,中国要实行东北亚发展战略,合作的朝鲜半岛、统一的朝鲜半岛将成为其理想的周边环境的核心.因此,我的结论是:中国最希望的朝鲜半岛的理想状态便是半岛的和平统一.

4. 中国对朝鲜半岛统一政策的基调

通过上文的分析,得出了从中国的战略视角出发,朝鲜半岛的和平统一是最理想状态的结论.那么今后中国到底会展开怎样的对朝鲜半岛政策呢?上文也提到,中国的政策决定会对其东北亚战略以及朝鲜半岛的局势发展造成重大影响.究竟是维持朝鲜半岛的不统不乱的现状还是大力支持半岛的和平统一,不同的选择将会对半岛造成完全不同的影响.如果中国选择继续维持半岛现状的话,那就相当于反对朝鲜半岛的和平统一.在这种情况下,中国需要半岛可控的紧张状态,同时也需要战略性地充分利用南北间的矛盾.相反,如果中国选择支持半岛和平统一的话,那么它将不遗余力地减少南北间的矛盾,推进朝鲜的改革开放以及经济复苏,构建与朝鲜半岛的经济纽带关系等.然而,即使说中国因为推行东北亚发展战略的必要而将朝鲜半岛的和平统一视为其周边环境的理想状态,中国的对朝鲜半岛统一政策的基调也并非一定就是支持和平统一的.这是因为在国际关系中,虽然经济因素十分重要,但是国际关系派生出的各种复杂问题也会对政策的制定造成影响.即,只从经济的逻辑上分析是无法判断出中国的东北亚战略基调的.在前面我们已经论证了从经济上考虑,中国的东北亚发展战略所需要的朝鲜半岛的理想状态.此外,中国如何在国际关系以及大国间互相展开战略竞争的环境中实现自身战略利益最大化也是必须考虑的问题.

对于中国而言,美国是必须考虑的竞争对手.尤其是美国实施亚太回归战略以来,中美正在开始进行战略竞争,而东北亚在此竞争中正处于重要位置.在中美

间的战略竞争中,目前仍处于弱势的中国是否能够成为胜者,与美国的关系又是否能够从竞争关系转变为合作关系呢?成功的关键便在于朝鲜半岛问题的解决.在亚太地区,美国给予中国的压力事实上与朝鲜半岛有着莫大的关联.

从中国的立场来看,围绕朝鲜半岛而形成的东北亚的政治结构正成为东北亚发展战略的巨大障碍.换句话说,中国为了实行东北亚发展战略,必须改变现有的具有对立倾向的政治结构,将其转变为旨在合作的政治结构.那么中国究竟应该把战略性着眼点放在哪里才能最有效地改变东北亚的政治结构呢?答案仍然是朝鲜半岛问题.这是因为朝鲜半岛问题一旦解决,东北亚地区的政治结构将会出现大幅调整,围绕朝鲜半岛的周边国家的战略竞争也会随之结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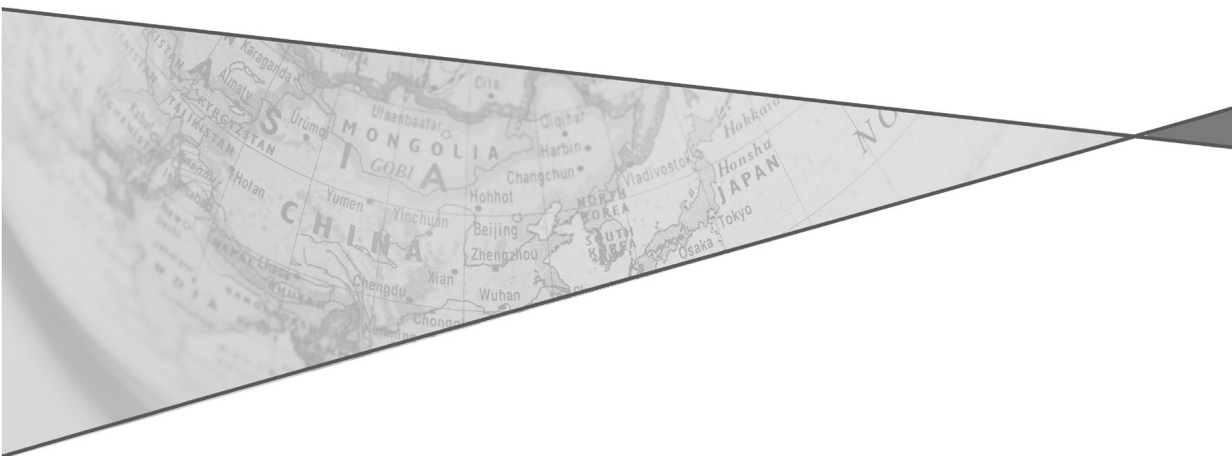
在本文中,我之所以将朝鲜半岛问题视为中国东北亚战略的着眼点,原因在于朝鲜半岛问题已然成为了东北亚地区所有问题解决的“症结”.只有解决了这个问题,才能为东北亚地区全方位合作的展开提供有利的国际环境,才能确保东北亚地区的和平.从中国的全球战略来看,朝鲜半岛问题是中国必须解决的最大难题.当今世界正处于从地区性的国际体系向全球性体系转变的重要历史时期,而朝鲜半岛已然成为了这种历史转换期的中心地带,因此,朝鲜半岛将会对未来国际体系中的中国的地位造成重大影响,在东北亚地区也会成为中国能够确立其大国地位的重要试验场.

上文的分析其实对于中国在朝鲜半岛问题和朝鲜半岛统一上应该采取怎样的政策基调已经给予了回答.即,出于战略性的考虑,中国对朝鲜半岛的政策基调必然是会支持和平统一.因此,中国自然不会愿意继续与美国、日本等国家进行战略竞争.如果美日以合作的姿态希望开展东北亚地区的合作的话,中国自然是十分欢迎的.到那时,东北亚也将会成为和平与合作的世界中心地带.

III

朝鲜半岛统一与 中国的经济利益

1. 对外开放度低和“东北现象”
2. 朝鲜半岛统一所带来的中国东北地区经济利益
3. 东北地区从朝鲜改革开放中可获得的经济利益
4. 朝鲜半岛南北经济统一对中国的影响效果分析
5. 欧亚战略和一对一战略的结合



1. 对外开放度低和“东北现象”

早在20世纪50年代“第一个五年计划”期间，东北地区就被确立为中国的国家级重点建设地区，在156项重点建设项目中，有56项分配给了东北地区。“在东北地区构筑全面的工业体系，将钢铁、化工、重型机械、汽车、造船、飞机、军工工业等重大产业项目分配到东北地区，为中国工业化打下了初步的基础”¹⁰⁾东北地区成为了中国经济的重要支柱和领头羊。从日本殖民时期的1943年到现在为止，东北地区的煤炭生产量占全国的49.5%，铁的生产量占87.5%，钢材生产量占93%，水泥生产量占66%，发电量占72%，铁路长度占全国铁路总长度的一半以上。

但是，在1978年改革开放实施以后，东北三省的工业总产量在全国所占的比重呈现了下降的态势，从16.5%下降到9.3%，减幅超过40%。东北三省的工业排名也在下降，辽宁省从全国第2名下降到第5名，黑龙江省从全国第7名下降到第14名，吉林省从全国第15名下降到第18名。¹¹⁾由此产生了“东北现象”、“新东北现象”等词语，东北也成为了落后地区的代名词。在一些地方将中国东部和中西部地区出现的东北现象称为“中部塌陷”。¹²⁾“东北现象”成为了阻碍中国向前发展的重要问题。

关于东北三省在改革开放过程中逐渐落后的原因有构造说、国有企业比重增大说、产能过剩现象说、体制说、东北人观念落后说等多种解释。按照系统整体性效果的方法论来看的话，东北问题不是单纯地由政策环境或者产业构造不合理造成的，而是因为没有形成构造调整—市场选择—对外开放这种相互作用并可以引起巨大整体性效果的机制。

东北三省的问题在于系统构造。即，产业构造调整需要在对外开放的状态下，以市场选择为背景来进行才会有效，产业构造得到调整后，市场选择会得到加

速，这样便会形成相互连接、相互作用的系统。但是改革开放以后，东北三省的经济系统与其他地区在对外开放度上存在巨大差距。按照系统论来进行分析的话，当经济体的开放度低下时，系统非线性作用下的配合效果和强大的整体性效

表1 2004-2013 年东北三省和全国的3项指标统计表

年度	进出口额(亿美元)				GDP(亿元)				外商直接投资(亿美元)			
	辽宁	吉林	黑龙江	全国	辽宁	吉林	黑龙江	全国	辽宁	吉林	黑龙江	全国
2004	344	68	68	11539	6672	3122	4750	159878	54	5	12	606
2005	410	65	96	14276	8047	3620	5513	184937	36	7	15	603
2006	484	79	128	17688	9304	4275	6211	216314	60	8	17	630
2007	595	103	173	21956	11164	5284	7104	265810	91	9	21	748
2008	724	133	231	25888	13668	6426	8314	314045	120	10	26	924
2009	629	117	162	22057	15212	7278	8587	340903	154	11	24	900
2010	807	168	255	29796	18457	8667	10368	401512	208	13	27	1057
2011	960	221	385	36595	22226	10568	12582	473104	243	15	33	1160
2012	1041	245	376	38694	24868	11939	13691	519470	268	16	39	1117
2013	1144	258	389	42330	27077	12981	14382	568845	290	18	46	1176

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网站、辽宁省统计信息网、吉林省统计信息网、黑龙江省统计公报(2004-2013).
另外，人民币汇率采用中国国家统计局网站中各相关年度的数据。

果无法形成。相反地,如果东北三省的经济系统在改革开放的过程中可以实施系统构造的合理分配,使多种要素相互连接而达到最佳状态的话,就不会产生所谓的东北问题了。下面我们依据东北三省的对外贸易依存度状况来分析一下这个问题。

如表1所示，2013年东北三省进出口总额占全国5%，GDP占全国10%，外商直接投资占全国31%。按照东北三省在全国GDP中所占的比重来考虑的话，我们可以看出东北三省的进出口总额相当低。虽然外商直接投资总额超出全国平均水平，但是也存在着严重的问题。这些外商投资有82%集中在辽宁省，吉林和黑龙江两省加起来才占18%。辽宁省有大连、营口这样的国际港口，因此外商投资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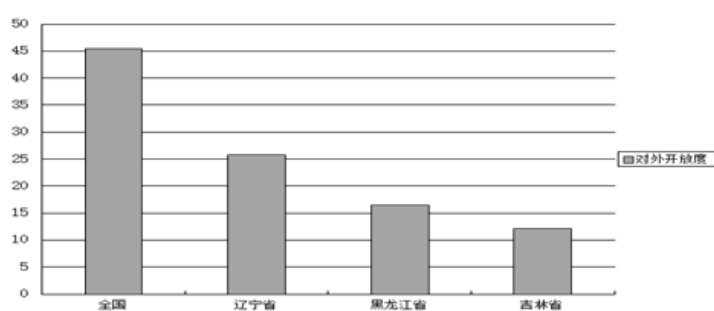
较活跃，于此相比，主要与俄罗斯和朝鲜接壤的吉林和黑龙江两省的对外贸易额和外商投资额是十分低的.这种状况影响了东北三省的对外开放度。

表2为2013年东北三省和全国的对外开放度对照表,从数值中我们可以看出东北三省对外贸易依存度远远低于全国平均水平.辽宁省比全国平均水平低14.35个

表2 2013年东北三省与全国的对外开放度(%) 对照表

省份	外贸依存度%	外资依存度%	对外开放度%	与全国的差距%
辽宁	25.77	6.53	32.3	14.35
吉林	12.12	0.85	12.97	33.68
黑龙江	16.50	1.95	18.45	28.2
全国	45.39	1.26	46.65	-

数据来源:根据表2数据测算.美元/人民币=6.1.



出处：以《中国统计年鉴2013》(中国国家统计局编，中国统计出版社)为依据进行研究得出的数据

百分点，吉林省低33.68个百分点，黑龙江省低28.2个百分点.从表1中我们可以看出这种情况已经持续了数十年，而且现在仍旧无法看到改变的趋势.其他的经济指标也可以印证这种特征.2011年中国的对外贸易总额是36，595亿美金，东北三省的贸易额为1，566亿美金，不到全国总额的4.28%.同年，中美、中日、中韩、中国和欧洲的贸易额分别为4,466亿美金、3,428亿美金、2,456亿美金、7，007亿美金.俄罗斯和朝鲜对东北三省的对外贸易直接产生影响，中国与俄罗斯和朝鲜的贸易总额分别为793亿美金、56亿美金，占全国对外贸易总额的

2.17%，0.15%。东北三省之中，辽宁省的情况较为乐观，然后是黑龙江省，最后是吉林省。这可以充分地表现出东北三省的对外开放度很低。

按照系统论来分析的话，开放度低时系统内的诸多要素间的有机作用减少，整体性效果下降，经济体系便很难保持强有力的发展趋势。东北三省发展落后的原因就在于此。开放度过低所引发的问题可以从下面3个方面来理解。

第一，开放度不足导致东北三省无法构建现代社会发展所必需的中心-变更这种相互作用的基本模型。所有先进的经济系统都将交界地区设定为具有重要意义的特殊地区，以此为基础来构建交界地区与中心的相互作用系统，这便是现代开放社会运营的基本模式。

改革开放初期，中国赋予沿海地区重要的意义，将其设定为特殊地区。代表事例就是‘先进效果’政策。东北三省目前处于马蹄形¹⁶⁾的半开放状态。这种状态是导致东北三省在改革开放过程中逐渐落后的根本原因，辽宁省的大连市处于‘马蹄’的入口，但是仅仅依靠大连是无法拉动整个东北三省的经济。辽宁和吉林两省有1,300km的地域是与朝鲜接壤的，但是在这个地区进行的中朝贸易额仅有60亿美金。依靠这种规模的贸易无法带动吉林和辽宁的经济。

其次，开放度低的话东北三省的地域价值会下降，地域价值下降的直接结果是引发边缘化现象。“东北老工业基地的大部分地区没有被设定为对外开放的中心地区，随着东南沿海城市经济规模的扩大，东北地区一半的生产要素都投向了沿海地区，东北地区便在中国经济高速成长的过程中逐渐被边缘化。”¹⁷⁾ 地域价值高的话就会形成与之相适应的吸引力，会将其他地区的生产要素维持在自己的生产体系内。相反，地域价值低的地区会被地域价值高的地区剥夺生产要素。2001年东北三省的外国资本投资额为31亿9,000万元，占全国总额的6.89%，东北三省的GDP是全国GDP的11.1%。经济规模与外商投资的比例严重失调。到2011年，这种状况得到很大的改善。2011年东北三省的外商投资金额为291亿

16) 陳才等著：《東北老工業基地新型工業化之路》第273頁。東北師範大學出版社。2004年。

17) 王胜今：“東北老工業基地振興與東北亞區域合作”，東北亞論壇，2004年第2期。

美金，占全国外商投资总额（1,160亿美金）的25.09%，这个数字展现了积极的变化，但其中却包含着重大的问题。2011年，辽宁省、黑龙江省、吉林省的外商投资额分别为243亿美金、33亿美金、15亿美金，也就是说外商在东北三省的投资主要集中在辽宁省，吉林和黑龙江两省的投资比重很小。外商投资集中在开放度相对较高的辽宁省，开放度很低的黑龙江和吉林两省出现了边缘化现象。

2. 朝鲜半岛统一所带来的中国东北地区经济利益

长久以来朝鲜半岛和东北三省是地理上的命运共同体，中国东北地区在地理学上处于相当有利的位置。东北三省有丰富的资源，人口较多，具有庞大的潜在市场，周边有日本、韩国、俄罗斯这样的典型的资本、技术、资源密集型国家。考虑到东北地区所具有的优越条件和外部环境，东北三省应该保持这种天然优势。中国的东北地区会是朝鲜半岛统一后获益最大的地区，因为统一之后将会形成东北亚的“三角物流网”。即，“以韩国的釜山为中心港口，以朝鲜的罗津作为辅助港口，将罗津地区开发为国际物流园区，可以形成连接欧亚大陆的环东海圈、环太平洋圈物流体系”。¹⁸⁾贯通连接朝鲜半岛东海岸线的釜山-罗津-图们国际铁路，连接西海岸线的首尔-开城-新义州-丹东的国际铁路后，开通连接朝鲜半岛东海岸和西海岸的高速公路，形成中国东北地区的交通运输线，东北可以名符其实地重新成为连接欧亚大陆与太平洋的桥头堡和物流中心。京义线恢复之后朝鲜半岛京内铁路全年收入预计将达到2.485亿美金，其中朝鲜的收益将达到1.5亿美金。利用京义线可以将东北地区和韩国、日本之间的集装箱货物运输到大连港10%，天津港5%²⁴⁾，这将为东北地区带来无法估量的巨大收益。

朝鲜半岛的统一会使中国东北地区开放度扩大，将带来一定的经济效应，这

18) 張公子：〈中國東北三省与朝鮮半島經濟合作构想〉，《東北亞論壇》2000年第四期

种经济效应又会带来地域价值的增加，随之而来的是更大的经济效应。这种利益是无法按照方法论来进行量化的。本文希望以朝鲜半岛的和平统一将为中国东北地区带来的开放度增大效果为依据来估计利益预想值。

现在东北三省的对外开发度如上所示远远低于中国的平均开放度水平。但如果朝鲜半岛实现和平统一的话，朝鲜半岛和中国东北地区的经济交流可能会出现爆发式的增长，东北三省将会形成以大连港和罗津港为双翼的均衡发展构图。中国和朝鲜半岛的经济合作将大幅增长，会引起日本和俄罗斯的合作欲望，东北亚地区将进入全方位的合作阶段。东北三省将会因为朝鲜半岛和平统一而获得充分的对外开放，继而逐渐接近全国平均开放水平。

为了分析东北三省对外开放度的增长会对经济带来的影响以及中国会随之得到的利益，我们首先设定一个方法论的基点。蘭宜生在他的“经济开放度对中国经济增长带来的影响的实情研究”中，以进出口总额，外商直接投资资本和GDP的关系作为对外开放度（Foreign Openness, FO）的分析指标。对外开放度是将对外贸易依存度和外资依存度总合起来，对外贸易依存度表示进出口总额和国内生产总值的比例，外资依存度表示外商直接投资和国内生产总值的比例，可用下列公式表示。

$$\text{对外开放度 (FO)} = \text{对外贸易依存度} + \text{外资依存度} \tag{1}$$

$$\text{其中 对外贸易依存度 (FTR)} = \text{FT} / \text{GDP} \times 100\% \tag{2}$$

$$\text{外资依存度 (FCR)} = \text{FDI} / \text{GDP} \times 100\% \tag{3}$$

$$\text{FO} = \text{FTR} + \text{FCR} = (\text{FT} / \text{GDP} + \text{FDI} / \text{GDP}) \times 100\% \tag{4}$$

按照蘭宜生的观点，对外开放度提升1%会引发GDP增加0.15%。当然，对此还存在其他的观点。陈才的观点是“只看影响的话，出口提升1%，GDP会上升1.85%，进口提升1%，GDP会上升0.36%，进出口总额提升1%，GDP会上升0.59%”。¹⁹⁾按照陈才的观点来分析东北三省在朝鲜半岛和平统一中获得的开放

表1 2004-2013 年东北三省和全国的3项指标统计表

年度	进出口额(亿美元)				GDP(亿元)				外商直接投资(亿美元)			
	辽宁	吉林	黑龙江	全国	辽宁	吉林	黑龙江	全国	辽宁	吉林	黑龙江	全国
2004	344	68	68	11539	6672	3122	4750	159878	54	5	12	606
2005	410	65	96	14276	8047	3620	5513	184937	36	7	15	603
2006	484	79	128	17688	9304	4275	6211	216314	60	8	17	630
2007	595	103	173	21956	11164	5284	7104	265810	91	9	21	748
2008	724	133	231	25888	13668	6426	8314	314045	120	10	26	924
2009	629	117	162	22057	15212	7278	8587	340903	154	11	24	900
2010	807	168	255	29796	18457	8667	10368	401512	208	13	27	1057
2011	960	221	385	36595	22226	10568	12582	473104	243	15	33	1160
2012	1041	245	376	38694	24868	11939	13691	519470	268	16	39	1117
2013	1144	258	389	42330	27077	12981	14382	568845	290	18	46	1176

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网站、辽宁省统计信息网、吉林省统计信息网、黑龙江省统计公报(2004-2013).
另外,人民币汇率采用中国国家统计局网站中各相关年度的数据.

度对经济产生的影响时,会得到很大的数值.因此本文采取蘭宜生的观点来分析朝鲜半岛和平统一将带给东北三省的GDP增加效果.

为了便于分析,我们首先假设一个前提.假设朝鲜半岛和平统一将会给中国东北三省的对外开放度带来巨大的增长,涨幅将接近中国平均对外开放度,并以现在的GDP为基点来预测2020年东北三省的GDP.这样的话,朝鲜半岛和平统一后东北三省会获得什么样的经济效果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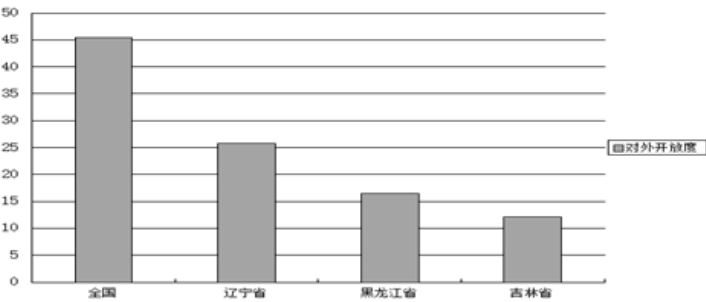
表1是东北三省进出口总额、GDP、外商投资总额的统计表.2013年东北三省的进出口总额占全国的5%,GDP占全国10%,外商实际投资占全国31%,相较之GDP,东北三省的进出口总额明显低于全国平均水平,外商投资总额高于全国平均数值.但是吉林和黑龙江两省的外商投资总额明显低于全国平均水平.计算表1中的东北三省对外开放度,将其与全国对外开放度的平均值进行对比,会得出表2.

19) (韓國) 聯合新聞, 2000年9月18日

表2 2013年东北三省与全国的对外开放度(%) 对照表

省份	外贸依存度%	外资依存度%	对外开放度%	与全国的差距%
辽宁	25.77	6.53	32.3	14.35
吉林	12.12	0.85	12.97	33.68
黑龙江	16.50	1.95	18.45	28.2
全国	45.39	1.26	46.65	-

数据来源:根据表2数据测算,美元/人民币=6.1.



出处：以《中国统计年鉴2013》(中国国家统计局编，中国统计出版社)为依据进行研究得出的数据

表3以2004-2013年东北三省和全国GDP的增加为依据来估算2020年东北三省可达到的GDP总额.世界银行的预测报告——《2020年的中国》中提到，2020年时中国的GDP将下降到5%的增加水平.将这个数值作为估算2020年东北三省GDP总额的一个指标，得出如表4所示的2020年东北三省的GDP预想值.

表3 2004-2013年东北三省与全国GDP增长率统计表

单位: %

年度	辽宁	吉林	黑龙江	全国
2004	12.8	12.2	11.7	9.5
2005	12.3	12.0	11.6	9.9
2006	13.8	15.0	12.0	10.7
2007	14.5	16.1	12.1	11.4
2008	13.1	16.0	11.8	9.0
2009	13.1	13.3	11.1	8.7

2010	14.1	13.7	12.6	10.3
2011	12.1	13.7	12.2	9.2
2012	9.5	12.0	10.0	7.8
2013	8.7	8.3	8.0	7.7
年平均增长率	12.4	13.2	11.3	9.4

数据来源:全国年度统计公报及东北三省相关年度统计公报。

表4 2014-2020年东北三省GDP测算值

单位:人民币亿元

省份	2013基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辽宁	27077	29297	31553	33825	36091	38329	40514	42620
吉林	12981	13994	15015	16036	17046	18035	18991	19902
黑龙江	14382	15461	16543	17618	18675	19702	20688	21618

数据来源:表2。

如上面所做的假设，当东北三省的对外开放度接近现在的全国平均水平时，会出现如表5的现象。即，仅看东北三省对外开放度增加这一项指标，都有2868亿元（人民币）的增加效果。按照陈才的研究结果来分析的话，东北三省的GDP增加将达到1兆元（人民币）。在此，我们不必分析朝鲜半岛和平统一将为东北三省带来的其他经济效果，都可以知道东北三省将获得巨大的利益。

表5 2020年因对外开放度上升而带来的东北三省GDP增加量测算表

省份	2020年GDP预测值 (人民币亿元)	2020年比2013年上升的对 外开放度%	2020年因对外开放度上升 而带来的GDP增加量 (人民币亿元)
辽宁	42620	14.35	917
吉林	19902	33.68	1005
黑龙江	21618	28.2	914
合计	84140	-	2836

数据来源:表3、表5。

为了从对照的角度更清楚地认识朝鲜半岛和平统一将为中国带来的利益，本文将按照上述方法来分析朝鲜半岛爆发大规模武力冲突时，中国的GDP所将承受的影响。首先为了便于分析，假设朝鲜半岛爆发大规模武力冲突时，中韩贸易额为2742亿美金（2103年），中日贸易额为2013年的50%，即1563亿美金。中韩、中日贸易额占中国对外贸易总额（42330亿美金）的10.11%。2013年中国的对外开放度为46.65%，对外贸易依存度为45.39%，因此可以看出对外贸易依存度占中国对外开放度的97.3%。可以得出朝鲜半岛爆发大规模武力冲突时GDP的损失将为8394.6亿元（人民币）。

$$10.11 \times 568845 \times 0.973 \times 0.0015 = 8394.6 \text{ 亿元(人民币)}$$

按照陈才的研究方法或者将其他损失都包含进来进行计算的话将会得出一个天文数字。

这样的分析具有有利的一面，有助于我们更加关心朝鲜半岛发生一些情况后中国将得到的利益或损失。朝鲜半岛维持现状的话，中国就无法获得朝鲜半岛和平统一时可以获得的利益，这就对中国造成了一种隐性的损失。朝鲜半岛爆发大规模武力冲突时，中国将受到直接损失加上朝鲜半岛维持现状时受到的隐性损失，将付出重大代价。相反地，如果朝鲜实施全方位的改革开放或者朝鲜半岛和平统一的话中国在避免损失的同时还会取得巨大的经济利益。这意味着朴槿惠总统所说的统一大发论不光会对朝鲜半岛产生影响，也会在中国发挥效应。

3. 东北地区从朝鲜改革开放中可获得的经济利益

1) 研究方法

根据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和国际货币基金组织（IMF）的定义，“外国直接投资（FDI）是指一个国家的居民或实体（直接投资人或母公司）同其他国家的企业（在国外直接投资的企业、子公司或外国下属机构）建立政治联系，取得长期利益，并实现对其控制的投资。”

经合组织将向外国直接投资分为如下三种具体方式：第一，自有资本投资，即对外直接投资人在本国以外拥有的资本；第二，利润再投资，即对外直接投资人用于再投资的国外子公司（或机构）股份（直接持有的股份比例）中的未分配股息及未付收益部分；第三，企业内贷款（或企业内债券），即对外直接投资人（或母公司）与子公司（或机构）间短期或中长期贷款。

以下假设朝鲜于2020年实行全面开放政策，参考王威《外商直接投资对中国经济的影响分析》中的推算结果，本文将对增加外商直接投资对东北吉林省和黑龙江省GDP所产生的影响程度进行计量分析。

王威在上述研究中采用计量经济学的分析方法，得出了外商直接投资每增加1个百分点，GDP将增长0.6%，出口额将增长0.51%，国内消费总额将增长0.54%的研究结论。

具体来说，我们假设，一旦朝鲜实施改革开放政策，吉林省与黑龙江省的外商直接投资将大幅增加，使得吉林、黑龙江两省的外商直接投资在GDP里所占比例与辽宁省的指标水平持平。同时，为了便于数据推算，我们把朝鲜将于2020年实施改革开放的政策作为前提假设。

2) 2009-2013年东三省外商直接投资、GDP、出口额及社会消费品零售总额的变化情况

表1 2009-2013年东三省四项指标统计表

年份	外商直接投资 (亿美元)			GDP (亿元)			出口额 (亿美元)			社会消费品零售总额 (亿元)		
	辽宁	吉林	黑龙江	辽宁	吉林	黑龙江	辽宁	吉林	黑龙江	辽宁	吉林	黑龙江
2009	154	11	24	15212	7278	8587	334	31	101	5812	2957	3401
2010	208	13	27	18457	8667	10368	431	45	163	6810	3505	4001
2011	243	15	33	22226	10568	12582	510	50	176	8004	4120	4705
2012	268	16	39	24868	11939	13691	580	60	144	9257	4773	5453
2013	290	18	46	27077	12981	14382	645	68	162	10524	5426	6206
2009-2013年平均增长率%	19.6	10.8	12	15.6	13	11	10.3	12.8	17.7	16.7	17	17

数据来源：中国国家统计局网站、辽宁省统计信息网、吉林省统计信息网、黑龙江省统计公报(2004-2013).另外，人民币汇率采用中国国家统计局网站中各相关年度的数据。

3) 东三省2020年外商直接投资、GDP、出口额及社会消费品零售总额推算

①推算方法

首先，假设东三省GDP增幅以2013年为基准每年下降0.5%.以此为前提，再假定2014-2020年东三省外商直接投资、出口额和社会消费品零售总额的增速各自维持在2009-2013年的平均增速上。

② 2020年相关指标的推算

根据上述假设和推算方法，可计算出2020年东三省的GDP、出口额和社会消费品零售总额的预测值.推算结果如表2所示。

表 2. 吉林省、黑龙江省2020年相关指标预测值

省份	外商直接投资 (亿美元)	GDP (亿元)	出口额 (亿美元)	社会消费品零售总额 (亿元)
辽宁	1014	42620	1279	31024
吉林	37	19902	159	16283
黑龙江	103	21618	508	18625

4) 外商直接投资每增加1%时，对东三省的GDP、出口额与社会消费品零售总额的影响

① 以2013年年底统计数据为计算标准时

表 3. FDI增加1%时，对东三省2013年经济指标的影响

省份	GDP (亿元)	出口额 (亿美元)	社会消费品零售总额 (亿元)
辽宁	162	3.29	56.83
吉林	78	0.35	29.3
黑龙江	86	0.83	33.51
合计	326	4.47	119.64

如表3所示，如果2013年东三省每个省的外商直接投资增加1%，则当年东三省的GDP共增加326亿元，出口额增加4.47亿美元，社会消费品零售总额增加119.64亿元人民币。

② 以2020年预测值为标准计算时

表 4. FDI增加1%时，对东三省2020年经济指标的影响

省份	GDP (亿元)	出口额 (亿美元)	社会消费品零售总额 (亿元)
辽宁	256	6.52	167.53
吉林	119	0.81	87.93
黑龙江	130	2.59	100.58

根据表4，2020年东三省各省的外商直接投资每增加1%，当年东三省的总GDP就增加505亿元，出口额上升9.92亿美元，社会消费品零售总额增加356.04亿元.

4. 朝鲜半岛南北经济统一对中国的影响效果分析

1) 研究方法

本研究采用可以同时考虑成本和收益的可计算一般均衡模型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来预测经济效益.我们将不仅考察作为直接利益方的朝鲜与韩国，同时也会考察与朝鲜半岛存在最密切联系的中国在这一过程中所受到的影响.

从研究方法角度来看，本研究为了预测半岛南北经济统一时所产生的经济效益，将采用可计算一般均衡（CGE）分析及CGE模型，按推演情况预测南北韩经济统一后其经济效果将发生怎样的变化.

可计算一般均衡模型与部分均衡模型不同，适合于用来考察国家间或企业间的相互作用.因此，用它不仅可以考察对象国，还可以分析考察其他国家所受到的影响效果.

2) 朝鲜半岛南北经济统一造成的主要变化

本研究以亚洲问题研究所（2014）提出的半岛南北经济统一推演为基础，追加考察南北经济统一所造成的影响。

表：亚洲问题研究所 半岛统一的收益预测研究报告书

使用柯布-道格拉斯生产函数与索罗增长模型预测南北统一的纯收益
区分朝鲜维持现状的情况和实施改革开放政策的情况
利用国际贸易重力模型研究全世界的平均贸易模式后，将其带入朝鲜的改革开放推演中，预测朝鲜实施改革开放政策造成的南北贸易量变化。

出处：成韩京（2014）

——亚洲问题研究所（2014）分析认为，随着南北贸易量的扩大，贸易相对于GDP的比例增加，生产率上升。根据这种方法对半岛双方所受影响进行的分析虽然能够取得一定成果，但却无法用它来估算贸易转移效应的大小，因此周边国家所受的影响可能会被低估。

——考虑到这个问题，本研究提出朝鲜半岛南北经济统一将消除半岛双方的关税与非关税壁垒。

本研究将南北经济统一的推演分为以下四种情况：

表：预想分析

推演	主要内容
推演	朝鲜改革开放
推演Ⅱ	推演Ⅰ+削减军费开支
推演Ⅲ	推演Ⅰ+南北贸易量扩大
推演Ⅳ	推演Ⅰ+削减军费开支+南北贸易量扩大

——由于半岛南北经济统一是以朝鲜改革开放为前提的，所以在推演中我们把朝鲜改革开放作为基本假定。

——经济统一的核心问题是削减军费开支和扩大南北贸易额，所以推演2在1的基础上补充假设朝鲜实施削减军费的政策，推演3在1的基础上假定南北贸易额扩大。推演4则假定以上情况同时发生。

① 朝鲜改革开放（推演1）

以朝鲜的增长潜力为基础，本研究假设朝鲜的改革开放将具有以下具体收益：

1) 朝鲜的投资率增加

——可以预见，由于朝鲜实施改革开放政策，韩国对朝投资将增加。如果加大对朝鲜自然资源开发产业和旅游业的投资力度，那么可以估计朝鲜经济的投资率将上升5%左右（从32%上升到37%）。这还是在仅考虑韩国对朝鲜投资增加的情况下所得出的结论，如果进一步考虑到海外对朝鲜的资本投入，朝鲜经济的投资率可能会进一步上升，其获得的经济利益可能会进一步扩大。

2) 技术进步速度加快

——实施改革开放政策后的第一个十年，朝鲜的全要素生产率将提高，但可以预见，在这之后其增长速度将逐步放缓。由于本研究使用的CGE模型不是完全动态模型，为了便于分析，我们假设全要素生产率在整个研究区间内年平均增长率为1.577%。

3) 人力资本积累的速度加快

——相比于维持朝鲜现有体制，实施改革开放的政策后，朝鲜人力资本年增长率将从推演A中的1%提高至每年1.5%左右。

② 削减军费开支（推演2）

削减军费开支的推演也以亚洲问题研究所（2014）的研究为基础。

1) 逐步裁减军事人员

——2015年到2025年这十年间，朝鲜将裁减一定比例的军事人员。以2025年为统一的时点，我们假定2025年后军事人员占人口比例维持在0.5%左右（OECD国家的平均水平）。

——关于裁军规模，韩国的军事人员对全体劳动力的比例可由目前的2.46%下降到约0.95%，朝鲜的军事人员估计也可以由目前总人口的4.73%在10年内下降到0.5%左右，这相当于将朝鲜的军事人员相对于全体劳动力的比例由目前的8.55%下调到约0.90%。

——因此，可投入半岛双方经济活动的劳动力人数将增加，我们假设这些劳动力都不是熟练劳动力。

2) 裁军导致投资率提高

——假设在这十年间，韩国的国防费用水平由目前占GDP的2.52%逐步下降到1.52%。削减的国防费用可用于向国家经济生产部门的资本投资，这将促成韩国的投资率在10年内上升1%左右。

——同样，可以假设在这十年间，朝鲜的国防费用水平由目前占GDP的15%逐步下降到5%左右，这将使朝鲜的投资率在10年内上升10%左右。

③ 南北贸易扩大（推演3）

——推演3假定朝鲜实施改革开放的政策，同时半岛南北双方的贸易规模将扩大。

——亚洲问题研究所（2014）的研究认为，半岛南北贸易的扩大将使得贸易规模相对于GDP的规模增加，生产率提高。举例来说，贸易规模相对于GDP上升1%，则据估计，经济增长率将会上升0.01%

——但是，这个方法虽然可以用来有效预测研究对象——半岛南北双方的变化情况，却无法用于推算南北贸易额扩大造成的贸易转移效应（trade diversion effects），这可能造成其对于周边国家的影响被低估。

——考虑到这一问题，本研究提出南北经济统一会促成南北双方废除关税或非关税壁垒。

3) 分析模型和数据

①CGE模型

为了分析半岛南北统一对中国造成的影响，本研究使用了被广泛用于事前分析（ex-ante analysis）的（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模型综合了生产、消费、投资、支出等国内经济组成部分以及出口、进口等国际经济与贸易组成部分，以此来计算经济主体的行为及产业间的相互关系对模型内变量产生的冲击的最优解。

——由于较难获取朝鲜经济的准确数据，尽管存在一定的局限性，但本研究依然采用了全球贸易分析模型8.2版（Global Trade Analysis Project（GTAP）V8.2）中“东亚其他地区（Rest of East Asia）”的数据来推算朝鲜经济状况。

②数据与国家、产业及生产要素的分类

为了使用GTAP数据库进行CGE模型分析，首先需要确定假想的朝鲜经济状况。

——在GTAP (v8.0) 中，“东亚其他地区 (Rest of East Asia)”还包括蒙古，所以存在着无法分离出朝鲜经济与蒙古经济数据的问题，但该数据库却提供了对外关税和非关税壁垒以及地区贸易的相关数据。

——本研究主要的目标是要分析半岛统一对中国经济可能造成的影响，因此选择了GTAP (v8.0) 数据库来进行研究。在以后的课题研究中，我们还将综合两个数据库的内容，构建更加准确的基础数据。

——GTAP数据库自身所反映出的关税税率很难反映出实际的贸易壁垒情况，考虑到朝鲜经济不属于资本主义经济体系，相比于其他国家，朝鲜的关税税率可能被低估了。

——因此，在本研究中，我们假设相比于其他国家，朝鲜拥有不仅针对韩国，同样也针对其他国家的最高的贸易壁垒，这种贸易壁垒不单单是关税壁垒，还包括一部分非关税壁垒。

产业分类方面，为了提高分析的便利性和可行性，我们将经济部门分为农林水产业、矿业、轻工业、重工业和服务业五个产业部门。

我们将生产要素分为土地、自然资源、资本、熟练劳动力与非熟练劳动力4种。

4) 分析结果

利用CGE模型分析从各个推演中得出的结果总结在(表4)中。

——本研究认为由于朝鲜实施改革开放的政策以及朝鲜半岛南北两方经济的统一，经济的投资率 and 生产率将上升，我们可以通过年变化率和分析结果看出经济的主要变化。

——本研究根据亚洲问题研究所(2014)的推演计算半岛南北经济统一在

2015-2050年这一区间所造成的影响.

表 4 . 各推演的经济影响效益

单位：%

推演 I	实际GDP	福利	出口	进口
朝鲜	3.55	4.05	1.10	1.58
韩国	0.00	0.00	0.00	0.00
中国	0.00	0.00	0.00	0.00
推演 II				
朝鲜	4.62	5.27	2.05	4.72
韩国	0.16	0.18	0.07	0.21
中国	0.00	0.00	0.00	-0.01
推演 III				
朝鲜	4.90	6.89	2.92	4.31
韩国	0.34	0.45	0.59	0.68
中国	0.00	0.00	-0.03	-0.02
推演 IV				
朝鲜	5.98	8.12	3.04	4.81
韩国	0.49	0.64	0.63	0.61
中国	0.00	-0.00	-0.03	-0.03

首先，我们来观察推演1，它假设朝鲜实施改革开放的政策，由此我们得出朝鲜的实际GDP将年均增长3.55%.

——朝鲜的改革开放将促进朝鲜经济增长及朝鲜与周边国家的贸易交往.经济规模扩大，收入水平上升，从而创造出新的需求，于是朝鲜和周边国家的贸易额扩大，产生了贸易增长效应.

推演2假定朝鲜实施改革开放的政策，同时半岛南北实现经济统一，南北双方削减军费，裁减军队人员，这使得劳动力数量增长，投资额增加.

——从分析结果来看，可预计朝鲜的实际GDP年增长率为4.62%.

——韩国的实际GDP估计也实现0.16%左右的年增长.

——在朝鲜实施改革开放政策的同时，国防人员和费用都将得到削减，这使

得劳动力的数量和用于投资的资本增加，由于这些都是发生在国内变化，因此其对周边国家的影响较为有限。

南北经济统一有可能会给周边国家造成不利影响。朝鲜目前与中日等国之间的贸易有可能会因为贸易转移效应 (trade diversion effects) 被半岛南北两方之间的贸易所取代。

——推演3认为半岛南北经济的统一将消除南北间的贸易壁垒，从而扩大南北贸易规模。

——从推演3的分析结果来看，虽然中国的进出口贸易会受到一定的不利影响，但其受到影响的程度甚微。

——由于对朝贸易在中国的对外贸易中所占比重很小，因此这种贸易转移效应所造成影响的规模也很小。

推演4假设朝鲜实施改革开放政策，削减军费，同时半岛南北两方间贸易量扩大，由此预测朝鲜的实际GDP将以年均5.98%的速度增长。

——另外，南北贸易量的扩大将造成贸易转移效应，因此中国的进出口贸易额将有轻微下降。

5) 总结与启示

本研究采用可以在政策实施之前分析其可能影响的可计算一般均衡模型 (CGE)，意图分析朝鲜半岛南北经济统一造成的影响。

——虽然半岛南北经济统一将通过贸易转移效应 (trade diversion effect s) 这一机制对周边国家产生不利影响，但由于对朝贸易在中国对外贸易中所占比例极小，因此贸易转移效应所造成的不利影响是极为有限的。

如果朝鲜发生改革开放和削减军费等变化，这将推动朝鲜经济增长，从而拉高进口需求，由此可以预计中国的对朝出口将肯定会增加。

——虽然研究说明了贸易的流动方向，但以被广泛采用的国际贸易重力模型

(gravity model) 为基础所得出的研究成果显示, 相比于以类似于FTA的贸易特惠协定为贸易转移效应 (trade diversion effects), 经济规模、收入水平以及两国间距离等因素具有更加重要的影响力。

半岛南北贸易额扩大造成贸易转移效应 (trade diversion effects), 但其对中国造成的不利影响很小, 而且这种不利影响是短期的。反过来看, 朝鲜的经济增长导致了进口需求的增加, 这将会对中国造成长期的有利影响, 因此我们可以认为半岛南北经济的统一对于中国的影响是有益且长远的。

5. 欧亚战略和一对一战略的结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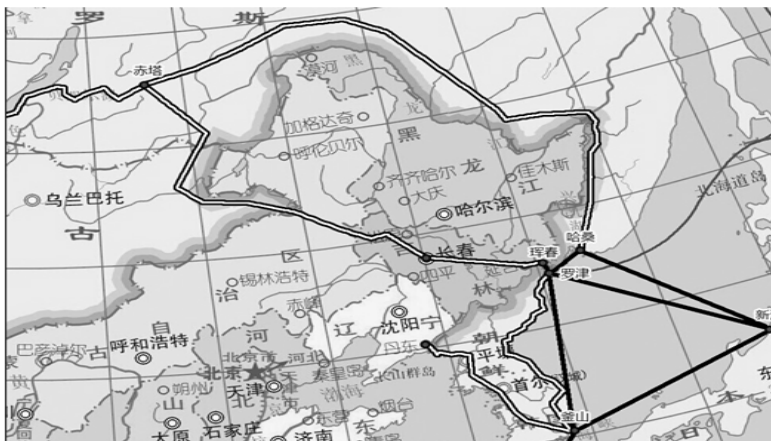
最近俄罗斯和北韩之间的“罗津-河山”计划在推进的过程中, 韩国的参与打开了东北亚地区的合作。假如这个机会也能实现中国的参与的话, 在东北亚地区会实现以图们江为中心的经济一体化的基础。

图4为东北亚地区经济一体化的构成图。假如以洛津作为一个据点的话, 可以形成珲春-罗津-河-河山-釜山-伊方, 实现经济一体化, 并且通过河山和连云港构建一个东北亚-欧洲的联结网的话, 东北亚地区会形成一个基本的国际合作框架。另外加之朴槿惠总统的欧亚战略功绩显著, 中国的东北地区开放度, 发展空间也得到了扩张, 地域竞争力大大也将大大加强, 这里, 即东北地区, 将会是名副其实的中国经济发展的新增长点。

东北亚地区的经济一体化给中国经济带来了巨大的发展契机。这样的经济一体化一旦形成, 图们江流域便会形成中国总体发展战略的一极。如图4所示, 图们江流域不仅在中国“长吉图计划”的战略中起到中轴作用, 而且和中国政府构想的一路一带战略结合, 在地域的各种条件形成的经济体制之中重点突出。

改革开放以后, 中国虽然实现了飞跃的发展, 也面临了严重的结构上的矛盾。这些都是发展的不平衡。应该注意的是, 这种不平衡形成了发达地区和边境地区间

图4 东北亚地区 经济一体化构想图



经济上的重大断层.中国将这样不平衡的问题称作西部问题.所谓西部问题就是指是除去中国的东南部,东部,东北部的欠发达地区的开发问题.2000年10月,中国共产党5中全会提出了西部大开发战略.

西部大开发的地域范围包括重庆、贵州、云南、西藏、陕西、甘肃、青海、宁夏、新疆、内蒙古、广西等12个省(直辖市、自治区),其面积达到了中国的74.1%,而GDP却为全国平均水平的三分之二,只占到东部地区的40%.虽然西部问题中不包括东北部,但是仔细分析的话,可以发现西部问题和东北问题在性质上是同一的,也是相互关联的问题.

图二是中国西部大开发的区域分布图.如这个分布图可以看出的,所谓西部地区分布在中国广阔的接壤地区.这样的地区共同的问题是对外开放度较低.虽然这样的地区和东北部地区的问题和状况不同,但是和所有的接壤国家在经济交流方面不能确保必要的开放度却有着相同点.比如面对着内蒙古,新疆,西藏,云南等广阔接壤地区的邻国均为欠发达地区或是地处险恶的自然环境之中,不仅如此,还不能为中国的发展提供必要规模的市场.相比而言,东北部有着相对优越的周边环境,但是由于北韩尚未开放,对于俄罗斯远东地区的关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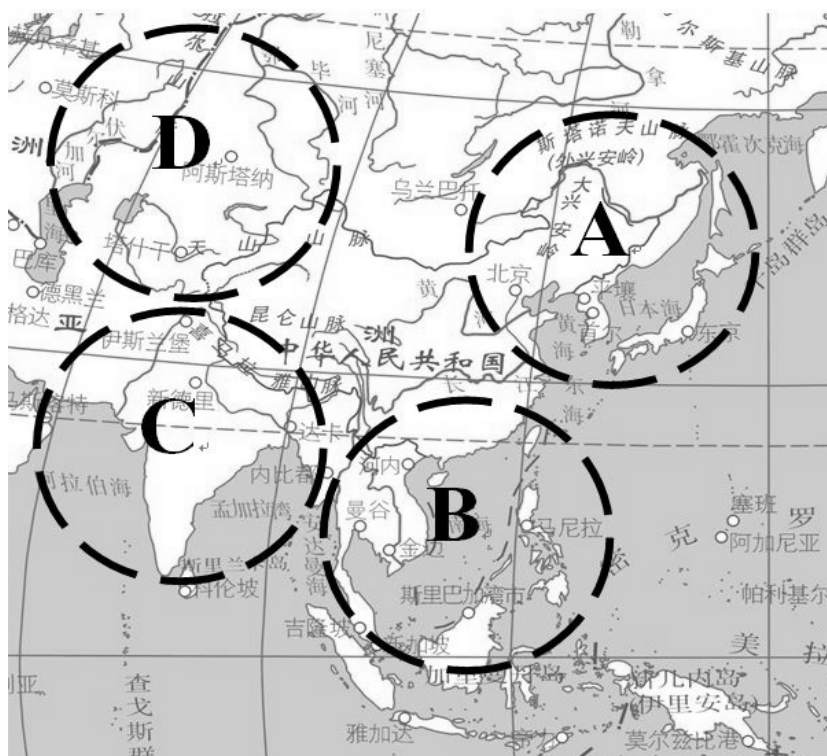
度不足，还不能保证必要的开放度.即，从改革开放以来，主要东北地区通过正式的改革开放显示出了构造上的矛盾.

图二 中国西部大开发地区分布图



从理论的角度来看，中国的西部问题和东部问题最终是各种系统发展中不能确保必要的发展空间酿成的问题.当今时代的经济发展都是通过和其他国家的交流，脱离自己国家空间上的界限而形成新的发展空间而达成的.在不能确保发展空间的情况下，结果只能陷入封闭的状态，因此也丧失了经济发展的动力.这个问题在当今情况下中国面临的结构矛盾中显露出来.图三是未来中国应该确保的发展空间分布图.如图所示，自从改革开放以来，中国的经济发展主要是通过利用B和A之间的交叉点东部地区形成的发展空间而达成的.因此，在A和B的大部分以及D,C地区中，不能确保这样的发展空间.从这样的角度看，所谓西部问题或是东部问题最终是源于不能确保发展空间的低开放度.

图三 中国周边发展空间分布图ABCD为东北亚, 东南亚, 南亚, 中亚的标示



虽然中国为了解决这样结构上的矛盾应该确保在图三种标出的ABCD中的发展空间.在这样的地区中A和D会对未来中国的发展起到相当重要的角色.即在东北亚地区和中亚地区确保发展空间将会大大改变中国的发展构图,也能形成激活各类经济系统的新动力.

新的发展空间的确定是和地区竞争力直接相关的问题.地区竞争力意味着以一定的国际地域优势为基础,形成比各国间的意组织化程度更高的合作机制,并且具备和其他地区的国际性组织相对应的竞争力.当今世界逐渐显示出世界一元化强化的趋势,作为区域特征的合作体构成,相互间优势互补,加速商品和资源的流通,另外还共同应对着经济风险.区域经济一体化不仅扩展了合作规模,

无疑还是应对经济风险的重要方式.另外,区域经济一体化使参与国拥有区域竞争力.即凭借区域合作体的共同应对,在和其他合作体或是和其他地区的竞争之中确保优势.

但是,例如中国的情况,虽然强化了和其他国家及区域之间的合作,也在某种程度上参与了各种区域合作,但是现在还是不能构建特色鲜明的区域竞争力.特别是中国希望在东北亚构建经济合作体,但是实情是现在东北亚地区还没有形成任何的合作体.在和欧洲对比时,除去亚太地区的“亚洲自由贸易协定”及“北美自由贸易协定”,还未能构建地区和双方的自由贸易机制,特别是东北亚三国(中国,韩国,日本)间目前还没有签订任何自由贸易协定.也就是说,这意味着在东北亚地区,连最低水平的合作体系都不存在.一般我们将FTA看作是国际合作最初级的形态,东北亚地区国家间的FTA现在已经到了协商阶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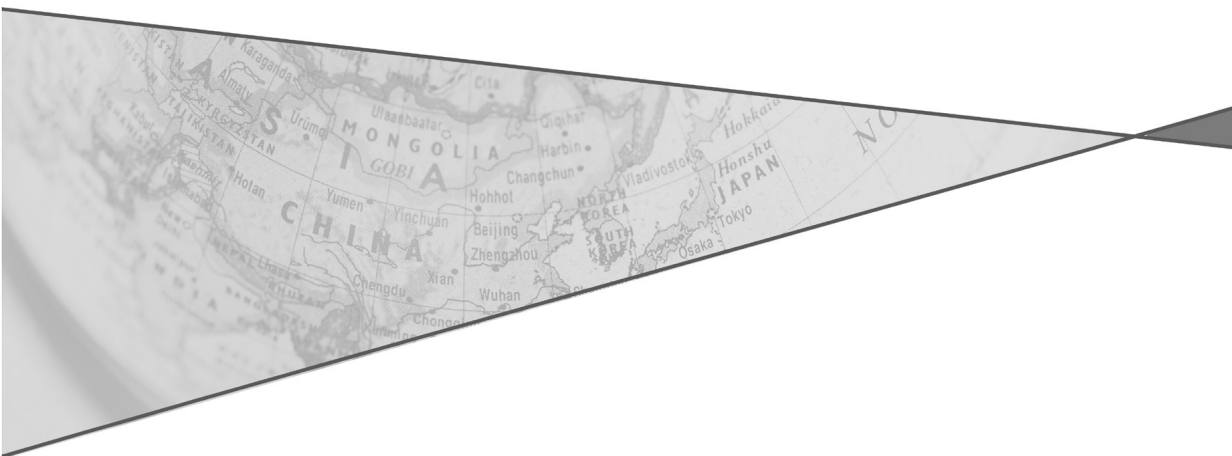
如上所述，东北亚地区作为资本、技术、资源、人口密集的区域，如果在这一区域内构建了巨大的国际合作体的话，将会形成比世界上任何一个区域都优越的区域竞争力。特别是对于中国来说，东北亚地区是中国崛起大战略的核心区域。更重要的是，本质问题是中国在东北亚地区面临的问题是以何种战略性的角度构筑东北亚地区的区域合作体。因此，在确保区域竞争力的同时，也面临着开拓发展空间，改善国内经济体系不平衡的战略性课题。

从这点意义上来看，由朝鲜半岛的统一而形成的东北亚地区的区域合作体和区域竞争力以及扩张的发展空间，将会改善中国国内经济系统不平衡的状态，在实行“一对一”战略的同时，为西部地区的开发添加决定性力量。即，通过“一对一”政策从东南亚以及中亚延伸至大范围的“一对一”地区的发展空间，会缓解国内经济系统的不平衡的状态，同时将会为振兴东北增添巨大力量。这也将中国和欧亚在称作“一对一”的一双翅膀下实现新的飞跃。笔者想强调的是，这样的问题是和朝鲜半岛和平统一密切相关的重要议题。

四

朝鲜半岛的统一与 中国的安保利益

1. 朝鲜半岛的地缘政治历史与中国的安全利益
2. 朝鲜半岛的冷战结构与中国的安全利益



1. 朝鲜半岛的地缘政治历史与中国的安全利益

自进入近代史阶段，朝鲜半岛就一直处于列强们的武力兼并与殖民地争夺的角逐中，而这种角逐也赋予了它重要的地缘政治学意义。同时这也是地缘政治学这门新的学科起源的时期。而且在此阶段朝鲜半岛还连续发生了许多可以验证地缘政治学理论的历史性事件。

从传统的地缘政治学视角来看朝鲜半岛的特殊地理位置使其成为了列强们利益交叉的角逐场。如果大国的战略在某一地区或国家停留就会赋予该地区或国家重要的地缘政治学意义。而19世纪末大国的战略在朝鲜半岛越发尖锐的彼此冲突也就使得朝鲜半岛的地缘政治学因素愈发的重要。

欲通过朝鲜半岛进入太平洋的俄罗斯南下战略、欲通过朝鲜半岛进入大陆的日本北进战略、欲继续维持在朝鲜半岛的传统地位的中国的战略等，最终引发了大国间在朝鲜半岛的战略冲突。而甲午中日战争与日俄战争就是冲突的直接结果，并且冲突的领域也随即扩大到了中国的东北。1894年的甲午中日战争把中国的东北变成了战场，而战争结束后东北地区又沦为了日本的战利品。签订《马关条约》的清政府根据条约规定“将辽东半岛、台湾岛、澎湖列岛及其附属岛屿的主权永久的割让给了日本”并且“支付给日本赔偿金（白银）2亿两”。虽后因“三国干涉”从新找回了辽东半岛，但也付出了再赔给日本3千万两白银的代价。最终清政府将台湾与澎湖列岛及其附属岛屿割让给了日本并且“赔偿”给了日本2亿3千万两白银。这相当于清政府年收入的3倍，同时也是日本全国GDP的3倍。中日战争也就成为了加速清朝政府灭亡的直接因素。同样也是因朝鲜半岛问题而引发的俄日战争，也在中国的东北地区暴发，而且这场战争也是日本侵略中国大陆的前哨战。数不尽的中国人民在这场战乱中失去了性命，战争的炮火还造成了数十万的难民失去家园、流离失所。通过这场战争把朝鲜半岛作为桥头堡的日本正式踏

进了中国的东北，并且把东北地区看作是侵略大陆的重要关口。

此后日本以东北为跳板发动了侵略整个中国大陆的战争。9.18事变后从1931年到1945年日本占领了中国的930座城市，造成了中方超过3500万的伤亡人数和4200万无处安身，被迫漂泊的难民。被害损失竟达到了6千亿美元。

日本战败后朝鲜半岛重新变为了大国施展战略的场所。以至于朝鲜半岛不但南北分裂，而且最终还暴发了被称为是美·苏代理战的朝鲜战争。朝鲜战争也给中国带来了莫大的损失。在战争期间中国方面牺牲11.4万人，负伤25.2万人，失踪2.56万人（其中俘虏2.1万人），因伤牺牲3.46万人，实际损失兵力达到了42.62万人。

中国参战朝鲜战争以来给自身的经济建设也带来了巨大的损失。朝鲜战争前中国政府预计将1951年的军费支出从1950年占预计总支出的43%改为减少到仅占30%，并将剩余的70%都投入到经济建设中去。但自从朝鲜战争参战以后中国在1951年的军费支出的比例就上涨到了占国家总预算的45.64%。而中国在朝鲜战争期间消耗的各种战争物资就达到了560万吨、作为军费支出的人民币也达到了62亿元。再加上从苏联借款而得的3亿美元也全部投入到了武器和装备的购买当中。1952年9月中国总理周恩来访问苏联时还向苏提出了之后5年内借款40亿卢布的请求，而其中大部分都用在了军事和国防方面仅有8亿卢布用来购买了工业设备。1950年代末“三年自然灾害”造成了中国近3千万的饿死者和非正常死亡者，这时期为了偿还苏联的借款使得中国不得不雪上加霜的付出了更多巨大的牺牲。3年自然灾害期间中国的粮食产量每年递减15%，但即使在这种“大饥荒”的状况下还是给朝鲜提供了23万吨的粮食。

朝鲜战争结束后的冷战时期，中国将朝鲜视为阻挡美国侵略的缓冲地带，更是不惜为朝鲜提供了许多的支援。1951年至1965年期间中国为朝鲜提供的援助总额达到了6亿1350万美元，其中无偿援助4亿5600万美元，有偿援助约1亿5750万美元。1958年至1960年期间中国支援了朝鲜的纺织染色厂、水泥厂、轴承厂、真空管厂等29个项目的建设，并且在20世纪70年代根据政府间新签订的“中

朝经济技术合作协议”又为朝鲜的火力发电厂、平壤地铁等16个大型工程的建设提供了支援.仅1980年中国为援助朝鲜建设了太平湾发电站、提供中国原油的新义州炼油厂、熙川5.1颜料厂、平壤车轮厂、计量器厂、海州造纸厂、新义州纤维厂、咸兴钢笔厂、收音机配件厂和平壤市电网等.1990年上半年朝鲜处于自然灾害的困难时期,中国为其提供了无偿的粮食援助,同时又以优惠的价格向其输出了粮食和原油.1995年至2006年期间中国对朝鲜的支援金额达到了3.75亿美元.2009年中国的温家宝总理访朝时中国对朝提供的无偿经济援助就达2000万美元.1996年至2007年期间中国对朝无偿支援的粮食为238万吨占中国对朝粮食援助总量的52.5%.

中国在冷战时期的对朝贸易中不惜经济利益为朝提供了全方位的援助.比如,1960年代初中国的出口商品中的石膏和硫磺都是当时朝鲜5年之内需求量最大的商品之一,按商品的成本价来算的话,意味着当时每吨中国的损失在75%-80%左右.再加上当时这两种商品在中国国内的生产也因多种原因还不稳定,不论是从经济利益方面、经营管理方面或是生产现状方面来讲这两种商品的出口都是很困难的.但是中国考虑到作为朝鲜工业生产中必要的重要原料,如果不出口的情况下会给朝鲜的生产带来很大的影响.在这种判断下中国满足了朝鲜的全部要求.

世界范围内的东西冷战局面结束、韩国分别和俄罗斯和中国建交,这使得冷战时期的“北方三角”已然瓦解,朝鲜半岛的地缘政治因素也因此获得了可以被弱化的时机.朝鲜与美·日建交,欲借此达成“交叉承认”的局面,但是却没有成功.靠拢美国的“南方三角”依然和朝鲜维持着对立的关系,而朝鲜半岛的冷战局面也依然继续着.美国因其对东亚战略的考虑希望固守着朝鲜半岛的冷战局面,而朝鲜则考虑到其生存策略层面的意义,想早日摆脱这种局面.两国之间的战略彼此冲突逐渐扩大,其结果就是朝核问题.朝鲜想用核来“威胁”美国,达到改善关系获得经济上的有利局面.而美国则恰到时机的控制着,并在自己的战略层面上充分利用着朝核问题.结果就是美国逐渐展开包围、牵制中国的“亚洲再均衡”策略,给日

本挎上“枪杆子”；而日本也充分利用着朝核问题，以“朝鲜威胁”为借口向着军事大国化迈进，形成能够和中国对抗的局面。

结果朝核问题给中国带来的影响就是：以美·日同盟为轴威胁着中国的周边环境。

中国在十八大上提出了“两个一百年”和“中国梦”的实现目标。第一个一百年的目标是在建党100周年之际的2021年实现全面建设小康社会；第二个一百年是在建国100周年之际的2049年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中国要想实现制定的目标，安定的周边环境是任何因素都无法比拟的必要因素。改革开放30年中国之所以取得了一日千里的发展状况，最重要的因素就是安定的周边环境。

从上述的历史事实中，我们可以看出近代史之后影响着中国国家利益的决定性的周边环境都是与朝鲜半岛有关的。而现在朝鲜半岛的形势依然具有不确定性，这无疑提高了中国的安保费用。如果朝鲜半岛再次发生战争，那必然影响到中国的国家目标。

重复着紧张与缓和的朝鲜半岛的不确定性态势，事实上根源于南北朝鲜的零和博弈。但究其本质，其实是大国因其地缘政治性策略而利用南北争端的结果。南北争端为大国介入朝鲜半岛的事端提供了空间，同时也为他们施展自己的策略提供了借口。不论有意无意朝核问题已明显的推进了美国在东亚的战略，也为日本的军事大国化提供了借口。朝核问题使南北关系处于紧张与缓和交替的模式中，在这个过程中加强了韩美日的共存关系不说，也为美国对中国的牵制提供了条件。

历史的教训告诉我们战略上利用朝鲜半岛的大国，其最终目标并不是朝鲜半岛而是中国，现在依旧如此。美国和日本都在利用朝鲜半岛问题，以此为借口强化美·日同盟并造成与中国对峙的态势，给中国造成一种不安定的周边环境。这种不安定的周边环境会产生连锁反应，使中国的其他地区也受到牵连。对于中国来说周边环境的恶化对于国内环境也会产生深远的影响。如频繁在新疆发生的恐怖袭击事件，事实上就与对外环境有着密切的关联。从中国安保利益的角度来说朝鲜半岛的统一对中国安保利益的积极影响是非常大的。

2. 朝鲜半岛的冷战结构与中国的安全利益

从上述的历史事实中我们可以看出,近代史以后对中国的国家利益产生决定性影响的周边环境基本全都与朝鲜半岛有关,而现阶段的朝鲜半岛依然是世界上唯一的冷战结构体系,对中国的安保利益直接产生着巨大的影响,并且提高了中国的安保成本。

美国重返亚太地区展开对中国的包围、牵制的战略,事实上在相当程度与朝鲜半岛的状况有着直接的联系。在金大中政府和卢武铉政府时期美国虽然也有重返亚太地区的战略构想但是条件并不成熟,尤其是韩国国内反美情绪的复燃,使得美国不但重返亚太不说,防止作为其东亚战略支撑点的韩国的动摇成为了首要问题,但是进入李明博政府阶段美国在东亚的影响开始强化。李明博总统对美一边倒的外交政策推进了美国的重返,再加上天安舰事件和延坪岛事件使得美国在朝鲜半岛进入了战略性的优势期,美国毫不费力就获得了强化韩美同盟的成果,而韩美同盟的强化后接着又是日美同盟的强化,因此得力的美国宣布战略上重返亚太地区,但是美国这种战略的重点对象依然是中国。

美国重返亚太地区后其战略波及效果可以在日本和南海地区观察到。日本、菲律宾、越南等国家倚靠美国的战略力量与中国围绕领土问题展开争论,中国与日本等国家间的领土问题在过去的数十年时间彼此遵从规则互相搁置,但就在最近阶段突然被提出,这一点值得我们注意。时间上来说是在2010年希拉里国务卿宣布美国重返亚太地区之后的几年时间里这些争论才集中被提出。这么看来朝鲜半岛问题的恶化对于美国来说不但是有利的,而且它所波及的效果,既表现为日本、菲律宾、越南等国家与中国的纷争也给中国带来了巨大的压力,因此把朝鲜半岛形势的恶化看作是这种“蝴蝶效应”的源头的分析也成为了可能。朝鲜半岛的形式不仅在边境地区会给中国造成影响,事实上它对中国整个安保环境都会产生

直接或间接的影响。

如果根据美国重返亚太地区的战略范畴分析的话,实际在美国的战略构图中已经相当明确地把利用朝鲜半岛的冷战结构为其施展战略意图包含其中,也就是说在美国的战略构图中朝鲜半岛的分裂成为了美国战略的着眼点,美国以此为起点展开他的东北亚战略和亚太地区战略。假如可以的话通过统一治理使朝鲜半岛的紧张局势不存在,那就意味着美国的战略支撑点的消失,他们介入东北亚地区事务的名分也会随即消失。在美国的立场上朝鲜半岛的统一或是局势的缓和是有可能不利于其战略构图的,因此美国有维持朝鲜半岛的分裂和一定的紧张局势的必要。

对于中国的安保来说日本的军事大国化进展是极为担忧的问题中的一个。毫无争议在日本的正常国家化和军事大国化战略中朝鲜半岛问题依然起着很大的作用。日本自从1990年就开始以“朝鲜威胁论”为借口开展军事大国化路程。而现阶段日本对于中国的对峙可以说是这种战略的升级版。

因此,我们应该对于美国和日本的战略中都把朝鲜半岛问题作为极为重要的背景,从而来开展自己的战略这一点有深刻认识的必要。比如说,虽然美国和日本都把朝鲜作为敌对国,但是在战略层面上来讲朝鲜的存在对于他们又是非常重要的。我们可以把美国和日本看做在结构上已经和朝鲜形成了“对立依存关系”。那么如果美国和朝鲜的对立关系不存在的话,美国就失去了广泛介入东北亚地区事务的原由和根据;朝鲜也会因为没有了美国这个敌对国而很难维持现在的闭锁状态,核武器的开发也会失去原由。日本和朝鲜的关系也是一样。从日本的战略体系来讲,他和朝鲜的对立关系是治疗他非正常国家这种“心病”的万能药。现阶段日本所谓“自己陷入困境”的战略实施,其理由正是“朝鲜威胁论”,如果这个战略成功的话日本就有可能治愈非正常国家这个“心病”了。再加上若因朝鲜的核开发,导致国内不稳定局势持续的话,日本还可能再以此为借口治愈另一个“心病”,而这个“心病”就是开发核武器、成为核保有大国。也就是说虽然表面上美日和朝鲜是有着深仇大恨的敌对国,但是从战略构图角度来讲的话,他们又维持

着相互依存的特殊关系.如果这种关系消失的话美国和日本的战略支点就会消失,从而会陷入混乱的状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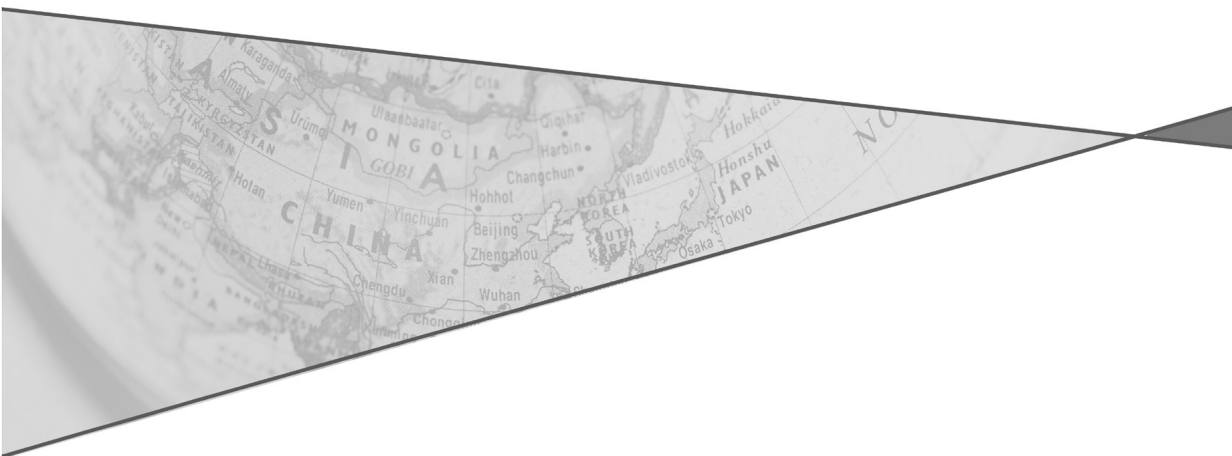
受美国和日本战略的影响东北亚地区将逐渐远离世界经济的区域化趋势,同时还会陷入螺旋形冲突的多边警戒态势之中.朝鲜半岛的紧张局势客观来讲创造了东北亚地区内各国的战略指向的冲突或是对峙情形的战略性需求.激烈的冲突和对峙状态使得朝鲜半岛南北关系持续着紧张的局面,而美国,中国,俄罗斯,日本等周边国家因此时时刻刻注视着朝鲜半岛局势的变化,并为朝鲜半岛的局势是否会向着不利于自己的局势发展而感到焦虑.这也就意味着围绕朝鲜半岛问题周边大国之间正展开着战略上的竞争.

如果朝鲜半岛的分裂终止的话,不论朝鲜半岛的地缘政治价值有多么大,也不会存在大国介入朝鲜半岛的理由了.朝鲜半岛的和解或是统一会使其地缘政治价值下降,原因就在于此.如果朝鲜半岛的地缘政治价值下降的话,它将会被赋予另一个重要的价值—地缘经济价值.到那时周边国家将会认识到如果不主动参与东北亚地区的合作的话,自国的经济利益就会受到损失.那样以来东北亚地区将会形成大规模合作的国际氛围,并且还会对中国东北亚地区战略的实施提供良好的国际环境.如果在解决朝鲜半岛问题时中国以这样的战略为着眼点并且实现了这种国际环境的话,中国将成为东北亚地区的赢家.

五

朝鲜半岛和平统一与 中韩合作方向

1. 朝鲜半岛统一过程中韩国的对中政策基调
2. 朝鲜半岛和平统一过程中的中韩合作



正如前面所分析的那样，战略上中国对朝鲜半岛统一只能予以支持，半岛的统一也能给中国带来巨大的利益。但这种基调的选择绝不是一方的、绝对的。因为中国的半岛政策是与朝鲜半岛的中国政策是相对应的。如果半岛的统一给中国带来了许多安全问题，或者出现了预想不到的领土和历史问题，这时中国对半岛的统一不会采取积极的态度。也就是说，朝鲜半岛对中国的政策将是中国的半岛统一政策基调的重要背景，因此在半岛统一的过程中中韩两国的战略合作将是必需的。

1. 朝鲜半岛统一过程中韩国的对中政策基调

中国人对朝鲜半岛统一的担心在某种程度上也是必须考虑的，关于中国人对朝鲜半岛统一的忧虑主要以下两点，首先是统一韩国采取一边倒政策的可能性，再就是由于历史认识和领土认识而导致的两国纷争的可能性。

同样有统一问题的中国对韩国的分裂状态也会有同情的一面，但历史的记忆与认识、领土等问题同样与各国国民的感情直接相联系，这些问题稍有疏忽就会产生很大的问题，这对韩国和中国来说，都是一样的。特别是这些问题很容易激起国民的感情从而走向极端，这更应该慎重对待。

从长期来看，韩国在政策上有必要实行中立的对美、对中政策，这将是强化中国对半岛政策的前提条件。朝鲜半岛问题就是在中美对决的及其困难的背景下展开的，这就需要韩国的战略智慧，当然，不管是中国还是美国，如果能够正确判读现在的世界形势，成为一个能够领导新秩序的负责任的大国的话，将不会有什么大问题，但如果在现在的状况下，两国不能正确设定其各自的位置，而只是关注相互之间的战略竞争的话，这对朝鲜半岛来说将十分困难。

现在世界已经不是大国可以随意支配的时代了，另外随着世界性的民主化和社会化的扩散，这就要求大国重新来对自己进行客观定位，韩国也正确地认识到了现在的世界形势，也强烈要求世界性大国的担负起其责任。中韩关系如何将东北亚政治结构的形成产生重要影响，李明博政府时期中韩关系十分冷淡，同时当时的中朝关系和韩国的对美一边倒，如果中韩关系还是这样的话，那么东北亚就有可能形成新的冷战结构，相反，如果中韩关系很好，成为维持东北亚地区稳定的一个重要支柱的话，这就会瓦解残留于东北亚的冷战要素，成为东北亚问题解决的核心力量。很多人认为夹在中美之间的韩国的处境十分困难，但这种位置同时也提高了韩国的战略价值。韩国选择对美一边倒还是在中美之间保持等距离外交，这将对东北亚的局势产生重要影响。

现在，中国对驻韩美军给予了一定意义上的积极评价，即驻韩美军对防止东北亚突发事态起到了一定的积极作用，但这不是说中国就欢迎美国在韩国驻军。如果驻韩美军和韩美同盟的作用超越了朝鲜半岛危机管理的范围的话，中国反而会感到一种危机，所以韩国应该将韩美同盟的作用限定在朝鲜半岛范围之内。

2. 朝鲜半岛和平统一过程中的中韩合作

朝鲜半岛统一过程中的中韩合作主要是指两国在朝核问题、朝鲜的改革开放、南北关系缓和与合作等问题上的协作。

从最近学界的动向来看，出现了很多矛盾的地方。关于朝核问题，国际政治学界主要在讨论制裁问题，即制裁是否有效果、朝鲜以后将采取何种战略等。相反，经济学界主要讨论怎样促进与朝鲜的合作、5.24措施能否撤销等。这两个层面的讨论实际上是很矛盾的，因为要解决朝核问题的话应该予以制裁，但如果要进行经济合作的话就应该对朝解除制裁。现在应该在一个战略性的框架下对这些讨论进行综合。

要形成一个战略性基调就要在两种方案中作出一个选择，即要解决朝核问题就要对朝鲜进行持续的、高强度的制裁，直至其屈服，或者通过引导朝鲜自身的变化来创作朝核问题解决的環境。如果到目前为止进行的对朝国际制裁没有得到期待的效果，反而朝鲜以核拥有国的身份出现的话，那就应该考虑其它的路径，这就是将联合国决议的框架内的国际社会的制裁与引导朝鲜改革开放的国际合作并行推进，即在遵守联合国2094号决议的同时，在决议允许的范围内强化国际性经济合作引导朝鲜改革开放，为朝鲜营造一个良好的国际环境。在这一点上需要中国和韩国的紧密合作，再加上在引导朝鲜的改革开放中中韩的作用最大。

实际上朝鲜的未开放状态是朝鲜半岛问题的最大难题，也是朝鲜半岛问题的核心。从中国的立场来看，如果朝鲜的开放问题得以解决，那么即使半岛还没有达到和平统一的阶段，这对其东北亚地区战略的实施也形成了一个非常优秀的国际环境。当然从韩国的立场来看，朝鲜的改革开放将是其实现统一的必要条件。所以从中韩合作的角度来看，朝鲜半岛问题解决的切合点就在于解决朝鲜的封闭状态。以此为切入点的话，不仅可以形成一个解决朝鲜问题的总括性方案，也将对整个朝鲜半岛问题的解决产生重要意义。

1) 朝鲜改革开放的可能性

从中国的立场来看，如果朝鲜进行了改革开放，这将为中国的东北亚地区战略的实施提供了最好的周边环境，对半岛问题的顺利解决提供了前提条件，其积极意义十分明显。只是中国与韩国合作能否有效地引导朝鲜进行改革开放还需要讨论。现在从朝鲜的情况来看，其经济恢复与改革开放面临着两个层面的大课题，一个是国内的政策环境，另一个是国际环境。也就是说，韩国和中国要想引导朝鲜进行改革开放的话，一定要帮助朝鲜解决这两个层面的问题。

从朝鲜国内的情况来看，朝鲜政府一直认为改革开放就是走资本主义的道

路，因为这个原则朝鲜一直拒绝改革开放。很多学者认为，如果朝鲜以此为据来拒绝改革开放的话，国际社会也不会有什么合理的方案。从中国的经验来看，政府主导的积极改革开放给社会带来了巨大的变化，为改革开放的成功提供了担保，所以朝鲜政府是否有改革开放的意愿值得关注。但朝鲜的情况有些特殊，其改革开放将受到两个层面因素的左右，一个是政府改革开放的意志，一个朝鲜国内的实质变化程度。

中国从改革开放开始，朝鲜就一直关注中国改革开放的成果，但一直没有改革开放的明确意志，但这并不意味着朝鲜政府不关心改革开放，只是因为这个原因弱化了这种意志。朝鲜政府已经于1980年代中期在一部分地区实验性地进行了农村改革，取得了比较好的成果。但1980年后期发生的中国天安门事件、东欧巨变及苏联解体等重大国际事件使朝鲜的这种实验夭折，这给朝鲜带来了很大的冲击，使他们更担心政治体系的稳定。但即使这样朝鲜还是在小心地模仿中国改革开放初期的特区建设模式，朝鲜于1990年代在罗先地区和新义州地区进行了封闭管理的特区建设，虽然没有取得什么大的效果，但这表明朝鲜还是有改革开放的意志的。金正恩上台以后，这种意志就更加明显了，2013年朝鲜颁布实施了“6.28”措施，该措施以提高人民的生产奖励为目标，将企业与合作农场的利益分配与市场连接起来，这可以说是一种制度改革。同年11月，朝鲜增设了13个开发区，今年又增加了6个，一共是设置了19个开发区。再加上罗先、金刚山、开城、新义州、黄金坪、威化岛等已有的特区，可以说朝鲜遍地是特区和开发区。这可以说是体现了金正恩政权改革开放的意志。实际上今年金正恩发表了“5.30”方针，已经传达到了中层干部，据说有改革开放宣言的意味，现在正在根据“5.30”方针在制定具体的措施。如果说到目前为止朝鲜的变化是“从下到上”的话，那么从现在开始朝鲜很有可能实现“从上到下”的变化。这种变化给中国与韩国的合作提供了很大的空间。

实际上对于朝鲜来说，这种变化是从很早以前就形成的“上向式改革”即“从下到上”的变化开始的。1990年代中期所谓的“苦难行军”时期，朝鲜遭遇了前所未有的

的经济危机，朝鲜的供给体系也因此崩溃，出现了粮食危机，银行系统瓦解，工厂的开工率只有20%，这次危机使人们不得不通过市场来寻找活路。因此原来小规模“跳蚤市场”开始扩大，与农产品市场合并，形成了市场经济，朝鲜政府也对这种市场的存在采取了默认的态度。随着经济危机的深化，朝鲜各个阶层对市场的依赖大为增加，因此就形成了全体国民都参与到了商业的局面。随着市场化水平的提高，朝鲜政府颁布了“7.1”措施，值得关注的是通过该措施，朝鲜实现了市场合法化，也试图将市场纳入到国家管理的轨道。现在对于朝鲜居民来说，市场已经成为最重要的生存条件，20多年过去了，朝鲜市场经济已经成为朝鲜经济体系的重要支柱。

朝鲜社会主义市场经济体系的形成意味着朝鲜社会的结构性变化，这种变化预告了朝鲜经济体系的未来运营将遵守市场经济的规则，朝鲜的改革开放正在形成。2013年朝鲜政府颁布的“6.28”措施和中国改革开放初期的政策有很多相似之处，比如，明确了道级责任制和将收益分配与市场的经济性收益相结合的原则，合作农场分组经营制更倾向于自主经营等政策性改革措施。但很明显的是这其中的很多措施其实已经处于默认的状态，也就是说这些措施只不过是对于已经发生变化的现实在政策上的体系。从“苦难的行军”开始，朝鲜社会已经出现了与市场经济相关的自营业等现象，并且呈现出社会化的趋势。现在朝鲜的渔业、运输业等部门已经普遍由个人来运营，并且形成了利益分配生产方式，在生活用品加工业等方面自主经营的现象也十分普遍。

朝鲜社会的这种变化为中韩两国引导朝鲜改革开放提供了可能。怎么帮助朝鲜改革开放首先要确立一个方法论的视角，从系统理论的视角来看，任何一个封闭系统的变化都要通过外部物质的输入来进行。封闭社会系统也是如此，变化发生的唯一手段就是对相应系统注入物质，形成一个与外部系统相连接的体系。也就是说如果期待朝鲜积极的变化，就要与朝鲜进行不断的经济交流。从现阶段朝鲜的情况来看，朝鲜社会对外部东西的输入还是很敏感的，随着朝鲜与外部世界经济交流的逐渐扩大，其市场化趋势就会不断增强，随之增加的市场

要素也随着与外部的交流而得到不断的推进，在客观上会要求一个比较合适的政策环境。如果形成这样一种局面的话，朝鲜政府即使没有改革开放的勇气，也不得不顺应社会的变化，就会出现像“7.1”措施和“6.28”措施这样的政策变化。这就是我们所说的上向式改革的路径。当然，如果整个社会都围绕市场经济形成一个运营体系的话，朝鲜也会比较容易地进行政策上的调整，改革开放也就会形成整个社会的氛围。

在与朝鲜经济交流的过程中，中韩两国有必要关注朝鲜的特区建设。从中国改革开放的经验来看，特区建设的意义大大超过其本身的意义。中国很早就尝到了“深水效果”的甜头，特区建设为其它地区的改革开放提供了经验，其波及效果十分巨大。现阶段朝鲜的特区建设也有十分重要的意义，因此在经历了30多年的经济危机之后，朝鲜在经济建设方面从未出现过这样的效果，朝鲜在经济建设方面也没有信心。如果经济特区建设得以成果的话，这不仅为朝鲜提供了重要的经验，而且在经济建设上也会产生信心。现在，金正恩把特区建设设定为国家的重要课题，这也为中韩两国提供了一个机会。中韩两国合作首先从罗先、新义州、开城等特区入手，构建一个能对朝鲜全境都产生影响的开放的经济体系，以此来引导朝鲜的开放和内部经济恢复。从危机管理的角度来看，就是让朝鲜马上释放其内在的爆发性能量，实现经济的软着陆，也为周边国家的经济和稳定带来深刻的影响。

2) 朝核问题的最终解决

客观的讲，北韓的朝核问题已经持续了20余年。这期间周边国家倾注了很多努力，但是实际上可以看出朝核问题在日益复杂化的趋势。北韓已经进行了3次的核试验，在宪法中也明确表示了将向持核国家转变。金正恩集权之后，北韓已经确立了“核开发和经济建设并行”的基本国策。让国际社会更加不安的是北韓的核开发已经进入了武器化和关键性阶段。北韓如果在多进行几次导弹发射和核试

验的话,将会实现和武器化.这将会招致东北亚地区局势的不稳定.另外,国际社会面临着朝核问题解决路径的选择问题.这样的难题往往会带来两个相伴的解决路径和课题.如上所述,从长期的战略角度来看,着眼于北韩的变化是解决朝核问题在内的北韩问题的重要解决路径.但是如果北韩一直将核问题放在中心的话,必然会招致国际社会更加强烈的制裁,因此,将会产生矛盾的问题.即,推动北韩变化并且为了使其变为国际社会上负责人的一员,除了需要与其进行大范围的经济合作,为了向其强调抛弃核武器还要进行必要的封锁.那么,我们应该怎样解决这样困难的矛盾呢?

北韩的核问题实际上由两个部分构成.其一当然是核项目本身,另外一个便是北韩长期以来在对立关系形态上积累的对于美国、韩国、日本等特定国家,甚至是对于这个国际社会的敌对意识.如果说北韩的敌对意识已经到达了极限也不为过,北韩的核问题也显示出了几位危险的特性.因此,解决朝核问题的方法之一是物理上消除北韩的核弹,另一个便是消除其敌对心理.从威胁性的角度看,消除北韩的敌对心理更为重要.现在韩美同盟和美日同盟对于北韩不仅强化制裁强度,由于军事同盟的强化,北韩也在试图屈服.但是客观来讲,这样的对策反而可能会招致相应的结果.即,受到军事压力的北韩完全不会感到抛弃核武器的必要性,反而更迫切的认识到持有核武器的重要性.结果是,国际社会会陷入朝核问题的困境.因此,包括美国在内的国际社会对于朝核问题的解决政策不能说是完全失败了,但是至少可以说是接近失败.这便是北韩对于国际社会的敌对心理持续强化的结果.即,以这样的制裁为基础触发的行动反而会招致更加危险的状态.这便是北韩对于国际社会敌对心理不断强化的产物.另外我们必须还要摸索另外的正确的解决路径,这条路径便是,在联合国决议案允许的范围内和北韩进行大范围的经济交流.联合国决议案的实行是为了解决核弹问题,与北韩的经济交流是为了促进北韩的变化以及减轻其敌对心理.

当然,一次性将北韩的核问题解决的计划和目标并不是不可能.但是从现在的情况来看,以这种制裁的方式来同时解决明显会出现巨大的问题.因此应该以国

国际社会对于朝核问题的总体立场来设定联合国的相关决议案，将接触朝核问题分为几个阶段。第一个阶段是要求北韩进行核试验冻结。这个阶段之中，国际社会的制裁应该实现阶段性目标中的冻结北韩核项目的目标，与其相应的，国际社会也应该在联合国决议案允许的范围之内和北韩进行大规模的经济交流。当然这样的交流的着眼点应该放在北韩居民生活的提高上面。通过这样的方式可以构成促变化求稳定的国际氛围。另外，应该在这一阶段中通过制裁要求北韩在核问题中让步，同时，应该为北韩提供体面的让步机会。即，在一定的范围内和北韩进行经济交流。解决朝核问题，我们应该同时推进制裁和交流的主张原因有二。一为现今国际社会和北韩在核问题方面展开了不对称的竞争。所谓的不对称的竞争是指国际社会对于北韩的政策已经到达了没有后续手段的极限，而北韩却根据自己的需求可以随时制定策略，时而缓解形势，时而又使形式紧张起来。在这样的状态下，如果只对北韩强调抛弃核武器的话，效果不会很明显，相反还会出现政局阶段性内严重恶化的局面。因此，应该以经济交流的形式先将北韩内部的政局稳定下来。另外一点是，为了消除其对特定国家和国际社会的敌对意识，唯一的解决路径便是通过经济交流使北韩核国际社会合流。从中国的立场看，北韩的核武器开发会对东北亚和平稳定以及中国的安全构成威胁，因此应该毅然反对，但是在推进北韩抛弃核武器的路径选择中，中国力求灵活性的政策。中国同国际社会一道，遵循联合国1874号决议案，一方面加速解决朝核问题，一方面在决议案允许的范围之内构建经济纽带体系。因为只有通过经济的纽带体制才能将北韩融入到国际社会中，才能使其切实感受到，只有放弃核武器才能给自己带来巨大的经济利益。另外，包括六方会谈在内的合作机制也应该给予北韩政策决定的机会。到目前为止，纵观国际社会全盘的讨论，大多数都只是集中在如何强迫北韩抛弃核武器，基本没有认真讨论过假如北韩抛弃核武器，国际社会应该怎样应对这一问题。假如国际社会没有给北韩具体的承诺的话，那么北韩还是不能进行抛弃核武器的政策决定。因此6方会谈中北韩若要抛弃核武器，国际社会应该给北韩哪些具体的承诺，进行这一议题将十分重要。

在研究朝鲜半岛统一对于中国国家利益的影响的过程之中,可以客观的看出对于朝鲜半岛统一问题中国的立场.对于选择何种朝鲜半岛统一政策的问题,不仅是对朝鲜半岛,对中国本身也构成相当的影响.对于韩国来说,在统一的过程之中,应该有必要的寻求同中国的合作.并非只是因为中国是邻国,还因为中国无疑是对于朝鲜半岛形式开展实施最大影响力的国家.但是并不能因此就说中国的对朝鲜半岛统一政策只会对朝鲜半岛产生影响.朝鲜半岛的形式不仅会对中国构成巨大影响,也会对未来中国的发展形成直接的影响.客观的分析朴槿惠总统强调的“统一成功论”,朝鲜半岛的统一对于周边国家会构成相当积极的影响.特别是本研究中提出了朝鲜半岛统一对于中国的战略意义、经济意义、安保意义等产生积极影响的结论.中国和朝鲜半岛紧密相连的利益构图最终也不仅仅是朝鲜半岛和平统一进程之中的中韩合作,也包括在朝鲜半岛统一之后在东北亚地区两国合作发挥先导作用、主导东北亚秩序的未来前景.

结论是,由于中国的东北亚地区发展战略目标,中国的对朝鲜半岛政策会设定支持和平统一的基调,另外,以朝鲜半岛和平统一为起点,构建东北亚地区和平的国际合作环境.中国以到2049年使东北亚实现现代化国家建设为目标,而朝鲜半岛的和平统一不仅会成为中国战略上的垫脚石,也会打开以朝鲜半岛为一环的国际合作的地缘经济时代.进入近代史以后,朝鲜半岛在地里政治学上位于海洋势力和大陆势力的交叉点,成为大国权力斗争的牺牲者,统一的朝鲜半岛从地理政治学的意义来看将起到海洋经济权和大陆经济权交叉点的作用.当然,这意义是以中国和朝鲜半岛为首惠及到其他国家的.从这样的意义来看,朝鲜半岛的和平统一不管是对朝鲜半岛,当然还有对中国以及周边国家都将带来蓬勃的发展契机.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시리즈 14-02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